웅성대는 군중 속, 한 소녀가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앉아있다.

올리브 머리 색의 소녀는 가느다란 다리로 무릎을 꿇은 채, 힘겹게 눈을 떴다.

‘…다행이야.’

칸나의 눈동자는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어수선한 마을이 아닌, 그가 살린 제국민들을 향했다.

옷가지가 찢겨나가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분명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한 죄로 여기 광장 한가운데에 묶여있다.

“마법을 썼다면서?”

“아니, 이보게. 마법이라니?”

“성녀 후보라더니, 감히 마법을 썼다지 뭡니까.”

칸나의 귀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성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분명……그렇게 말했잖아.”

칸나가 낮게 중얼거렸다.

재판을 진행한 사제들과 제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줄 몰랐다.

적어도 제국민들은, 칸나로 인해 생명을 구한 이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죄인이라니.’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 칸나를 채찍질했다.

그 낙인이 처참해 눈을 질끈 감았다.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성녀 제 1 후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칸나의 목구멍으로 왈칵 서러움이 밀려들었다.

그날은 대신성제국에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날이었다.

그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성녀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어서 들어가지.”

대주교의 말에 모두 진중한 표정으로 신전 안을 들어섰다.

그 안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3단 분수대가 가운데 자리했다.

그 분수대의 가장 꼭대기에는 중형 크기로 풍요의 여신 제르메스 여신상이 있었다.

천장의 둥근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여신상을 환하게 비췄다.

“준비는 됐겠지.”

대주교가 칸나를 힐긋 쳐다봤다.

지켜보는 것은 대주교뿐만이 아니었다.

칸나의 의식을 지켜보고자 다섯 명의 사제가 그녀의 뒤를 빙 둘렀다.

‘모두 나를 보고 있어.’

의식의 결과물로 평화로운 제국을 되찾는다면, 틀림없이 모두가 칭송하는 성녀가 될 수 있겠지.

칸나가 분수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칸나는 과일 가게 바구니에서 사과를 조심스레 꺼냈다.

가게 주인은 귀를 파면서 딴짓을 했다.

칸나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사과를 제 옷 속으로 감췄다.

식은땀이 났다. 많은 숫자도 아니고 겨우 한 개의 사과를 훔칠 뿐인데.

9살 소녀에게 큰 도전이었다.

‘이제 됐다.’

사과색도 불그스름한 거로 잘 골랐겠다, 얼른 도망치려는데 웬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칸나의 발목을 잡았다.

“그거 뭐야?”

남자아이의 목소리에 주인이 가게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남자아이의 손이 볼록한 칸나의 배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인이 보기에도 단순히 꼬마 여자아이의 배로 여기기엔 수상했다.

칸나가 남자아이를 향해 쏘아붙였다.

“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이상하다.”

칸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가게 주인이 매의 눈으로 칸나의 차림새를 살피곤 말했다.

“이리 내.”

“……네.”

칸나가 자신을 이른 남자아이를 째려봤다.

남자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어렵게 고른 사관데.’

물론 칸나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도 그런 사과라면 원치 않을 테지만, 할머니를 기쁘게 할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9살 어린 아이의 짧은 생각이었다.

“…죄송합니다.”

칸나는 끝내 주인을 향해 꾸벅 사과하곤, 골목길로 재빨리 도망쳤다.

들키고 싶지 않은 속을 들킨 것 같아서였다.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닌데.’

그 남자아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났다.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남자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뜩 들었으니 말이다.

골목길에 주저앉아 돌멩이로 훔치지 못한 사과를 그렸다.

갑자기 칸나가 그린 사과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포개졌다.

칸나가 고개를 들었다.

“달리기 꽤 잘하더라.”

아까 그 남자아이였다. 은빛 머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왜 따라왔어?”

“그냥.”

칸나는 사과 그림을 돌멩이로 덧칠하며 새침하게 말했다.

“분한 얼굴을 보고 싶었나 보지?”

“그건 아니고…….”

“나 나쁜 애 아니야.”

“누가 뭐래?”

“할머니 드리려고 한 거야.”

“그래도 도둑질은 안 돼.”

남자아이는 칸나가 볼 수 있게 손을 내밀었다.

“……?”

“여기 사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사과보다도 그 아이 손목에 있는 꽤 깊은 상처가 먼저 눈에 띄었다.

칸나는 손목으로 향한 시선을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나 주는 거야?”

“응.”

“왜?”

“도와주고 싶어서. 난 잘하는 게 없거든.”

남자아이가 칸나의 옆에 털썩 앉았다.

“널 도와주면 나도 잘하는 게 하나는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 아이는 반짝이는 은빛 머리에 눈코입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었고, 키가 칸나보다 작은 탓에 더욱 귀여웠다.

“사실은 도망쳐 나온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봤어.”

“도망? 어디서 도망쳤는데?”

“선생님한테서.”

“선생님?”

“응. 원래 비밀인데. 너도 나한테 도둑질하는 거 들켰으니까 특별히 말해줄게.”

선심 쓰는 듯한 남자아이의 말에 칸나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하. 표정이 엄청 다양하구나?”

“놀리지 마.”

그러다 이내 한층 진지한 얼굴로 남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 선생님이 날 죽이려고 해.”

“응?”

“선생님이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

“무슨 말이야?”

“마법을 못 쓴다고 혼내.”

칸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제국에선 마법을 쓰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9살 꼬마도 아는 상식이었다.

‘마법 국가 티오스면 모를까.’

그제야 남자아이를 자세히 보니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붉은 눈이라면……!’

붉은 눈. 기도를 드리던 중 그 눈을 가진 아이의 잔상이 떠올랐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왜 지금 그 애 생각을…….’

다시 기도에 집중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유유히 노래부르며 흥얼거리는 할머니.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며 보람을 느끼는 아버지.

우유 한 잔에 맛있다고 기뻐하는 아이.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서로를 다독이는 제국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다 이내 와장창 깨져버렸다.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댔기 때문이었다.

이리저리 도망치는 사람들 틈 사이로 메뚜기 떼가 제국을 뒤덮는 광경이 그려졌다.

성인 남성 손가락만한 크기의 메뚜기 떼가 제국민들이 일궈낸 농작물과 가축, 그들의 안식처인 집, 사랑하는 가족들을 노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제국민들의 모습. 칸나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절절한 기도밖에 없었다.

칸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렀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리 저리 달려오는 메뚜기 떼의 속도를 칸나의 기도가 채 따라잡지 못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급급했던 나머지 메뚜기 떼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날뛰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해.’

그러나 기도로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칸나의 미간이 조금씩 구겨졌다.

성녀의 기도는 평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칸나의 기도는 결이 조금 달랐다.

촌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칸나를 무력하게 했다.

‘이거론 안 되겠어.’

칸나의 몸이 흔들렸다.

‘그렇지만 뭘 할 수 있지?’

한번 생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 순간.

‘사라져.’

보랏빛이 칸나의 몸에서 뿜어나왔다.

알 수 없는 힘이 칸나를 감싸자, 칸나가 잠겨있던 분수대의 물이 보랏빛으로 요동쳤다.

참관하던 사제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칸나는 기도에 집중해야했다.

알수 없는 보랏빛에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와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메뚜기 떼가 전부 산산이 부서졌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엄청난 힘에 놀란 칸나가 눈을 크게 떴다.

부서진 흔적은 일제히 가루가 되어 더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메뚜기 떼가 감쪽같이 사라진 제국 일대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잠깐이지만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고, 칸나가 희미하게 안도했다.

흠뻑 젖은 채 의식을 마친 칸나에게 빛이 쏟아졌다. 빛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끝났어.’

칸나가 잠깐 휘청거렸으나 곧바로 다시 중심을 잡았다.

대재앙을 막아낸 칸나의 머리칼엔 굵은 물방울들이 반짝이며 맺혔다.

그러나 뒤에서 참관하던 이들의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칸나는 숨을 고르느라 그들의 낯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칸나.”

“…예.”

칸나의 뒤로 다섯 명의 사제들이 빙 둘러섰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의 진실한 기도에 찬사를 보내리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칸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잘못?’

화가 단단히 난 대주교의 목소리가 칸나의 입을 얼어붙게 했다.

이제 막 기도를 마친 소녀에게 화가 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국민을 구하기 위해 대재앙을 막은 것이 잘못입니까?”

힘을 많이 소진한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칸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쯧쯧. 대답이 시원찮다.”

칸나는 대주교의 이런 모습을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하르엔을 대할 때 봤던 모습이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신성 모독죄다.”

“예?”

“대체 이곳에서 뭘 배웠단 말이냐.”

‘신성모독이라니?’

그런 건 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었다.

“신성모독이라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네 표정이 더욱 화가 나는구나. 네가 한 건 기도가 아니다.”

“아닙니다. 분명 기도를…….”

“정녕 네가 마법을 쓴 줄도 모르느냐!”

마법이란 단어에 칸나가 그만 움찔했다.

‘마법.’

대신성제국과 가장 동떨어진 단어.

이 제국에서 절대 허용하지도,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아까 그 힘이…….’

칸나의 까만 동공이 흔들렸다.

평소와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사형이다.”

단호한 대주교의 말에 뒤에 있던 사제들이 칸나만큼이나 동요했다.

잠자코 뒤를 지키던 바흐가 대주교를 막아섰다.

“이 아이가 많은 제국민을 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섯 사제 중, 다음 주교 후보로 가장 유력한 자.

“뭐라?”

“죽음까지는 과한 처사입니다. 차라리 티오스로 망명을 보내는 것이…….”

망명이란 말을 듣자 대주교의 눈빛에 날카로운 예기가 서렸다.

“바흐. 자네, 신성제국을 모독한 저 마녀의 편을 드는 게로군.”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정녕 기른 정이 신에 대한 사랑보다 깊단 말인가?”

“하지만…….”

“망명이라고 하였느냐? 티오스로 보내면,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그들의 국력이 높아질 것인데……. 자네는 지금 우리 손으로 전쟁을 종용하자는 소린가?”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태에 칸나는 눈앞이 깜깜했다.

‘사형…? 망명…?’

이런 말은 예비 성녀로 살아오면서 듣지도,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였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구했어. 그런데 어째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자네에게 충고 하나 하지. 몇 명을 살려냈건, 그건 상관없네.”

칸나의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감돌았다.

“용서할 수 없는 건, 괴상한 빛뿐만이 아니란 말이다. 여기 있는 모두가 보았다. 자네도 보지 않았는가.”

“…….”

“저 아이는 살생을 원했다.”

대주교의 강단 있는 말에 숨죽였던 다른 사제들이 그제야 맞장구쳤다.

“맞습니다!”

“곧 성녀가 될 자가 마법을 쓰다니요. 더군다나 살생이라뇨!”

“마법을 쓸 줄 알았다면, 신성 모독죄뿐만 아니라 기만한 죄도 함께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마법이었어?’

사람을 구했다.

그게 마법이었다 한들,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었다.

‘메뚜기 떼가 제국을 덮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야 했다는 소리야?’

살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칸나가 생각하는 성녀와 그들이 말하는 성녀는 다른 것 같았다.

‘내가 믿는 신은 그런 게 아냐.’

야유 속에서 칸나는 힘든 몸을 이끌고 대주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을 들다 난처한 처지가 된 바흐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다.

“죽이십시오.”

결연한 입매를 한 칸나를 보며 기개를 느낀 바흐의 어깨가 잔뜩 경직됐다.

대주교는 진정되지 않는지 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게지. 허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게다.”

칸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혔다.

“천한 것. 살생을 떠올리다니.”

누구보다도, 어쩌면 길러준 바흐보다도 칸나의 신성력을 높이 산 이였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주교를 바라보지만, 그 시선을 피한 대주교가 모두에게 선포했다.

“제국의 법도대로 하겠다.”

‘제국의 법도.’

어릴 적 책에서 봤던 제국의 법도를 떠올렸다.

신성한 힘을 가진 자들은 절대 그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당장 가두어라.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어떤 것도 주지 말게.”

칸나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신께서 적시에 저 목숨을 앗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잠자코 기다릴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

창 하나 없는 지하의 독방 감옥에서 칸나는 굶주렸다.

지난날을 식량 삼아 버텨보려 했다.

성녀 제 1 후보로서 모두에게 환영받고, 사랑받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은 사라지고, 어느새 칸나에겐 어둠만이 짙게 깔렸다.

‘그건 뭐였지?’

기도를 드릴 때 분명 전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신전 분수대의 물이 요동치고, 온 마을이 메뚜기 떼로 쑥대밭이 되었던 때.

칸나는 그것들을 막아낼 힘을 쥐어짜느라 정신이 혼미했고, 살려달라 외치는 사람들의 절규를 보며,

‘사라져.’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그뿐이었다.

‘간신히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앙을 막아낸 순간에 칸나를 감싼 그 보라색 빛은.

‘그게 마법……?’

그 빛은 칸나를 삼킬 정도의 빛이었으니 참관한 모든 이가 봤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떠올리자 칸나는 목이 탔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야, 언니.”

하르엔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어쩐지 기쁨이 묻어 나왔다.

“하르엔.”

친동생은 아니지만, 바흐의 손에서 줄곧 같이 자라온 동생이었다.

하르엔의 얼굴을 가까이 보려 창살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들린 말은.

“언니가 안 됐지만, 한편으론 기뻐.”

“…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하르엔의 말은 더욱 캄캄하게 들렸다.

“그거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성녀 되고 싶어 했잖아. 근데 못 넘는 벽이 있었어.”

하르엔의 꿈을 모를 정도로 눈치 없진 않았다.

오히려 눈치가 빨랐다.

칸나는 하르엔의 꿈을 그보다 먼저 알았다. 이곳에서 같이 자란 이상 아이들 누구의 꿈도 성녀일 수 밖에 없었다.

“누가 너무나도 유력한 성녀 후보여서.”

칸나의 눈끝이 파르르 떨렸다. 하르엔을 간신히 쳐다봤다.

“그게 언니였어. 그런데 언니, 천재는 다른가 봐.”

“…….”

“마법도 쓸 줄 알고.”

어둠 속에서도 칸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순간 환희로 가득한 하르엔의 미소를.

그 미소에 지금껏 함께한 날들이 거짓임을 깨달았다.

“언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 잘난 재능 덕에 언니도 죽긴 죽는구나. 정말이지 죽어줘서 고마워.”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하르엔을 보며 칸나는 입이 바싹 말랐다.

“이 제국의 성녀, 내가 된대. 정말 기쁘지 않아?”

칸나는 입속에서 여러 말들을 굴렸지만, 정작 뱉은 말은.

“축하해.”

몇 명을 살려냈건 상관없다던 대주교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살생이었는데도 단지 마법을 썼단 이유로 죽게 되는 성녀라면.

‘그런 성녀라면 나도 사양이니까.’

하르엔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정말이야.”

어이가 없었는지 하르엔이 고개가 넘어갈 듯 깔깔 웃어댔다.

칸나가 하르엔에게 악수를 청했다.

쇠창살 사이로 삐져나온 칸나의 손을 보자 하르엔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이제 하르엔의 얼굴에서 웃음 같은 건 사라진지 오래였다.

단지, 오물을 뒤집어 쓴 생쥐라도 본 것처럼 칸나의 손길에 살짝 뒷걸음질 쳤다.

“죽음의 문턱에서 미개한 마법으로 내 몸에 저주라도 내릴 셈이야?”

“그 미개한 마법이 무서운가 보구나.”

칸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르엔의 손을 덜컥 잡았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칸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감히 성녀의 몸에 손대다니!”

“명복이나 빌어줘.”

“뭐?”

“같이 자란 날을 생각한다면 말야.”

칸나를 밟고 성녀가 된다는 생각에 들떴던 하르엔은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같이 자란 정.

사탕 몰래 까먹은 정?

몰래 시장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 들어온 정?

농땡이 부리다 바흐에게 혼쭐나서 같이 벌섰던 정?

그런 건 온데간데없었다.

죽음을 앞둔 칸나와 그 덕에 성녀가 될 하르엔. 둘에게 그런 정은.

“이제 그만 가봐.”

“바흐 주교님이 네 편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좋아. 혼자 있고 싶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내일 있을 사형선고를 말하는 듯했다.

제국민이 모인 광장 앞에 끌려나가 성녀에게 죄를 고하고, 낱낱이 파헤쳐져 돌팔매질 당하는 날.

칸나는 억울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내 다음 생을 기도해줘.’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성녀 같은 거 하지 않을 거라고.

생명을 구한 공보다 마법을 쓴 죄가 더 큰 이곳에선 절대 살지 않을 거라고.

뒤돌아서서 멀어지는 하르엔을 보며, 칸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아까는 제 소견이 짧았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대주교님.”

바흐가 얼른 무릎을 꿇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어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닐세.”

“…….”

“하지만 다음엔 충동적으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게.”

대주교가 헛기침하며 등을 돌렸다.

바흐가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하마터면 자신이 쌓아 올린 지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 아이를 기른 건 맞지만…….’

그래, 칸나 그 아이만 있진 않았다.

바흐는 순식간에 하르엔을 떠올렸다.

항상 칸나의 뒤에만 있던 아이.

나이에 비해 출중했지만, 칸나와 견주기엔 부족한 신성력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바흐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두 번째 아이가 있지 않더냐.”

마침 대주교가 같은 생각을 했다.

“…하르엔 말씀입니까.”

“그 아이가 하르엔이로군. 곧 발표하도록 하세.”

“그, 그렇다면…….”

“맞네. 그 아이를 성녀로 만들걸세.”

주먹을 쥔 바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대재앙이 물러간 광장, 풍요의 제르메스 여신상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대주교가 단상 위에 올라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곤, 하르엔을 옆에 세웠다.

우리 제국을 살릴 진짜 성녀는 따로 있었다며 사람 좋은 얼굴을 하는데, 칸나가 그만 눈살을 찌푸렸다.

‘쓰면 뱉는 사람.’

먹다 버려진 사과 씨가 됐다.

다른 과일을 욕심내는 대주교를 보면서 칸나는 대주교 옆에 있는 하르엔이 안타까웠다.

‘성녀가 돼서 기쁘겠지.’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들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개탄했지만.

“풍요의 여신 제르메스의 은총을 받은 하르엔 성녀님께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광장의 열기는 새로운 성녀의 등장으로 뜨거웠다.

비록 마법을 썼고, 살생이었다 해도 제국민을 살렸는데.

사람들은 잔인할 정도로 칸나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

‘가엾은 사람들.’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미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칸나 알히데. 성녀 하르엔에게 당장 네 죄를 고하라.”

“…….”

“당장 네 죄를 고하라!”

“고하라!”

대주교의 말에 사제들과 제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외쳤다.

그 외침은 메아리쳐 칸나에게 닿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제국민 가슴 곁에 풍요의 문양이 새겨진 갖가지 물품을 보고 있으니 속이 메슥거렸다.

대주교 뒤에서 하르엔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짧은 걸음에서 성녀의 기품을 담으려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어서 죄를 고하세요.”

“……없어.”

잘 들리지 않았는지, 무릎을 꿇어앉은 칸나에게 하르엔이 다가왔다.

하르엔이 칸나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앉자, 사방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뭐라고 했나요?”

“…죄가 없다고.”

하르엔이 칸나의 긴 머리를 한쪽 귀 뒤로 넘겨주며 낮게 속삭였다.

“단 하루 만에 사형수가 된 기분이 어때?”

웃음을 머금은 하르엔의 말이 칸나는 몹시 거슬렸다.

사형수라.

‘어울리지 않게.’

이들은 제국법에 따라 칸나를 즉시 처형하지 않는다.

그저 신께서 목숨을 앗아가는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지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 시간을 단축할 뿐.

그 사실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제 고작 사형수한테 그렇게 당한 게 기분이 나빴거든. 오늘 제대로 갚아주려고.”

“이거 미안한데.”

“……?”

“사형이 아니라서.”

“지금 무슨……?”

칸나의 몸에서 기괴한 광채가 뻗어 나왔다.

기사들이 허리춤에 채워진 검을 빼내려 하자 칸나의 눈짓 한번에 검이 사라졌다.

사라진줄 알았던 검은 속수무책으로 제 맘대로 공중에 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하르엔이 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다.

공중을 배회하던 다섯 개의 검이 칸나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칸나의 주위를 돌던 다섯 개의 검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저…저…!”

검을 빼앗긴 기사가 놀라 넘어졌다.

그렇게 추앙하는 여신의 힘은 어디로 가고, 마법 하나에 이렇게 벌벌 떨다니.

칸나는 모든 것을 비워낸 눈동자로 그들을 쳐다봤다.

하르엔 역시 놀란 동공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겁먹은 성녀로 보이기 싫었던 하르엔은 주변을 살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당신들이.”

칸나가 입을 열자 모두 숨을 죽였다.

“말려 죽일 때까지 기다릴 바엔.”

그토록 애써서 지켜온 신성제국에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예감이 들자 대주교가 몸을 벌벌 떨었다.

“내 손으로 죽는 게 나아.”

칸나를 감싸고 빠르게 돌던 검들이 속절없이 칸나의 몸으로 달려들었다.

다섯 개의 검 모두의 날이 전부 칸나의 몸을 향해 돌진한 그 순간, 칸나의 육신이 힘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대주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눈치만 보던 바흐가 얼른 그를 부축했다.

“…잘 가. 이게 내 기도야.”

칸나의 죽음을 코앞에서 본 하르엔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옷자락을 세게 말아 쥐며 무미건조한 눈물을 흘렸다.

칸나의 눈이 깜빡거리다 이내 완전히 감겼다.

어느새 땅에 꽂힌 커다란 검들이 전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이런 식으로 죽지 않을 거라 한 다짐은 그 장검에 새겨져 이내 칸나만큼 활활 타올랐다.

칸나가 무거운 눈을 떴다.

그 반쯤 뜬 눈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바흐와 하르엔의 얼굴이 보였다.

“언니!”

하르엔의 상냥한 말투에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 몸이 욱신거렸다. 몸은 이렇게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칸나의 정신은 온전했다.

‘안 죽은 건가?’

바흐가 작은 하르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살살 말해야지, 하르엔. 아무래도 언니가 악몽을 꿨나 보구나.”

칸나가 두 눈을 비볐다.

하르엔이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칸나를 쳐다봤다.

다정한 말투에 칸나는 쉽사리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악몽이라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칸나의 죽음을 방관한 자들이 아니던가.

어쩌면 죽음을 가장 바랐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악몽이라 하기엔 목에 검이 들어온 순간이 생생했다.

그 보랏빛 마법도.

“언니, 언제 나아?”

천진한 물음이었다.

어린 하르엔의 목소리에 한 번 놀랐고, 몇 년이나 어려진 것 같은 하르엔의 외양에 두 번 놀랐다.

‘어려졌어?’

칸나가 하르엔과 바흐를 번갈아봤다.

“칸나가 아직도 꿈을 헤매는 모양이구나.”

바흐 역시 죽기 전 봤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이마의 주름이 확연히 옅어졌다. 무엇보다 갈매기 같은 눈이 유순해 보였다.

‘그렇다면?’

다짜고짜 일어나 거울 앞으로 향했다. 조금 비틀대긴 했지만 금방 중심을 잡았다.

다만, 몸이 너무나도 욱신거려 걸을 때마다 눈이 절로 찡그려졌다.

거울 앞엔 중단발의 칸나가 있었다.

분명 죽기 전, 칸나의 머리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다.

“이…이게 어떻게 된……!”

“조금씩 정신이 드는구나. 거리에 쓰려져 있는 널 발견하고 이리로 데려왔단다.”

거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칸나가 두 사람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거짓말은 아니야.’

무엇보다도 달라진 머리를 부정할 수 없었다.

단순히 이들이 칸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거리에 쓰려져 있는 걸 발견하고 데려온 것이 가장 큰 실마리였다.

과거에도 분명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혹독한 이곳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가 누군가의 습격으로 쓰러진 채 바흐에게 발견된 일이었다.

다만 다섯 개의 검이 칸나를 향했는데도 왜 죽지 않았는지 몰랐다.

‘기회를 준 걸까.’

그건 차차 생각해야 했다.

“언니! 언니!”

자꾸 심심했다며, 칸나의 손을 잡고 보채는 하르엔 때문에.

칸나는 자신을 향한 하르엔의 해맑은 웃음이 거짓인 걸 지난 번 삶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았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조금씩 안정을 찾자 바흐가 방으로 안내했다.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썼던 제 방이었다.

하르엔이 끈질기도록 칸나의 방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바흐가 말린 덕분에 칸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옆방이 아니길 천만다행이지.’

종일 시달린 탓에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다.

우선, 칸나는 제 방부터 둘러봤다.

침대 옆 조그만 창 하나와 그 옆으로 책장과 책상이 나란히 있었다.

떠나기 전과 그대로였다. 일부러 놓고 간 작은 목각인형까지도.

‘우선 정리부터 해야겠어.’

방 정리가 아닌, 생각 정리였다.

칸나가 책상에 앉아 양피지와 펜을 꺼냈다.

‘회귀.’

그렇게 쓴 두 글자는 칸나에게 생소하게 다가왔다.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바뀐 게 있다면…….

‘몇 년 어려진 것.’

다시 돌아왔다고 한들, 과거 자신이 사형선고 받은 걸 잊을 수 없었다.

광장에서 칸나를 감쌌던 보랏빛과 마법으로 자신을 겨눴던 때를 떠올리자, 칸나의 손으로 순식간에 보랏빛이 스며들었다.

눈을 감고 이 기운을 느꼈다.

‘인형.’

칸나가 생각한 대로 책상 위에 있던 목각인형이 둥둥 떠다녔다.

‘된다!’

칸나는 보랏빛을 몰아내고, 양피지에 적었다.

‘제국 138년.’

돌아온 시점이 아쉬웠다.

지금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갔더라면 할머니랑 헤어지지 않고 같이 이 제국을 떠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손을 놓치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테고.

바흐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 성녀도 되지 않았겠지.’

성녀는 여기 온 뒤부터 줄곧 되고 싶었던 군상이었다.

사람들을 인자하게 품어주고, 도와주며, 사람을 살리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깨져버렸지만.’

이렇게 된 이상, 성녀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칸나는 똑같이 되풀이 했을 것이다.

그들이 살생이라 말하는 마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살렸을 테니까.

그런 이유로 죽을 바엔 성녀가 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

‘죽어줘서 고마워.’

기쁨에 젖었던 하르엔의 말을 떠올리며 성녀가 되지 않을 방법을 천천히 궁리했다.

태어날 때부터 성녀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건 남의 일이었다.

칸나는 그저 할머니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빴고, 칸나에겐 할머니밖에 없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늙은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인 모리스가 암암리에 진행했던 환자 치료였다.

모리스는 성녀나 약제사가 아니었지만,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다.

물론 어두운 골목길이나 방 한쪽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칸나는 할머니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지 보지 못했다.

다만 치료할 때 칸나를 내보냈던 것과 치료를 마친 사람들이 나올 땐 표정이 한층 밝은 것을 보고 추측할 수 있었다.

‘할머니만의 방법.’

누구에게도 알려져선 안 되는.

어느 날, 붉은 사과를 씻어주던 모리스에게 어린 칸나가 물었다.

“할머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고쳐?”

“그렇게 보이느냐?”

“응!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걸까?”

“아픈 사람이 많은 게지.”

“신기해.”

칸나가 작은 입으로 사과를 베어 물었다.

베어 무는 족족 향긋한 사과 향이 입안에서 번졌다.

“너도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냐?”

“응! 나도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 하고 싶어.”

“할머니가 어디 좋은 사람이더냐?”

“응! 사람들이 할머니 방에만 갔다 오면 웃으면서 나오는걸?”

해맑은 손녀의 미소에 모리스가 따라 웃었다.

“피는 못 속이나 보구나.”

모리스 혼자만 알아듣는 말을 하며, 먹기 좋게 자른 사과를 자그마한 칸나 손에 쥐여주었다.

먹어도 먹어도 사과는 줄어들지 않았다.

어린 칸나는 그걸 보고 할머니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모리스가 분주히 움직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몇 안 되는 옷가지를 꺼내 큰 가방에 옮겨 담았다.

칸나는 졸린 눈을 끔뻑대며 비몽사몽 눈을 비볐다.

“할머니, 뭐해?”

“어서 일어나자꾸나.”

모리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칸나는 어리둥절했다.

“우리 어디 가?”

“…이사 간단다.”

이 밤중에 이사 간다는 게 어린아이의 눈에도 이상했다.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오늘 밤에 꼭 가야만 해.”

칸나는 모리스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납득할 수 없었고, 금방 초조해졌다.

모리스의 두툼한 손을 잡고 따라나선 칸나는 깜짝 놀랐다.

야심한 시각 모인 사람들도 저마다 가벼운 짐을 하나씩 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칸나가 모리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댔다.

모리스는 칸나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여며주곤 입가에 검지를 가져다 댔다.

칸나는 그 손짓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칸나가 작은 손에 사과를 꼭 잡고 따라나섰다.

할머니가 미처 챙기지 못했을 사과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리를 선봉 하는 자가 모리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한 자가 조용히 출발을 알렸다.

행렬을 따라 조금씩 움직였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모리스가 거친 쇳소리를 냈다.

칸나는 할머니가 쇠약한 몸을 이끌면서까지 짐을 챙겨 떠나는 이유를 몰랐다.

‘할머니는 사과를 좋아해.’

그러니까 사과를 주면 할머니가 기운을 차릴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거대한 무리의 행렬에서 급하게 걷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사과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데굴데굴 굴러가는 사과를 하염없이 바라만 볼 순 없었다.

잠깐 고민도 잠시, 칸나는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냅다 뛰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니까 사과를 주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열한 살 아이의 어린 생각은 찰나에도 훗일을 그리지 못했다.

금방 다시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과를 따라잡았을 때 주변을 둘러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 칸나 혼자였다.

다시 행렬 방향으로 틀어 뛰었지만, 어린아이의 뜀박질론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미 늦었다.

행렬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불현듯 이제 할머니를 영영 만날 수 없다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사과가 뭐라고.

칸나는 쇠약한 몸으로 행렬을 따라간 모리스가 뒤를 돌아볼 수 없단 걸 깨달았다.

작은 사과 하나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할머니를 놓치고 말았다고 자책했다.

칸나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지 못하고, 조금씩 잦아들었다.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길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쳤다.

그게 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곤 할머니 옆에서 환자들 들여보내는 것밖엔 없는데.

“얘야.”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칸나를 살린 사람이 바흐였다.

당시 바흐는 유능한 성녀를 발굴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모아 교육하는 자였다.

지극정성을 다한 바흐의 보살핌에 칸나의 몸과 마음도 금방 회복했다.

여기서 지내고 있는 하르엔과도 부쩍 친해졌다.

밤마다 모리스 생각에 끙끙 앓았지만, 칸나가 선택한 일이었고, 더는 자책만 할 수 없었다.

우선 생존이 중요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바흐가 제안을 한 건 풍요의 여신 제르메스 여신상 앞에서 할머니를 떠올린 그때였다.

“너도 성녀가 되는 공부를 해보겠느냐?”

“…성녀요?”

“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잘 알고 있구나. 기도로 모든 이의 평안을 염원하는 막중한 직업이란다.”

칸나의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머니가 치료하는 것 말고 본 적이 없었으니까.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느냐?”

“네!”

하르엔을 포함한 아이들 몇몇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여신상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어린 칸나와 바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잠자코 지켜봤다.

할머니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과 달랐지만 기도하는 아이들에게서 어쩐지 사람을 위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내려오너라.”

바흐의 목소리에 꿈에서 깬 여기가 바로 현실이란 걸 실감했다.

칸나는 어린 칸나의 과거를 꿈에서 봤다. 긴 꿈이었다.

‘정신 차려야 해.’

회귀한 건 꿈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2회차 인생이다.

왜 이 시점으로 돌아왔는지, 칸나는 천천히 살피기로 했다.

식사는 응접실에서 이뤄졌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바흐가 지명한 아이들 몇몇만 겸상할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칸나는 과거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하르엔은 개의치 않아 보였다.

오히려 천진한 얼굴로 바흐에게 최선을 다해 귀염받으려 했다.

식사 전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빵을 들었다.

식사 중엔 말을 하지 않았다.

‘습관은 어디 안 가네.’

성녀 교육을 오래 받아서인지 몸에 배어버렸다.

‘과거엔 이렇게 먹기 어려웠는데.’

딱딱한 빵도 제법 소리 내지 않고 먹었다.

그런 칸나를 바흐가 물끄러미 쳐다봤다.

식사를 다 마친 바흐가 손수건으로 입 주변을 닦으며 말했다.

“식사 예절은 어디서 배웠느냐?”

하르엔의 시선이 칸나에게 꽂혔다.

칸나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제님께 배웠습니다.”

‘그것도 무려 8년이나 말이죠.’

대답을 가만히 듣던 바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칸나가 이곳을 나가기 전까지 자신이 식사 예절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완성형이 아니었다.

잠깐 사라진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성장했다니.

식사뿐만 아니라 어른을 대하는 예절도 나이에 맞지 않게 기품이 느껴졌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칸나는 다른 사람 같았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바흐가 칸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몸에 귀중품 하나 없던 아이였다.

만약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라면 그 야심한 시각 바깥에 버려진 채 쓰려져 있지 않았을 테지.

바흐는 상념을 지우고 이내 수긍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식사 예절이구나.”

“…감사합니다.”

“언니는 참 대단해!”

그와 반대로 하르엔은 영락없는 열두 살 소녀였다.

하르엔이 천진했던 덕에 과거 칸나와 하르엔은 금방 둘도 없이 친해졌지만.

지금 칸나의 정신상태는 이미 성인이었다.

더군다나 캄캄한 감옥에서 환희에 가득 차 자신을 내려다보던 하르엔을 떠올렸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하르엔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으니.

지금 같은 행동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아직 어린 애일 뿐인데.’

식사가 끝난 후, 방으로 얼른 들어가려는데 하르엔이 뛰어와 칸나의 손을 잡았다.

“언니! 하르엔이랑 산책하러 가자.”

칸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하르엔이 칸나의 팔을 잡고 막무가내로 졸랐다.

“난 가고 싶지 않아.”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말을 뱉고 나서는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땐 너무 가까워서 탈이었지.’

“하지만…….”

시무룩한 하르엔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언니, 하르엔이 싫어?”

“난 네 언니가 아니야.”

칸나가 그은 선은 감정이 풍부한 열두 살 소녀에게 가혹한 선이었다.

언니를 언니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에 하르엔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달래주는 것도 이상하지.’

정을 붙였다간 나중에 또 그런 꼴을 당할 테니.

‘내 쪽에서 쳐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다.

칸나가 뒤돌아섰다.

우는 하르엔을 내버려 둔 채 유유히 걸어가는 칸나의 뒷모습을 바흐가 지켜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칸나가 책상 위에 걸터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칸나가 회귀한 후 알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닌 마법이었다.

칸나를 감쌌던 보랏빛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알고 싶었다.

‘티오스라면 알지도 몰라.’

칸나가 과거 자신에게 사과를 건네주던 마법 국가 티오스의 은빛 머리 소년을 떠올렸다.

이름은 모르지만, 마법을 쓴다는 것과, 붉은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티오스에서 온 소년이라고 확신했다.

‘티오스로 가야 해.’

그 소년이 아니더라도 그곳은 마법을 쓰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고, 티오스 국민이라면 이 현상을 알 것 같았다.

마법 국가 티오스까지 가려면 경비가 필요했다.

약간의 돈만 있어도 충분한데 지금 그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돈을 어디서 구하지?’

턱을 괸 손이 제 맘대로 까딱였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서 티오스까지 걸어서 가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설령 걸어간다 해도 당장 들어갈 식비가 문제였다.

그렇게 도망쳤다간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면 금세 잡히고 말겠지.

얼마 전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힘이 있어야 도망도 칠 수 있다.

‘잠깐.’

칸나가 까딱거리던 손을 멈췄다.

바흐가 칸나에게 이곳에 남겠냐고 슬슬 물어볼 때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었다.

지금까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성녀가 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여기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솔직한 심정은 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돈을 구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 프랑크씩 받은 적이 있어.’

제국민을 위해 염원을 빌고, 여신상 앞에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자투리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기도가 풍요의 여신에게 더 먼저 닿길 바랐다.

그 바람을 프랑에 담아 칸나에게 조금씩 쥐여주었다.

당시 칸나는 그런 돈을 받기 꺼렸으나, 바흐는 그냥 넣어두라 했다.

“그들이 원해서 준 것이니 나쁘게 생각할 것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을 테니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 말아라.”

그땐 몰랐다.

기도할 뿐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바흐가 그들의 바람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관 짓는 줄 몰랐다.

가난한 자는 기도를 바랄 수 없었고, 절망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으슥한 골목길에서만 치료해주던 할머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지 않았다.

칸나는 머리를 더 굴려야 했다.

생각에 빠진 칸나는 기어코 과거의 기억들을 쥐어 짜냈다.

‘교환학생.’

일정한 기간 성녀 교육을 수료한 자는 다른 국가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었다.

마법 국가 티오스로 바로 가는 건 무리지만 교환학생으로 가는 길에 몰래 빠져나갈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애석하게도 칸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칸나는 얼른 목표를 수정했다.

여기 남아 얼마 남지 않은 성녀 교육은 받기로.

대신,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타국으로 이동할 때, 아무도 모르게 티오스로 도망가기로 말이다.

이제 칸나의 머릿속엔 과거와 달리 아직 이곳에 남으라 말하지 않은 바흐만 있었다.

칸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흐를 찾아갔다.

바흐는 그보다 아래 계급에 있는 다른 사제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칸나의 눈에 비친 건, 무언가를 사제복 안으로 급하게 넣는 바흐였다.

바흐는 급하게 넣는 와중에도 그 무언가의 무게를 가늠했는지, 기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걸 받았으니, 내 분명 자네를 모른 체하지 않겠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칸나가 얼른 등을 돌렸다.

대주교가 사형선고를 내릴 때, 바흐가 막아선 건 인상 깊었다.

잠깐이나마 칸나에게 정이 있어서 막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 그는 단지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권력 때문에 칸나의 사형을 반대했던 걸 알았더라도 칸나는 별다를 것 없이 죽음을 택했겠지만.

바흐가 칸나의 뒷모습을 알아채곤, 사제와 이야기를 끝맺었다.

손에 두꺼운 책을 들은 채, 바흐가 칸나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칸나로구나. 어쩐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가 보군.”

“예.”

바흐의 태도를 관찰하려면 아무래도 조용한 곳이 좋았다.

바흐가 흔쾌히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바흐는 아직 주교 후보가 아닌, 바로 밑 계급. 상급 사제였다.

주교가 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그의 서재에서 느껴졌다.

신성력에 관한 온갖 책들로 빽빽이 채워져 있었으나, 다른 분야에 관한 책들도 여럿 있었다.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바흐가 책을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칸나는 두리번거리던 걸 멈추고 바흐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여기 남게 해주세요.”

여기 남고 싶지 않아서 도망까지 쳤던 칸나였다.

바흐가 흥미로운 듯 턱 주변을 매만졌다.

“어째서?”

“제가 남겠다고 하면 환영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바흐가 눈을 가늘게 뜨곤 칸나를 살폈다.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아이였다.

‘흠.’

도망치기 전에도 뛰어난 성적으로 바흐를 못내 가슴 뛰게 했다.

어쩌면 바흐 자신을 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이런 아이라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성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당돌한 대답은 바흐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이답지 않아.’

바흐는 왜 마음이 내키지 않는지 몰랐다.

칸나는 바흐가 저울질하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챘다.

바흐의 셈이 느린 탓에 속이 뻔히 보였다.

칸나는 바흐의 저울질이 금방 끝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했다.

“심려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칸나가 등을 돌리려 하자, 바흐가 다급히 말했다.

“자, 잠깐!”

“……?”

“여기 남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네.”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거요.’

한 번 죽은 목숨 두 번은 못 바치겠냐마는.

그리고 그런 의미는 깨뜨리면 그만이다.

칸나는 반드시 망명에 성공하고 말 거니까.

망명하고 나면 마법을 쓰게 된 이 몸뚱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

바흐는 칸나의 눈빛에서 원하는 대답을 들은 모양인지 더 물어보지 않았다.

“일단 앉아라.”

“네.”

칸나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앞으로 교육을 받게 될 거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수업을 듣게 될 텐데 할 수 있겠느냐?”

“네.”

“말 그대로 성녀가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발로 여기 남았다는 걸 잊지 말거라.”

“물론이죠.”

“거기 규칙들을 써놨으니 읽어 보아라.”

바흐는 글자가 적힌 양피지를 칸나에게 내밀었다.

칸나는 양피지를 읽는 자신을 바흐가 유심히 관찰하는 걸 느꼈다.

1. 매일 새벽과 밤에 기도.

2. 자유시간은 해가 중천에 뜬 때부터 노을 지기 전까지.

3. 외출 시 근거지를 적고 나갈 것.

4. 성녀의 기품을 해치는 행동이 적발되면 즉시 퇴소 조치.

5. 위 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내부 회의를 거쳐 판단.

마음에 걸리는 조항은 기도였다.

당신들이 믿는 신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망명을 위해선 해야만 한다.

칸나가 바흐의 서재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 하르엔을 비롯한 아이들이 쭈뼛댔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모양이었다.

칸나는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게 귀찮아 무시하고 가려는데, 하르엔이 외쳤다.

“아, 아무것도 안 했어!”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으니 제발 귀찮게만 하지 말아 달라고, 칸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올리브색 머리를 흩날리며 가는 칸나를 보며, 아이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칸나는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방에 가봤자 얻어낼 건 없고, 생각만 많아질 뿐이었다.

예전엔 기도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었다.

이번 생은 마법이 어떤 건지, 마법을 쓰는 티오스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알고 싶었다.

과거에도 그랬듯, 도서관 외부는 깔끔한 외관이었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칙칙한 냄새가 진동했다.

‘역하군.’

마법 국가를 혐오하는 신성제국에 티오스와 관련된 책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직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이니 한 권쯤은…….’

서적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서 칸나가 원하는 서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예나 지금이나 정리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구나.

오로지 겉에만 신경 쓰는.

그땐 몰랐던 것들이 새삼 느껴졌다.

책으로 빽빽한 책장을 따라 걸었다.

정리한 흔적이 없는 이곳에서 마법 국가와 관련된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다면, 눈높이에서 떨어진 곳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자연스레 칸나의 눈이 맨 위를 향했다.

키가 닿지 않아 나무 사다리를 이용해 손이 가는 책을 하나 집었다.

“후.”

책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니 칸나는 기침이 나왔다.

그제야 책 이름이 보였다.

<위대한 성녀의 하루>

칸나가 실소를 터뜨렸다.

‘위대한 성녀라.’

예전에 이 책을 본 적 있었다.

그땐 이 책을 보고 꿈에 부풀었다.

‘현실은…….’

아이가 보기 좋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게 쓴 책이었다.

성녀 교육 현장의 썩은 현실은 보여주지 않는 그야말로 동화 같은 책.

그 썩은 현실은 9년이 더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애초에 그들이 원하는 게 위대한 성녀인가?

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칸나는 어린 하르엔을 떠올렸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같은 꿈을 향해 달렸다.

지금에서야 다시 보이는 것들이, 그때 전혀 몰랐던 게 아니다.

칸나도, 하르엔도 알면서 외면했다.

그 썩은 현실을 드러내는 순간, 칸나와 하르엔이 인내하고 정진했던 날들이 모두 부정당하게 되고 마니까.

‘죽어줘서 고마워.’

감옥에서 들었던 하르엔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성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으면 관계가 그렇게까지 틀어졌을까 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의 명암을 봤기 때문에 칸나는 더욱 날을 세웠다.

커다란 책장 구석을 살피자 칸나 눈높이에서 조그만 균열이 일어났다.

‘이게 뭐지?’

칸나가 인식하자마자 균열은 사라졌다.

‘잘못 본 건가?’

칸나가 눈을 비볐다. 책을 덮었던 먼지 덕인지 눈이 따가웠다.

‘눈이 침침해.’

먼지가 많은 탓에 눈이 침침해졌다.

그 균열은 칸나가 인식함과 동시에 사라졌으므로, 칸나는 더는 그곳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신 방에서 몰래 읽으려고 책 몇 권을 더 골랐다.

책 제목에 마법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일반 역사책을 골랐다.

‘역사도 도움이 될 거야.’

더 많은 책을 구경하고 싶지만 여긴 더 있을 환경이 되지 못했다.

자유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아직 1시간 남짓 남아있을 터였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복작거렸다.

원래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꼭 무슨 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번잡했다.

“잠깐 지나갈게요.”

부딪히는 사람들을 지나 칸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사람을 향하는 시선들을 따라갔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는 소년이 보였다.

키가 크고 삐쩍 마른 사내가 소년의 모자를 벗기며 말했다.

“자, 해보아라.”

마른 사내의 말에 소년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은빛 머리가 따사로운 햇볕에 반짝였다.

칸나는 그걸 본 순간, 자신이 떠올렸던 붉은 눈의 소년이 이 소년이란 걸 확신했다.

5년은 더 지났겠지만,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소년에게 아직 아이였을 적 얼굴이 남아있었다.

‘쟤가 왜 저기에…….’

은빛 머리 소년이 기다란 봉을 들고 손을 발발 떨었다.

“거 마술쇼는 언제 시작하는 거요!”

“이게 지금 몇 번째람!”

툴툴대는 사람들 덕에 지금 저 소년이 왜 저기에 서 있는지, 소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마법을 못 쓴다고 혼내.’

지난날, 그 소년이 칸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마른 사내가 소년에게 귓속말로 뭔가 지시했다.

소년은 기다란 봉을 휘둘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법이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게 뻔하니, 마술이라는 쇼로 지칭해 아이를 무대에 세운 것이다.

물론 이것도 환영받을 쇼는 아니지만.

소년을 향한 선생 나름의 특훈일지 모르겠으나, 칸나는 눈살이 찌푸려졌다.

‘저게 학대가 아니면 뭐야.’

기다란 봉을 들고 발발 떨리는 소년의 손을 보며 칸나는 남 일 같지 않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자 실망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선생이 수염을 만지며 말했다.

“녀석이 긴장했나 보군요. 자, 연습한 대로만 해보자. 긴장하지 말고. 자, 얼른!”

소년이 불편해 보여서 마음이 쓰였다.

칸나는 자신이 마법의 힘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도 잘 몰랐다.

그렇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자신의 마법이 당장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칸나가 골목길에 숨어 소년을 바라보며 정신을 집중했다.

‘뭐라도 좋으니까 작은 나비라도 나와줘.’

그렇게 몸을 숨겨 마음을 집중하자 칸나의 육신에서 보랏빛이 꿈틀댔다.

칸나가 마주 잡은 두 손에서 마력이 느껴졌다.

‘제발.’

“우와!”

“나비다, 나비!”

사람들의 쏟아지는 박수에 칸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은빛 머리 소년의 기다란 봉에서 나비 몇 마리가 나타났다.

칸나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었다.

소년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마른 사내는 콧수염을 길게 늘어 당기며, 사람들의 환호를 기꺼이 즐겼다.

소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칸나는 급히 몸을 숨겼다. 숨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소년은 선생에게 뭐라 말한 뒤, 얼른 칸나가 있는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들켰나?’

칸나는 얼른 몸을 일으켜 냅다 뛰었다.

사내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역시나 자신이 편했던 공간으로 가게 되는 걸까.

칸나는 어느새 사과를 훔치다 걸려 도망쳤던 골목길까지 왔다.

“휴.”

잘 따돌렸겠지, 생각했는데.

칸나는 뒤통수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등을 돌리자 칸나의 앞엔, 이름도 모르는 은빛 머리 남자아이가 서서 칸나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칸나는 최근까지도 그 아이를 떠올리지 않았나.

10년이 지나서도 기도를 올리기 전, 그 아이를 떠올렸다.

붉은 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칸나의 눈앞에 있다.

남자아이가 쭈뼛대며 걸어왔다.

“계속 널 찾았어.”

그 말이 칸나에게 이상한 울림을 줬다.

회귀 전엔 사과를 훔친 이후 이 소년을 마주한 일이 없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남자아이의 말에 홀린 듯 바닥에 앉았다.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는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머리 색깔 때문에 한눈에 알아봤지만, 전보다 많이 자란 키 덕에 어린 티를 조금씩 벗어가고 있었다.

분명 칸나보다 키가 작았는데.

“난 네 이름도 몰라.”

“난 아는데.”

“뭐?”

“칸나.”

남자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입에서 칸나를 듣는 순간, 칸나의 동공이 순식간에 커졌다.

칸나는 그에게 이름을 말해준 적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과일가게에서 들었어.”

“과일가게에서?”

“응. 내가 물어본 거야. 아, 내 이름은 레이야.”

남자아이가 기지개를 켰다.

레이. 칸나가 레이의 이름을 곱씹었다.

“과일가게에 또 갔었어?”

“응. 널 찾아다녔거든.”

“왜?”

“실은 또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

“그땐 내 얘기만 했잖아.”

칸나가 당시를 떠올렸다.

레이가 오밀조밀 열심히 말하던 그때, 누군가 나타나 홀연히 레이를 데려갔다.

엄한 표정으로 칸나를 흘깃 흘겨보곤, 레이를 둘러업고 자리를 뜨지 않았던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분명 “선생님, 죄송해요.”라고 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까 레이 옆에서 수염을 만지던 마른 사내였다.

“…너 괜찮아?”

과거 레이의 마지막 모습과 지금 레이의 모습이 여전히 쓸쓸해 보였고, 이제야 물을 수 있게 됐다.

“음, 아니.”

역시나 레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전보다 자라긴 했지만, 아직 열 살 소년이지 않은가.

칸나가 레이의 손을 잡아줬다.

속이 드러나는 레이를 보며 칸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회귀 전 레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다.

다 자란 얼굴도, 어디 사는지도, 심지어 이름조차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서 기뻤다.

레이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까지 전부.

제일 기쁜 건, 자신이 그 아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행이야.’

레이는 칸나가 잡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길다면 긴 1시간이었지만 칸나에겐 짧게만 느껴졌다.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데 1시간은 짧았다.

회귀 전, 이 소년이 어떻게 자랐을지 모르지만, 이 소년만큼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칸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편이 없는 이곳에 유일한 자신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아까 그거 너지?”

“근데……, 아까 그거 너지?”

그 일이라면 칸나는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런데 확신으로 가득 찬 레이의 눈을 보자 칸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말했잖아. 난 마법 못 한다고.”

레이의 말이 어쩐지 씁쓸하게 감돌았다.

그때도 이런 눈빛이었다.

마법을 못 해서 선생님에게 매번 혼이 난다고, 이런 눈빛을 했었지 아마.

“주제넘게 도와주는 건 아닌지 잠깐 고민했어.”

“아냐, 고마워. 네 덕분에 한고비 넘겼어. 아깐 정말 선생님이 날 죽일 것 같았거든.”

칸나의 눈이 레이의 손목을 훑었다.

그때 봤던 흉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칸나가 얼른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왜 놀라지 않아?”

“뭐가?”

“내가 마법을 썼다는 거.”

“너도 놀라지 않았잖아. 같은 이유야.”

칸나의 물음에, 레이가 빙긋 웃으며 답했다.

마법 제국의 국민임에도 마법을 쓰지 못하는 레이를 보고 칸나는 놀라지 않았다.

“내가 마법을 못 쓰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마법을 쓰는 것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지.”

왜 그랬을까.

그 말에 문득 이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의 말이 칸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바람이 살랑이자 칸나의 머리칼이 눈부시게 흔들렸다.

“레이. 티오스는 어떤 나라야?”

“음, 좋은 나라는 아냐. 여긴 어때?”

레이가 두 손을 머리 뒤로 넘겼다.

레이도 칸나가 한결 편해진 것 같았다.

“여기도 좋은 건 아냐.”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자유랑 거리가 멀어. 난 너희 나라에 가고 싶거든.”

칸나의 말에 레이가 골똘히 생각했다.

“그거 좀 위험한 발언인걸.”

“알아.”

“아무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

“친구를 떳떳하게 맞아주려면 말야. 낯선 땅에 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이왕 훌륭한 사람이면 좋잖아.”

은빛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칸나의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가 번졌다.

이 녀석이 지금보다 더 자라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해졌다.

1시간의 외출이 꿀처럼 달콤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응.”

“내일도 볼 수 있을까?”

레이의 물음에 칸나가 망설였다.

칸나의 심각한 표정을 오해한 레이가 얼른 손사래를 쳤다.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난 널 만나러 또 오게 될 것 같아.”

그 말은 칸나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좋은 녀석이라는 게 더욱 선명해졌다.

“좋아.”

칸나는 하루에 한 번 점심시간과 해지기 전까지 자유시간이었고, 책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 시간에 칸나가 할 일은 없었으니까.

칸나는 그 시간에 레이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을 레이가 지금 꺼내다니.

“놀랐어.”

“왜?”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거 영광인데?”

“정말 내일도 봤으면 좋겠어.”

“칸나. 나도 그래.”

무수한 일과의 끝, 침대에 누운 칸나는 레이의 다정한 말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다.

마치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칸나가 푹신한 이불을 덮어썼다.

‘레이를 만나러 온 건 아닐까.’

잠시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이유를 망각했다.

내일도 레이를 만나고 싶었다.

레이가 한 말이 아니었더라도 칸나는 분명 레이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오늘은 1시간 밖에 못 봤지만, 내일은 일찍 나가면 3시간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잘 자.’

칸나에게만 들리는 레이의 목소리가 지친 칸나를 한참이나 쓰다듬었다.

“들어가거라.”

다음 날, 바흐가 작은 방처럼 생긴 교실 안으로 칸나를 들여보냈다.

등 떠밀려 들어간 교실에는 하르엔을 비롯한 아이 몇몇이 아침 수업을 받기 위해 차례로 앉아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제각각 나이가 달랐다. 그중에서도 칸나의 나이가 제일 많았다.

예전에도 이 교실을 맡았던 솔리번 선생님이 칸나를 반겼다.

칸나는 솔리번이 반가우면서도, 이 교실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솔리번의 높은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이쪽은 오늘부터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칸나라고 해. 우리 칸나가 먼저 인사할까?”

“…안녕.”

다시 돌아온 칸나를 앞에 앉은 모든 학생이 황당한 얼굴로 맞이했다.

제 발로 도망친 칸나에 대한 소문이 제법 흉흉했다는 걸 칸나도 알았다.

습격을 당해 돌아온 것도 교활한 아이가 꾸민 자작극이 아니냐는 뭐 그런 소리.

머지않아 다들 고개를 숙이고 말겠지만.

솔리번은 칸나가 앉을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마침 하르엔의 뒷자리가 비어있었다.

하르엔이 빈 뒷자리를 돌아보다, 칸나가 자리에 앉자 미간을 구겼다.

달갑지 않은 건 칸나도 마찬가지였다.

‘귀찮게 됐군.’

자리가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는 하르엔을 보자 칸나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하르엔과 접점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교환학생만 되면…….’

칸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교실 문 쪽에 있는 창문으로 바흐가 칸나와 하르엔을 눈에 담더니 천천히 사라졌다.

성녀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음부터 교리를 배우는 건 아니었다.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배웠다.

학생들의 앞에 3명의 사제가 참관했다.

아이들은 사제의 매서운 눈빛에 자세가 흔들렸다.

그러나 칸나는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졸업한 지 꽤 됐지만 매일 기도했던 탓에 이 자세를 잊을 리 없었다.

또 익숙한 자세를 익숙하지 않게 일부러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아무래도 교환학생이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는 우수해야 하니까.

앞에 앉은 사제들의 예리한 눈빛에도 칸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미동이 없었다.

칸나의 기도에는 기개와 절개가 있었다.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성녀가 되지 않겠다는 것.

성녀가 되지 않기 위해 타국의 교환학생으로 발탁되어 도중에 티오스로 도망가는 것.

칸나가 경건하면서도 우아한 자세를 유지했다.

오직 성녀한테만 느낄 수 있는 품격이 칸나에게서 진하게 풍겨 나왔다.

“으흠.”

참관한 사제들이 조용히 감탄하며 양피지에 끄적끄적 써 내려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칸나와 하르엔을 비교하는 걸 멈추지 못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는지 하르엔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하르엔이 앉아있는 칸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좀 이상한 거 알아?”

“……?”

“언니 여기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

맞는 말이었다.

칸나와 하르엔은 회귀 전 이맘때만 해도 비슷비슷한 실력으로 서로 앞다투며 경쟁했던 사이였다.

점점 격차가 벌어졌지만.

그 덕에 지금 칸나가 하르엔을 압도할 수 있었다.

대답이 없자 하르엔이 씩씩댔다.

아마 칸나가 여기 남기로 한 것도 하르엔의 마음엔 들지 않았을 것이다.

언니가 생겨서 좋다곤 했지만 단지 언니의 역할이 좋을 뿐.

그 언니가 경쟁상대가 된다면 하르엔은 배알이 뒤틀릴 테니까.

어린아이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 칸나는 무슨 생각인지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하르엔의 표정은 더더욱 읽기 쉬웠다.

이건 회귀하면서 생긴, 통찰력 같은 거였다.

“대답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지?”

저렇게 대답을 재촉하는 것도.

지금 당장 대답을 듣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는 히스테릭한 면도 모두 눈에 보였다.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모르겠네.”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니깐?”

“둘 중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

“……?”

“천재, 아니면 노력?”

날 때부터 천재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회귀도 다시 태어난 건 맞으니까.

거기다 과거를 체득하고 다시 돌아온 칸나였다.

그렇게 노력까지 했으니.

이번 생에 하르엔이랑 비등비등하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데 그 말에 하르엔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칸나가 하르엔의 의중을 살피고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생각인진 알겠어.”

꿰뚫어 보는 듯한 칸나의 말에 하르엔이 옷자락을 말아쥐었다.

“조금은 숨기는 게 좋을 거야.”

“뭐, 뭐야?”

“그 마음으론 절대 성녀가 될 수 없거든.”

“!”

칸나의 차분한 말에 하르엔이 씩씩거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칸나가 하르엔의 귓가에 속삭였다.

“주변을 좀 둘러봐. 다들 널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하르엔이 주변을 살폈다.

인정하기 싫지만, 칸나의 말대로 모두의 눈이 매섭게 하르엔을 평가하고 있었다.

말소리가 그들에게까지 가닿진 않았지만 둘의 행동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칸나는 차분하게 대응한 반면, 하르엔은 과한 몸동작으로 성녀의 기품을 떨어뜨린 셈이다.

하르엔이 주먹을 세게 쥐며 등을 돌렸다.

‘꼭 성녀가 되길 바라.’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하르엔을 보며, 칸나는 이번 생에 자신이 성녀가 되지 않으면 다음 후보는 하르엔이 될 거란 걸 상기했다.

방으로 돌아온 하르엔이 화를 감추지 못하고 애꿎은 베개를 집어 던졌다.

‘지가 뭔데?’

자신이 처음부터 언니 언니 하며 배를 너무 내보인 탓일까.

이곳에 다시 돌아온 날부터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칸나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재수 없어.’

언제부터 칸나가 하르엔의 위에 서 있었던가.

나이도 고작 한두 살 차인데 빌어먹을 언니 노릇을 하는 게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칸나는 이제야 정식으로 성녀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하르엔은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들으며 성녀 후보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마음으론 절대 성녀가 될 수 없거든.’

그런데 칸나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길바닥을 헤매다 돌아온 칸나가 그보다 몇 년이나 더 일찍 교육을 받은 하르엔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었다.

하르엔은 베개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책상 위에 있던 책을 바닥으로 모조리 던져버렸다.

발을 동동 굴렀다.

자신의 자리까지 노린다면 언니가 될 수 없었다.

자신을 압도하는 눈빛을 본 이상.

‘싹부터 잘라주겠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애가 바흐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하르엔은 이제 깨달았다.

‘보통내기가 아냐.’

하르엔은 입술을 깨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생각에 빠진 나머지 인기척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 아버지.”

“그 호칭은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 다, 당황해서 그랬어요.”

노크도 없이 방을 들어온 사람은 바흐였다.

갑작스러운 바흐의 등장에 하르엔이 이마를 짚었다.

바닥엔 자신이 내던진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하르엔이 조그마한 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다.

짐짓 엄한 표정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베개와 책들을 보며 바흐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친부는 아니었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르엔을 거둬 키운 양부였다.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란 호칭을 좋아했었는데, 머리가 좀 자란 후엔 그런 호칭을 절대 금했다.

하르엔이 보기에 화가 난 자신보다 바흐가 더 예민해 보였다.

“화가 많이 났느냐?”

“……네.”

“그래서 수업을 포기하고 나온 셈이냐?”

“!”

바흐는 하르엔이 느꼈을 기분보다도 수업을 포기하고 나온 자세를 질타했다.

잠깐이나마 아버지로서 위로를 바랐던 건 하르엔의 욕심이었다.

빗나간 예상은 하르엔을 더욱 쓸쓸하게 했다.

‘진짜 아버지라면 달랐을까?’

순간 드는 생각에 하르엔이 얼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바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내 고개 숙인 하르엔을 꾸짖었다.

“뭘 바란 거지? 생각이 하찮구나.”

“…….”

바흐는 굳게 다문 하르엔의 입이 여간 답답했다.

바흐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하르엔이 두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아직 어리다, 어려.”

“아니에요.”

“뭐가 아니란 거냐. 칸나를 보아라. 그 아이는 이미 성녀 자질이 충분하다.”

“그, 그렇지만 일찍부터 교육을 받은 건 저예요!”

“말 한번 잘했구나. 그래, 일찍부터 교육을 받은 건 너다. 그런데 어째서 제일 늦게 들어온 칸나보다 못하는 거지?”

“……!”

하르엔은 반박할 수 없었다.

칸나가 가진 자질은 하르엔 보다도 더 우수했으니까.

아까 칸나가 했던 말처럼 천재라서 애초에 타고난 거라면.

‘이제 난 어떡하지.’

하르엔은 눈에서 눈물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실망하게 하지 말거라.”

“……네.”

울음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느라 하르엔의 턱 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미 눈물이 자욱해 방을 나서는 바흐가 흐리게만 보였다.

바흐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바흐의 발걸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칸나의 방 앞에 멈췄다.

칸나는 저녁 수업을 마무리하고, 책장 안쪽에서 아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꺼냈다.

책의 내용은 고대어로 되어 있었다.

‘다행이다.’

치료가 끝나면 할머니가 방으로 불러 고대어를 알려줬기 때문에 고대어를 곧잘 읽었다.

칸나는 할머니가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어가 그렇게 훌륭한 건지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다는 사실도 당시엔 몰랐다.

‘언어를 많이 알아두면 훗날 도움이 될 게다.’

모리스의 말을 떠올리며 칸나가 빙긋 웃었다.

‘정말 그렇네요, 할머니.’

매일 밤, 할머니와 짬 내서 공부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 줄이야.

칸나는 모리스가 보고 싶었다.

‘마법.’

고대어로 커다랗게 적힌 제목을 칸나가 손으로 훑었다.

마법 관련된 서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기까지만 해도 완전히 돌아선 상태는 아니었나 보다.

레이도 따지고 보면 티오스 사람인데 이곳에 와있지 않은가.

‘마법이 발생하는 첫 번째 요인, 유전.’

얼마 내려가지 못하고 칸나의 손이 거기서 멈췄다.

식사하기 위해 모두 응접실에 모였다.

식전 기도를 올리려는데, 눈이 퉁퉁 부은 하르엔이 뒤늦게 나타났다.

바흐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하르엔을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엄중한 바흐의 말에 하르엔이 고개를 떨궜다.

고개숙인 금발 사이로 하르엔의 오기 가득한 눈과 마주쳤다.

아무래도 앙금이 남은 듯했다.

다시 고개를 들고 꼿꼿한 자세로 하르엔이 자리에 앉았다.

“자, 기도하지.”

바흐의 말에 모두 양손을 모았다.

고요한 분위기 속, 풍요의 여신 제르메스에게 기도를 올렸다.

제각기 다른 마음으로.

하르엔이 따갑게 쳐다봤다.

칸나는 그 시선을 가볍게 무시한 채 수프를 한 스푼 떴다.

‘교환학생.’

그것만이 자신의 목표란 걸 떠올리며 수프를 목구멍으로 넘겼다.

‘맛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에 먹는 수프가 따뜻하니 맛이 좋았다.

맛을 음미하던 그때, 누군가 급하게 들어와 식사를 중지시켰다.

방금 들어온 하급 사제 아놀프에게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바흐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대주교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대주교님 방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다급한 아놀프의 표정을 보며, 바흐는 스푼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잠시 실례하지.”

바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급 사제와 동행했다.

칸나는 수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골똘히 생각했다.

‘대주교.’

크리스토프 카르온. 크리스토프는 대주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최연소 대주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5년 임기의 관행을 뒤엎고 오래오래 해 먹었다.

무려 칸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도.

대주교의 위치에서 고고하게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칸나를 사형시키라 명한 인물.

맛있기만 했던 수프였는데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다.

‘오늘이구나.’

대주교 크리스토프가 상급 사제 바흐를 주교 후보로 승격시키는 날.

어느날 진짜 주교는 난데없이 사라졌다.

명망 높은 주교의 실종에 신전이 발칵 뒤집혔지만, 이내 누구도 캐는 사람이 없었다.

미제 사건은 그렇게 묻히고 말았다.

‘볼만 하겠어.’

주교에 한걸음 가까워져 기쁨을 감추지 못할 바흐의 얼굴을 그렸다.

칸나가 먹던 수프를 다 비우지 못하고 이만 내려놓았다.

바흐가 대주교의 방 앞에서 얼른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대주교님, 상급 사제 바흐 왔습니다.”

같이 따라온 하급 사제 아놀프가 방문을 열어주었다.

헛기침을 두어 번 한 바흐가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토프는 책을 읽다 말고 바흐를 반겼다.

“어서 오게.”

“절 찾으셨습니까?”

“맞네. 일단 앉아서 얘기하지.”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바흐의 찻잔이 있었다.

차향을 음미하는 크리스토프를 따라 바흐가 조금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이 어떤가?”

“좋습니다.”

“단지 그뿐인가?”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요.”

“허허. 자네 성미가 급하군. 그러니 나만큼 빨리 그 자리에 오른 게지만.”

크리스토프의 말엔 알게 모르게 뼈가 있었다.

바흐가 잠시 흐트러진 자세를 고쳤다.

크리스토프가 수염을 길게 쓸어내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도 잔뜩 뜸을 들였다.

대주교의 한쪽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간 걸 보니 적어도 바흐에겐 좋은 소식 같았다.

크리스토프는 바흐를 좋게 봤고, 바흐 또한 그걸 모르지 않았다.

“주교가 되겠다는 목표, 아직 유효한가?”

바흐의 동공이 잠깐 커졌다.

주교는 바흐의 오랜 꿈이었다.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었지만.

“주교 자리가 비었다.”

“하지만 헬만 주교님이…!”

“자리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법.”

크리스토프가 대주교에 걸맞지 않게 헤픈 웃음을 보였다.

바흐는 아직 상급 사제일 뿐이지만, 그의 손을 잡으면 주교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말만 후보일 뿐, 적수가 없었다.

“헬만 주교를 감금했다네.”

“예?!”

“어허, 목소리 낮추게.”

“죄송합니다.”

“실종으로 처리하면 자리가 나지 않겠는가.”

크리스토프는 헬만 주교를 감금하여 실종으로 둔갑시키는 계략을 꾸몄다.

헬만 주교의 실종과 동시에 주교 자리에 공석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낄 테니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는 눈이 많으니 당장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을테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듯, 크리스토프가 바흐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후보라도 주교나 다를 바 없네.”

후보라는 이름으로 주교의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게 크리스토프의 작전이었다.

만약 대주교를 넘어서는 자리에 오르는 게 바흐의 최종 목표라는 걸 크리스토프가 알게 된다면.

이 손을 뿌리치지 않을까 상상하자 바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바흐가 만족해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다 식어버린 차가 바흐의 목젖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갔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다고?”

“응. 방금도 수업 듣고 바로 나왔어.”

칸나의 말에 레이가 어깨를 토닥였다.

레이는 무슨 수업인진 몰라도 진짜 싫다는 듯, 수업을 듣고 온 칸나보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수업이라니. 지겹지 않아?”

“그래도 해야만 해.”

“정말 대단해. 난 학교 가기 싫던데.”

레이가 가방에서 체리를 꺼내 칸나에게 주곤 자신의 입으로 체리를 한입에 털어 넣었다.

레이가 먹여준 체리의 새콤한 과즙이 칸나의 입안에서 퍼져나갔다.

“레이, 너도 학교 다녀?”

“응. 거긴 다 마법 학교야.”

“마법 학교?”

“응.”

칸나의 눈이 반짝였다.

성녀 수업은 들을 대로 들어서인지 칸나는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 나라에 정이 떨어진 것도 한몫하겠지만.

마법 학교는 어떤 걸 배우는지, 거기선 또 어떤 또래 아이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레이가 칸나의 표정을 보곤 활짝 웃었다.

“정말 표정이 살아있다니깐.”

못 말린다는 듯, 레이가 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귀염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칸나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겉모습은 이래도 알멩이는 인생 두 번 산 누나라는 걸 레이는 당연히 모르겠지.

칸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 레이. 넌 여기 언제까지 있어?”

“선생님 따라왔으니까 선생님 일이 다 끝나면 돌아가지 않을까?”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응. 아마도. 선생님은 날 이용해서 마술쇼 할 때 아니면, 종종 자리를 비우거든.”

칸나는 금세 납득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거겠지.

마법 국가 선생님이 신성 제국까지 와서 뭘 하고 다니는진 모르지만.

“근데 또 언제 눈앞에 나타날지 몰라.”

그렇게 말하던 레이가 자리에 누워 탁 트인 하늘을 바라봤다.

그런 레이를 보며 칸나도 같이 누웠다.

“참 이상하지.”

“뭐가?”

“혼자 있을 땐 잘 되는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안 돼.”

칸나는 본능적으로 레이가 하는 말이 마법이란 걸 알았다.

‘혼자 있을 땐 된다?’

레이가 마법을 못 쓴다고 하길래 칸나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도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놀랐구나? 내가 못 쓴다고 했는데, 혼자 있을 땐 된다고 해서?”

“응, 조금.”

“대단한 마법은 아니지만 할 줄은 알아.”

레이가 잠시 생각에 잠겨 뜸들이다 입을 열었다.

“다섯 살 때부터.”

그날은 레이의 다섯 번째 생일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연회장을 쨍하게 비췄다.

고고한 음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몰려왔다.

은빛 머리의 두 남녀가 꼿꼿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엘리아느님. 왕비님의 눈이 꼭 루비 보석 같아요.”

“제 눈은 어떠시죠?”

엘리아느와 나란히 서 있던 왕 헤라스가 호탕하게 웃으며 넉살 좋게 물었다.

그의 두 눈 역시 붉게 빛나고 있었다.

레이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같이 놀 자신의 친구는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명도, 음악도 레이의 맘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생일인데.’

많은 지도층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지만 그건 부모님 친구이지, 레이의 친구는 아니었다.

레이의 친구는 단 한 명도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와! 초코다, 초코!”

레이는 어린아이답게 초콜릿을 좋아했고, 연회장 중앙에 레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분수대가 세워졌다.

같이 환호할 친구가 없어서 쓸쓸했지만, 어린아이는 쉽게 초콜릿 향에 마음을 빼앗겼다.

혼자 놀이방에 남아 놀이를 하며 쓸쓸한 마음을 달랬다.

“이것 봐, 루시. 특급 회오리를 보여주지!”

레이는 없는 가상의 친구 루시를 부르며, 손으로 마법을 부리듯 특급 회오리를 소환하는 흉내를 냈다.

“히야야아압!”

기를 모으자 레이의 엄지만한 회오리가 나타났다.

“이제 항복하라구!”

레이가 자신이 한 게 뭔지도 모르고 웃으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 뒤에서 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레이의 엄마, 엘리아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직 레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레이는 영문을 몰랐다.

왜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잔을 깨뜨리기까지 했는지.

“잘했다, 내 아들.”

등을 쓰다듬는 엄마의 손에 레이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이유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이윽고 엘리아느가 레이를 끌어안은 채, 연회장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레이의 아빠 헤라스는 감격한 엘리아느를 곁에 세웠다.

헤라스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잔을 들라 명할 때, 엘리아느는 앞에 놓인 초를 가리켰다.

“아까처럼 회오리를 불러올 수 있겠니? 저걸 꺼보는 거란다.”

레이는 엘리아느에게 안겨 영문도 모른 채 앞에 있는 초를 끄기 위해 회오리를 소환했다.

“히야아아아압!”

아이다운 기합과 함께 레이의 엄지만한 회오리가 초를 끄는 데 성공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졌다.

“역시 왕자님이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반응이 좋았는지 엘리아느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헤라스 또한 파안대소했다. 들고 있던 잔을 털어 넣으며 기쁨을 과시했다.

연회장을 돌며 부부가 인사하는데, 콧수염 난 마른 사내가 정중히 인사했다.

“전하, 켄트 콜록슨입니다.”

“아니, 켄트 선생!”

“왕자님의 회오리 소환술을 눈앞에서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켄트 선생이 그렇게 봐준다니 어쩔 줄 모르겠군.”

“과찬이십니다. 제 실력은 전하께 비할 바가 못 되지요.”

켄트 선생의 말에 헤라스가 껄껄 웃어넘겼다.

아부하는 말인 줄 알지만 좋아하는 포도주와 함께 들으니 꿀떡꿀떡 잘도 넘어갔다.

“역시 왕가의 피는 죽지 않았군요.”

켄트 선생의 말은 다섯 살짜리 레이에게만 들렸다.

왕가만이 가질 수 있는 레이의 붉은 눈을 보며 켄트 선생이 음흉하게 웃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

레이는 떠오른 기억 중 왕가와 관련된 이야기만 빼고 칸나에게 말했다.

칸나는 레이의 꼬마 시절을 같이 떠올렸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육받게 된 거야?”

“응. 생일 이후에도 엄마 아빠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거든.”

“…….”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이 났어. 보여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선생님을 부르더라고.”

“그랬구나.”

“그 이후론 뭐 이 모양이지. 누구 하나 켄트 선생님을 말리지 않아.”

다 교육의 일환이라 말하는 켄트 선생의 표정을 레이가 똑같이 따라 했다.

“여기서 수염을 당기는 게 포인트야.”

가까이서 봐온 탓에 레이는 켄트의 버릇을 곧잘 흉내 냈다.

‘레이는 분명 말했어.’

도와달라고.

부모님에게도, 켄트 선생에게도.

물론 다섯 살의 나이에 바람을 소환해 초를 껐으니,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

다섯 살 레이에게 바람을 소환하는 건 단지 놀이였다.

극성인 부모가 제 아들이 천재라며 극찬한 탓에 모두에게 잘난 재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전까진.

그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선생을 사들였고, 그게 마술쇼의 현장에 있던 켄트 선생이었다.

‘대체 어린 애한테 무슨 짓을…….’

칸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레이가 여기에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이가 떠나기 전 자신도 반드시 티오스로 망명갈 거라고.

‘그리고 도울 거야.’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들을 향해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왔다.

칸나가 레이의 앞을 막아섰다.

칸나의 등 뒤로 레이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어디서 나타난 애송이지?”

지팡이를 빙글 돌리며 한 발짝씩 켄트 선생이 다가왔다.

“얼마 전에도 본 것 같군.”

수염은 멀리서도 잘 보였지만, 칸나는 그의 눈을 처음으로 자세히 봤다.

그의 새까만 눈이 속을 알 수 없게 했다.

레이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미지였다.

켄트 선생을 가까이 마주하자 위로 치켜 올라간 묘한 눈매가 칸나에게 더욱 야비한 인상을 줬다.

“비키거라.”

켄트 선생이 돌리던 지팡이를 멈추고, 칸나에게 이만 가라는 손짓을 했다.

“비키지 않겠어요.”

“오호라. 뒤에 있는 분이 누구신진 알고 그러는 거겠지?”

‘뒤에 있는 분?’

높임말을 쓰는 켄트 선생을 보며 칸나가 어리둥절했다.

분명 레이와 켄트 선생이 섰던 무대에서는 레이에게 반말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칸나 뒤에 있던 레이가 일어났다.

“그만 하세요, 선생님.”

“아직 이 애송이는 정체를 모르나 보군요.”

“제 발로 갈 테니까 그만요.”

칸나가 레이와 켄트 선생을 번갈아 쳐다봤다.

레이는 곤란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티오스에서 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켄트 선생이 레이에게 조잘대며 물었지만, 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답은 칸나가 혼자 삼켰다.

‘알아.’

티오스의 상징.

은빛 머리의 붉은 눈을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칸나의 속을 들여다볼 리 없는 켄트 선생이 거들먹거렸다.

“특별한 분을 몰라뵙다니. 이곳 수준도 알만하군요.”

“칸나, 이만 가볼게.”

“레, 레이…….”

켄트 선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목길 끝을 향해 천천히 스텝을 밟았다.

교육자의 자질이라고는 그 선생에게서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다 말해줄게.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 말을 끝으로 레이가 켄트 선생을 따라 천천히 멀어졌다.

바흐가 자신의 서재를 벌컥 열고 들어왔다.

하급 사제 아놀프에게 지시했던 출입자 명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깃털 펜에 침을 묻히고 찬찬히 훑어봤다.

그러다 한 곳에 눈이 멈췄다.

바로 가장 최근에 칸나가 작성한 외출지였다.

주어진 자유시간 때마다 칸나의 행선지는 매일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에 뭐가 있단 말인가.

바흐가 미간을 찌푸렸다.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교육생 대부분은 오랜 시간 외출하지 못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애초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외출하는 목적은 그저 산책 정도뿐.

그런데 칸나는 달랐다.

외출 시간이 다른 교육생들에 비해 길었다.

온종일 바깥에 신경을 쓰는 사람처럼.

‘대체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바흐는 이곳에 남겠다고 했던 칸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말 남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다.

아니, 남아야만 한다.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얼굴을 한 건 다름 아닌 칸나였다.

“거기 들어오라.”

“부르셨습니까, 상급 사제님.”

상급 사제란 말에 정색하며 용건을 말했다.

“칸나 이 아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 새로운 호칭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아, 앗! 예, 주교님.”

핀잔을 함께 덧붙이자 하급 사제 아놀프가 당황하며 물러났다.

아직 후보일 뿐인데도 주교라는 호칭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바흐는 보고 있던 출입 장부를 즉시 덮었다.

눈을 감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느새 창밖이 천천히 어둠으로 물들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불 하나 켜지 않고, 등을 돌린 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깥의 어둠과 함께 남자의 머리카락도 서서히 까만 빛으로 물들어갔다.

‘당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직 달빛만이 생각에 잠긴 그를 비추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켄트는 알 수 있었다.

매일 밤 저주에 관한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새운다는 걸.

‘좋은 먹잇감이야.’

그건 얍삽한 켄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

정적이 길어지자 켄트의 시선이 그가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제복으로 향했다.

모순되게도, 차가운 흑발은 티오스의 상징인 백색의 제복과 묘하게 잘 어울렸다.

켄트가 마른침을 삼켰다.

같은 남자가 봐도 잘생겼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끽해야 얼굴론 한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자 어쩐지 약이 올랐다.

‘저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지.’

켄트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마법을 쓰지 못해 혼을 낼 때면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레이에겐 아주 큰 약점이겠지만.

그 약점은 훗날 켄트가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확실한 키가 될지도 몰랐다.

“켄트 선생님?”

“네, 왕자님.”

“이만 나가세요.”

레이는 켄트 선생과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변하는 흑발을 마치 재미있는 쇼라도 보는 듯 시청하는 켄트 선생이라면 더더욱.

물론 켄트 선생을 따라 신성 제국으로 온 건 레이 본인이었다.

둘의 목적은 달랐지만.

“아! 왕자님. 감히 제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그 애송이하고 시시덕거리러 여기 온 게 아니란 걸 깊이 깨우치셔야 합니다.”

“…….”

등 돌린 레이의 침묵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밤에만 볼 수 있는 티오스 왕자의 진귀한 풍경을 켄트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에 자부를 느끼며.

켄트 선생이 콧노래를 부르며 레이의 방을 나갔다.

곧바로 레이와 비슷한 체격에 금발을 가진 집사 아서가 들어왔다.

아서는 들어오자마자 레이의 표정을 살폈다.

밤마다 변하는 흑발 때문에 레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밤마다 차갑게 구는 것도.

“켄트 선생과 또 한바탕했군요.”

“…….”

“아까 켄트 선생이 한 그 애송이란 말은 뭡니까? 또 저 없을 때 사고 치신 거 아니죠?”

“…….”

레이가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도 모른 채, 아서는 깜깜한 방에서 레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다 문득 레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역시 쓸모없는 건가?”

레이가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만지다, 이내 머리카락을 흩트렸다.

오래 생각하고 꺼낸 레이의 말에 아서가 곰곰이 생각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티오스의 왕가라면요.”

거침없는 직언이었다.

레이는 아서의 말이 고마웠다. 이런저런 되지도 않는 위로보다는 차라리 이편이 나았다.

적어도 아서에게선 밤마다 변하는 레이의 흑발을 이용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자를 찾아야 해.”

자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티오스의 상징.

특별한 분.

간과하고 있던 것이 툭, 하고 떠오를 때가 있다.

자신의 방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칸나에겐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다.

‘왜 몰랐지?’

은빛 머리, 붉은 눈.

단순히 티오스 국민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그자는 어째서…….’

칸나는 얼른 머릿속으로 켄트 선생을 그렸다.

칙칙한 곱슬머리와 새까만 눈.

거기에 특별한 분이라는 켄트 선생의 말을 떠올리자, 빠르게 퍼즐이 맞춰졌다.

‘왕가.’

레이가 티오스의 왕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칸나가 사과를 훔칠 때, 제 돈으로 사과를 사 온 녀석이었다.

레이의 차림새가 눈에 띄지 않았던 걸 보면 평범하게 입었을 텐데.

그 꼬마 아이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사과를 사 왔는지 과거의 칸나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어쩌면 외면한 건지도 몰랐다.

‘말이 통하는 친구가 타국의 왕자라니.’

그런데 레이가 왜 그걸 속였는지 생각하자 칸나는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굳이 있다면 자신과 같은 생각인지도 몰랐다.

신분 차이는 꽤 많은 걸 흔들리게 하니까.

칸나는 레이를 이해해보려 했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일 물어볼 요량이었다.

‘왕자라는 걸 레이가 밝히고 싶지 않았다면 오늘 일이 곤욕스럽겠지.’

켄트 선생이 마법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레이를 또 괴롭히진 않을지 걱정이 한 가지 더 추가됐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칸나가 주시해야 했다.

‘헬만 주교가 사라졌어.’

과거엔 스쳐 지나간 사건이지만, 이번엔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바흐가 바로 주교 후보로 올라간 것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검은 형상을 드러낸 자는 다름 아닌, 칸나가 조금 전에 떠올린 바흐였다.

“들어가도 되겠지.”

“네.”

“짧게 말하마.”

바흐가 작은 초만 켜져 있어 침침한 칸나의 방을 둘러보며 입을 뗐다.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나.”

바흐의 말에 칸나는 마치 이때까지 감시당한 것처럼 등골이 서늘했다.

“혹시 제게 사람을 붙이셨나요?”

알아들을 법도 한데, 너무 잘 알아들은 탓인지 바흐는 오히려 제게 질문하는 칸나가 까다롭게 여겨졌다.

“요 며칠 네 행방이 묘연하더구나.”

“정말 감시까지 하시는군요.”

“이곳에 들어온 이상, 네 몸은 자유가 아니다.”

“전 아직 교육생일 뿐입니다.”

“지금은 교육생이지만 언젠가는 이 제국을 일으킬 성녀가 될 터. 벌써 분란 일으키지 말거라.”

“…….”

“바깥에 쏟을 힘을 이곳에 쓰란 말이다.”

칸나는 바흐의 말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파헤쳐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다.

오로지 교환학생이 되어 망명가는 것만이 칸나의 목표여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칸나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헬만 주교님이 사라졌죠.”

“……그렇다.”

“여전히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바깥에 쏟을 힘을 이곳에 쓰라고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앞으로 긴장 좀 하셔야 할 테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칸나 자신이 대체 불가한 사람이란 걸 아주 잘 알아서였다.

신성력과 마법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칸나는 성녀 교육을 수료하는 중 신성력을 체득했고, 죽기 전 마지막 의식을 통해 마법을 얻었다.

회귀 후에는 두 가지를 이미 다 가진 상태였다.

“나는 성녀가 될 재목만을 생각한다.”

바흐는 진심이었다.

머릿속으로 오만가지 셈을 하던 바흐가 입맛을 다셨다.

오직 성녀로 채택되는 사람만이 바흐를 대주교보다 더 윗자리에 올릴 수 있으니까.

칸나는 이제야 그 속이 보였다.

단지 신앙심으로 가득해 이 신성 제국을 살리겠다는 건 바흐의 마음이 아니었다.

당시 때 묻지 않았던 칸나의 마음이었으리라.

이 자는 오로지 자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성녀가 될 재목이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왜지?”

“제가 말을 어렵게 했네요. 당신이 누굴 성녀로 앞세워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제겐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

“이 꼬맹이가 알게 됐다고 주교님이 곤란하신 일은 없을 거예요.”

바흐가 시선을 이리저리 굴렸다.

“보시다시피 전 아직 꼬맹이일 뿐이니까요.”

칸나의 말에 어쩐지 힘이 느껴졌다.

바흐는 절로 고개가 숙어졌다. 이 열네 살 아이에게서 나오는 힘은 무어란 말인가.

마치 자신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말하지 않는가.

“다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당신은 주교가 될 재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지!”

“우수한 성녀를 길러낸 자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자릴 주는 건 한 사람의 욕심이라 할 수도 있죠.”

“…….”

“그렇지만 헬만 주교님의 실종을 덮어버리고 그 자리를 꿰차는 건, 제 눈엔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네요.”

“!”

바흐가 입술을 깨물었다.

짐짓 티 내지 않으려 꽉 깨문 나머지 입술이 부르텄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바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잡생각이 많아 보이는구나.”

바흐가 칸나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성녀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한다.”

칸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곤, 바흐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칸나가 다리에 금방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칸나는 바흐가 사라진 문을 응시했다.

누구 생각인진 몰라도 헬만 주교를 실종시켜 지위를 올리려 한 건, 저급한 계획이었다.

바흐는 서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그렇게 꿰뚫어 보는 건, 열네 살 주제에 보통내기가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 어린아이의 옳은 소리에 몸이 쭈뼛 섰다.

바흐는 칸나를 처음 데려왔던 때를 떠올렸다.

길 한복판에서 기둥에 몸을 기대 쪼그려 앉아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영리한 아이가 그곳에 버려져 있었다.

‘누가 그 아이를 버렸지?’

이런 아이라면.

바흐가 입맛을 다셨다.

잘만 조종하면 제 값어치는 할 아이였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이유를 바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유 없는 적개심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르엔입니다.”

바흐의 미간이 구겨졌다.

하르엔이 노크를 하긴 했지만, 바흐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자연스레 칸나와 비교했다.

“무슨 짓이냐.”

“네?”

하르엔은 정말 모른다는 듯, 얼빠진 표정을 했다.

바흐가 대주교에게 입이 마르도록 하르엔을 칭찬했을 때, 바흐는 대주교의 표정을 잊지 못했다.

‘고작.’

고작이라고 했다. 한심하다는 표정과 겨우 그 정도 되는 애를 성녀로 앉힐 거냐고 타박한 대주교를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바흐의 한숨이 깊어졌다.

“아직 몸에 예의란 게 하나도 없구나.”

또 혼이 났다는 생각에 하르엔이 자꾸만 삐져나오는 입술을 어쩌지 못했다.

“혼 좀 났다고 그렇게 티 내는 것 하며.”

하르엔은 혼이 나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바흐의 행동 변화는 칸나가 오기 전과 온 후로 명백히 나눌 수 있었다.

지금 혼을 내는 게 바흐가 아닌 대주교였다면 하르엔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나이에 비해 영특하다는 건 안다.”

“…….”

“헌데 성녀 자리는 나이별로 한 사람씩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바흐는 저도 모르게 진심이 툭 튀어나왔다.

하르엔이 생각하기에도 맞는 말이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영특하다는 소릴 듣는 건 이곳에서 하르엔 혼자였다.

그래서 어떤 자극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바흐의 눈에 들 수 있었다.

물론 대주교의 눈은 훨씬 높아서 하르엔이 성에 차지도 않았지만.

그건 차차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너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이 이런 건 큰 장애물이 아니니, 간절함을 가지거라.”

바흐가 하르엔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다.

바흐의 마음은 이미 칸나에게 반쯤 돌아섰지만, 그렇다고 하르엔에게서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르엔은 어느 순간 자신이 칸나와 비교당하는 걸 느꼈다.

이전에는 양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주교의 자리를 등에 업은 바흐의 말이 여론인 만큼, 다수의 의견을 얻기 위해 바흐의 마음에 들어야 했다.

삐죽거렸던 하르엔의 입이 차츰 들어갔다.

‘알아 들었나 보군.’

바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혼은 이쯤 내도록 하고. 오늘 들른 이유가 무엇이냐.”

“저 실은……, 주교님께 개인 교습을 받고 싶습니다.”

하르엔의 말에 바흐의 표정이 아주 잠깐 풀렸다.

주교라는 직위 때문인지, 개인 교습을 받겠다는 하르엔의 열정 때문인지 바흐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바흐는 티를 내지 않으려 다시 표정을 굳혔다.

하르엔이 알아채면, 방심할 수도 있으므로 바흐는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개인 교습이라.”

“네.”

“열정은 높이 칭찬하마.”

“감사합니다. 그럼……?”

하르엔의 눈이 잠시나마 반짝였다.

바흐의 다음 말은 하르엔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 기회를 너한테만 줄 수는 없다.”

“!”

하르엔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흐는 공정한 경쟁을 원했다.

하르엔이 자신의 양딸이긴 하지만 그 양딸이라는 건, 언제든 다른 적임자로 갈아치워도 상관없었다.

애초에 하르엔을 양딸로 들인 것도 정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중 훗날 성녀가 될 가장 유력한 아이였기 때문에 들인 거였다.

바흐는 하르엔을 시험하고 싶었다.

하르엔이 진짜 성녀가 될 재목인지 칸나를 통해 확인하는 걸로.

“그 아이랑 같이 듣는다면 내 특별히 교습을 허락하마.”

누구의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하르엔은 알 수 있었다.

‘칸나.’

하르엔의 자그마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또 칸나야.’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바흐의 말은 하르엔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칸나를 그냥 이길 재간이 없으니 특별히 바흐의 교습을 받아 이기려던 요량이었는데.

그 속셈을 다 알고 있는 양 바흐는 칸나와 하르엔, 둘이 같이 듣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자존심 상해.’

단 몇 달 만에 형국이 뒤바뀌자 앞으로 1년 뒤, 2년 뒤를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르엔은 앞길이 어둡게만 느껴졌다.

경쟁은 좋은 스승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되새긴 바흐가 고개 숙인 하르엔을 묵묵히 쳐다봤다.

이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

날이 밝자 하르엔이 칸나의 방으로 찾아왔다.

칸나는 하르엔이 찾아올 줄 몰랐던 탓에 그녀의 방문이 갑작스러웠다.

“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칸나는 놀란 기색을 금방 감추고 무신경하게 굴었다.

사실 시간이 좀 아까웠다.

하르엔이랑 이야기하는 건, 건설적인 구석이 없었다.

“주교님께 개인 교습받기로 했어.”

우물쭈물하던 하르엔이 개인 교습 이야기를 꺼내자 칸나가 관심을 보였다.

“개인 교습?”

“응. 언니도 같이해.”

“내가 왜?”

퉁명스러운 칸나의 말에 하르엔이 물었다.

“성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칸나는 성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을 목 안으로 깊이 삼키곤 하르엔에게 말했다.

“너도 성녀가 되고 싶은 거 아냐?”

속뜻은,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지금 제게 하냐는 것이었다.

경쟁상대라면 경쟁상대인데, 굳이 칸나에게 개인 교습을 같이 받자고 하는 게 수상했다.

더군다나 자존심이 세서 부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아이였다.

“주교님이 너랑 같이 들어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

말의 뉘앙스를 보니 바흐에게 개인 교습을 먼저 제안한 건 하르엔인 것 같았다.

바흐가 그냥 거절하기 미안하니, 하르엔에게 칸나를 조건으로 역제안을 한 건 아닐까.

칸나는 바흐의 속셈이 무엇일지 머리를 굴리며 하르엔을 응시했다.

쭈뼛쭈뼛한 하르엔을 보자 칸나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

‘감춘다고 감춘 거겠지만.’

칸나에게 빼앗긴 바흐의 관심을 다시 얻기 위해 하르엔은 이 개인 교습을 꼭 받으려고 할 거고.

칸나는 하르엔의 의중을 알았다. 다만, 바흐의 의중은 바로 알 수 없었다.

‘무슨 생각으로 하르엔을 나한테 보낸 거지?’

칸나는 바흐를 더 가까이서 살필 필요가 있었다.

과거 자신이 생각했던 바흐라는 한 개인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잘못 본 건지도 모르는 까만 블랙홀이 잠시 떠올랐다.

사라진 헬만 주교와 어디선가 데려오는 아이들, 대주교와의 상납 관계 등.

자신이 과거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싶었다.

그 중심엔 바흐가 있었다.

“같이 해, 그럼.”

“정말?”

“그래.”

“정말? 진짜지?”

“응.”

“나 지금 바로 주교님께 가서 말씀드린다?”

칸나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하르엔이 몇 번이고 물었다.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역시 하르엔은 몇 번이나 되물으면서 사람을 귀찮게 했다.

“그렇대도.”

칸나가 이마를 짚자, 그제야 물음을 멈췄다.

“번복은 할 수 없어.”

“알아.”

“그래서 말인데……앞으론 봐주지 않을 거야.”

속으로 내내 칼을 갈던 하르엔이 칸나를 도발했다.

개인 교습을 받겠다는 말도 이제 번복할 수 없고, 자신이 다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멋진 첫걸음이었다고 하르엔이 뿌듯해했다.

그 도발은 칸나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하르엔이 의기양양하게 칸나의 방을 나갔다.

자신이 한 말이 멋있었다며 자아도취 한 나머지 칸나의 방문을 미처 다 닫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봐준 건 나야.’

칸나는 어이없는 실소만 나올 뿐이었다.

칸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 훑었다, 사라졌다.

칸나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고 복도로 나가 좌우를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 한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와 책상 서랍에 자물쇠를 꽉 채웠다.

이틀 뒤, 바흐의 개인 교습이 시작되었다.

칸나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하르엔과의 경쟁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아서였다.

성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지만, 교환학생으로 발탁되기 위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었다.

‘나중에 미끄러지더라도.’

칸나는 성녀가 되는 맨 마지막 관문에서 하르엔을 밀어줄 생각이었다.

이 제국을 덮쳤던 그 재앙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칸나가 회귀한 후 과거의 역사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제국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 역시 다시 제국을 덮칠 큰 재앙이었다.

‘하르엔이 막을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다면, 칸나는 그러고 싶었다.

풍요의 제르메스 여신상이 예배당 한가운데에서 칸나와 하르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칸나는 오늘 외출을 감행하려 했으나, 어제 바흐가 뒤를 감시하는 듯한 언질을 줬기 때문에 섣불리 외출할 수 없었다.

‘레이.’

레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자신이 그 아일 만난다는 걸 알면 바흐가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제들이 찾지 않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오늘 수업 장소였다.

칸나와 하르엔이 여신상으로 다가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뒤이어 바흐가 들어왔다.

조용히 들어왔지만, 칸나는 바흐의 인기척을 느꼈다.

바흐가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 둘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칸나는 알았다.

‘칸나.’

바흐가 속으로 감탄하는 것까지.

칸나의 신성력이 발현되기 전, 그러니까 이곳 수업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능력이란 게 없었을 무렵에도 칸나를 높이 샀던 이유가 바로 칸나의 생김새였다.

칸나는 생긴 것부터 풍요의 여신과 제일 가까웠다.

풍요의 여신 제르메스를 빼닮은 예비 성녀.

이 얼마나 좋은 타이틀인가.

바흐는 그 타이틀이 대중들에게 먹힌다는 걸 알았고, 그 점을 주목했다.

아니나 다를까, 바흐의 시선이 칸나를 훑는 게 느껴졌다.

지금은 앳된 얼굴이지만, 분명 성년이 됐을 때 기품이 넘치는 성녀가 되리라.

기도하는 자태도 예사롭지 않았다.

성녀 수업을 들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표현력이 대단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준다면, 그녀는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바흐의 시선이 자신을 떠나자 칸나가 한숨 돌렸다.

‘하르엔.’

바흐는 하르엔을 예뻐라 하면서도 점점 난폭하게 굴더니, 결국엔 칸나의 편에 섰던 자였다.

그의 마음을 하르엔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마침내 바흐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칸나와 하르엔이 기도를 멈췄다.

두 사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신성력부터 테스트해 보마.”

바흐의 말에 하르엔이 침을 꿀꺽 삼켰다.

칸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칸나의 신성력이 발휘되는 건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제국 140년이다.

그러니까 칸나가 열여섯 살이 되는 해에 역병을 막으면서 신성력이 생겼다.

회귀하자마자 마법은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신성력은 확인할 일이 없었다.

‘할 수 있을까?’

지금 신성력이 발현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도, 긴장됐다.

바흐가 손짓하자 예배당 안으로 하급 사제 두 명의 손에 한 노숙자가 끌려왔다.

노숙자는 눈을 희번덕희번덕 뜨고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신성력을 이용하여 이 자의 상처를 치유하라.”

“!”

“신성력을 이용하여 이 자의 상처를 치유하라.”

“!”

바흐의 말에 칸나와 하르엔의 동공이 커졌다.

신성력을 구현해내기도 어려운 과제인데, 그걸로 노숙자를 치유하라니.

칸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 자는 분명 다쳤다. 피가 곪아 터진 걸 보니, 실험용으로 분장시킨 게 아니라 진짜 다친 사람이었다.

칸나는 신성력을 너무 잘 구현해내도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란 걸 알았다.

과거와 달리 성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치유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그런데 눈앞에서 노숙자가 쓰러졌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한낱 적개심으로 사람을 모른 체할 수 없었다.

‘제발 신성력을 구현해야 할 텐데.’

과거보다 더 빠른 죽음은 원치 않았다.

“누구부터 해보겠느냐.”

“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의외였다.

칸나가 잠시 생각하는 사이 하르엔이 먼저 결의를 밝혔다.

“해보거라.”

끌려온 노숙자는 온갖 상처투성이였다.

특히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 가슴 부근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칸나는 과거에도 많이 봐왔던 모습이라 익숙했다.

노숙자의 이마 부근이 찢겨나가 있었고, 팔 곳곳에 뾰족한 것에 긁힌 듯 생채기도 있었다.

차라리 의료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하르엔은 이런 실습이 처음이었고, 손을 발발 떨었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하르엔을 칸나와 바흐가 숨죽여 지켜봤다.

하르엔의 금발이 잠깐 바람에 흩날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더욱 분출하자 하르엔이 눈물을 글썽였다.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으며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신성력을 모았다.

아직 열두 살인 하르엔은 신성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게 당연했다.

칸나 역시 실패한다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였다.

칸나 차례가 되자, 바흐가 자신의 두 손을 마주 잡고 뚫어져라 쳐다봤다.

칸나가 노숙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피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칸나 역시 하르엔과 마찬가지로 번뜩이는 방도가 없었다.

단지 칸나 자신이 신성력을 구현했던 2년 후를 떠올렸다.

역병이 찾아온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살려달라 외치는 제국민들.

이들의 몸 곳곳에 번져가는 버짐을.

피를 토하는 자와,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자.

전쟁통이 따로 없는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자, 칸나가 눈을 번쩍 떴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칸나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바흐가 칸나의 몸짓에 집중했다.

하르엔은 여전히 벌벌 떨며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이 자를 살리고 싶어.’

칸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듯 쓰러진 노숙자가 신음했다.

그의 상처에 손을 가까이하자 노숙자의 눈썹이 꿈틀댔다.

칸나가 손을 대는 곳마다 신성한 빛이 노숙자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

벌떡 일어선 바흐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몇 번이나 비볐다.

노숙자의 찢겨나간 이마와 팔 곳곳에 생채기같이 가벼운 상처들은 새살이 돋아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칼에 찔린 듯한 가슴은 워낙 깊은 상처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

바흐는 알았다.

계속 흐르던 피를 멈추게 한 것만으로도 꽤 많은 신성력이 발현되었단 것을.

바흐가 흡족한 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남은 치료는 내가 하지.”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칸나가 뒤로 물러났다.

칸나 자신도 갑자기 생긴 어마어마한 신성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내가 해냈어.’

하마터면 아까 노숙자의 상처를 전부 치료할 뻔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신성력을 구현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귀찮아질지 상상하기 싫었다.

칸나가 마지막에 제동을 걸었단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르엔이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왔다.

‘고작 두 살 차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르엔 자신도 열네 살이 되면 그런 신성력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 해도 그때 되면 칸나는 열여섯 살이 아니던가.

어떻게 해도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하르엔은 알 수 없는 열등감에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다.

‘나이 때문이 아니야.’

그래야만 했다.

나이로 신성력을 구현할 수 있는 거라면 하르엔은 매번 지는 게임을 하는 거니까.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하르엔도 신성력을 구현할 방법이 있을 테니, 지금 당장은 져서 분해도 훗날은 자신이 이긴다는 희망이 있었다.

아까 바흐의 표정을 떠올렸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가.

‘분명 구현할 수 없는 거였어.’

하르엔이 옷매무새를 만졌다.

지난번 칸나가 도서관으로 향하는 걸 본 적 있었다.

그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쩌면 도서관에 뭔가가 있는지도 몰랐다.

“뭐라?”

크리스토프 대주교가 놀라 마시던 차를 다 들이켜지 못하고 되물었다.

바흐는 그의 이런 반응을 짐짓 예상하였다.

“말씀드린 그대롭니다.”

성직자답게 내색하진 않지만, 바흐가 그랬듯, 크리스토프 역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 계산기가 정확하다면 칸나는 돈이 되는 아이였다.

“아직 열네 살이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보통 신성력은 열네 살 이후 그러니까 열다섯 살, 열여섯 살부터 조금씩 드러나긴 합니다만. 칸나가 발휘한 강력한 신성력은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깊은 상처를 제외하곤 모두 새 살이 돋았다지?”

“예. 그 나이에 구현할 수 없는 신성력이었습니다.”

바흐의 말에 크리스토프가 자신의 수염을 쓸어내렸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칸나라……. 자네가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네.”

웬만큼 눈에 띄는 자가 아니면 누구의 이름도 담아두지 않는 크리스토프가 칸나를 되뇌었다.

“예. 계속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됐지?”

하르엔의 이름은 역시 알지 못했다.

“하르엔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가 하르엔인가. 자네의 양녀인 것 치고는 영 눈에 띄지 않아서 말일세.”

크리스토프가 천천히 차를 들이마셨다. 바흐도 따라 마셨다.

“아직 열두 살이라 신성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칸나 그 아이가 특별한 겁니다.”

제 딸을 조금이나마 감싸려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다.

“허튼짓했어. 칸나를 양녀로 삼지 않고.”

바흐가 입술을 아득 깨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칸나를 더 빨리 찾았다면 하르엔을 양녀로 맞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뛰어난 신성력을 가진 아이가 있는 줄 알았다면, 바흐는 기다렸을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어쩌나.

양녀는 단 한 명만 들일 수 있는걸.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크리스토프가 입맛을 다셨다.

“내가 양녀로 삼아도 될는지.”

“!”

“왜 놀라는가?”

“그, 그게……. 대주교님께선 여태껏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야 이런 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기다린 걸세.”

바흐가 눈을 가늘게 떴다. 기다렸다는 크리스토프 대주교의 말이 거슬렸다.

마치 바흐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서.

바흐는 자신의 양녀로 칸나를 들일 수 없을지라도 자신이 데려온 아이이기 때문에 앞날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크리스토프가 칸나를 양녀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흐가 대주교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듯, 대주교 역시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 터.

그러면서도 바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칸나를 떠올렸다.

이유 모를 적개심을 가진 칸나는 바흐에게 날을 세우듯 대주교의 제안을 거절할지도 모른다.

“대주교님께서 직접 제안하시면 기뻐할 겁니다.”

칸나가 거절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바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크리스토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칫 탐욕스러운 인물로 비칠까 두렵네.”

크리스토프를 오래 봐왔던 바흐가 안도의 미소를 흘렸다.

의중을 숨기는 게 크리스토프의 특기였다.

손에 더러운 것 하나 묻히기 싫어하는 크리스토프였기에, 신사답지 못한 행동은 모두 바흐에게 떠넘기기 일쑤였다.

바흐는 양손을 털털 털며 일어났다.

“제게 맡기시려는 거군요.”

“자네만큼 믿는 사람이 없네.”

“좋습니다.”

때로는 본심을 드러내야 협상할 수 있는 법.

바흐는 다른 속내를 숨기며 자리를 떴다.

다 비워진 찻잔을 보곤 크리스토프가 껄껄 웃어 재꼈다.

칸나가 방을 나섰을 때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칸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하급 사제 아놀프의 안내를 받으며 바흐의 서재로 향했다.

길을 아는데도 하급 사제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니까 이상했다.

복도에서 하르엔과 마주쳤다.

차마 칸나에게 말 걸긴 자존심이 상했는지, 하르엔이 애꿎은 아놀프에게 말을 꺼냈다.

“어디 가는 거죠?”

“바흐 주교님께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받으면서요?”

하르엔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자 귀찮아진 칸나가 입을 열었다.

“저, 아놀프 사제님. 길 아니까 저 혼자 갈게요.”

“칸나 양.”

“저보다는 다른 분께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놀프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칸나는 아놀프에게 눈짓으로 하르엔을 가리킨 뒤 멀어졌다.

“어서 오너라.”

바흐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아직 마법 제국 티오스와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녀 교육생 승급시험도 내년에나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칸나가 자리에 앉았다.

뒤이은 바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양녀를 제안하셨다.”

‘누가?’

칸나는 속으로 몇 번을 물었다.

과거 자신의 신성력을 높이 사는 이들은 있었지만, 과거보다 너무 빨리 발휘해서였을까.

양녀는 열네 살 칸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대주교님께서 네 재능을 원하시는구나.”

칸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조금 당황스러웠다.

칸나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바흐가 말을 덧붙였다.

“양녀라는 게 그리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니.

어쨌든 한 라인을 타게 되는 거고, 그 라인의 얼굴이 될 테니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할 터.

무엇보다도 칸나는 대주교 크리스토프가 싫었다.

그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목소리의 주인공이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제 입지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될진 나도 모르겠군.”

바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칸나는 그의 작은 행동을 캐치했다.

바흐는 칸나가 곤란해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진 몰라도 흔쾌히 수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던 모양이다.

“저는 좋아요.”

“뭐, 뭐?”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잠깐. 무슨 생각으로 수락하는 거지?”

“제가 무슨 생각이 있겠나요. 그저 제게 아버지가 생긴다면 좋은 일이죠.”

칸나가 어린아이 같은 답변을 하자 바흐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칸나에겐 그 속이 훤히 보였다.

“정말 그뿐이냐?”

“네. 제가 감히 어떻게 딴생각을 하겠어요. 다만, 제 부탁은 양아버지가 되실 분께 따로 말씀드리겠어요.”

바흐가 눈을 가늘게 뜨곤 칸나를 살폈다.

순진무구한 눈을 하고 있지만, 칸나의 부탁이 그저 아기자기한 방을 꾸며달라는 소박한 부탁은 아니라는 걸 바흐가 직감했다.

“대주교님께선 그 부탁을 거절하실 게다.”

“아직 말씀도 안 드렸는데, 거절하실 거란 걸 어떻게 아세요?”

칸나의 물음에 바흐의 말문이 막혔다. 뭐라 둘러댈 말이 필요했다.

“…대주교님은 조, 좀팽이시다.”

“…대주교님은 조, 좀팽이시다.”

바흐의 말은 그의 서재를 얼어붙게 했다.

대주교의 양녀가 되는 걸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막아보려는 바흐의 행동이 우스웠다.

웃음을 겨우 참고 칸나가 물었다.

“그럼 주교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난 들어줄 수 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의 양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주교님의 양녀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바흐의 얼굴이 금세 난처해졌다.

칸나는 바흐에게 양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정말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

바흐는 칸나에게서 아무런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

칸나는 대주교의 양녀가 되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의 도움을 받기 싫을 뿐이었다.

“불가하다.”

“어째서죠?”

“…….”

“제가 대주교님의 양녀가 되는 걸 주교님께서 이렇게 반대하고 계시는걸요.”

“그건…….”

바흐가 머릿속에 하르엔을 떠올렸다.

칸나는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성녀의 기본기를 다 갖춘 아이였고, 하르엔은 바흐가 성녀로 만들기 위해 업어 키운 아이였다.

“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만 나가보려는데, 바흐의 말이 칸나의 발목을 잡았다.

“내게 시간을 다오.”

“시간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바흐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번만큼은 진심이 느껴졌다.

칸나는 바흐가 무엇을 저울질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바흐에게 이미 양녀가 있다는 걸 정리라는 말을 통해 짐작 정도만 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빨리 정리하겠다.”

“물러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대주교님의 양녀가 되는 걸 주교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건…….”

“이미 양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슬쩍 떠본 말인데 바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칸나는 대답을 듣기라도 한 듯 눈웃음을 짓곤 자리를 떠났다.

바흐는 칸나의 기세에 눌려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역사가 깊은 나무 위에 앉아 튼실한 사과 하나를 손으로 던지며 레이가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잘 풀리지 않는 듯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향긋한 단맛이 입안에서 퍼지자 레이는 왠지 웃음이 났다.

“정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그의 웃음기는 금방 사라졌다.

며칠째 소식이 없는 칸나 때문이었다.

자신을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영 소식이 없으니 찝찝했다.

마침 켄트 선생이 저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왔다.

나무 밑에서 주변을 이쪽저쪽 살폈는데도 레이가 없자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켄트 선생의 머리 위로 나뭇잎들이 수북이 쌓였다.

그제야 레이를 발견한 켄트 선생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켄트 선생이 점프 한 번에 나무 위로 폴짝 올라왔다.

“왕자님.”

“…뭡니까?”

레이의 까칠한 대답에 켄트 선생이 콧수염 한쪽을 길게 잡아당겼다.

“역시나 헬만 주교와 서신이 닿지 않습니다. 신전에 잠입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밤이 어떠신지요?”

“본래 선생님 마음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음대로 하시죠.”

“그게… 왕자님께서 티오스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켄트 선생이 멋쩍게 웃으며 도움이라 했다.

어릴 적 강압적으로 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켄트 선생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다.

그건 레이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을 가진 유일한 핏줄이기 때문에.

왕족의 유일한 핏줄인 레이가 밤마다 흑발로 변한다는 걸 알면, 제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숨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숨기셔야 합니다.’

제 약점을 알게 된 켄트 선생이 처음 한 말이었다.

레이는 켄트 선생이 제 약점을 알고도 밝히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게 레이에게 이렇듯 족쇄가 된다는 것도.

학대받았던 정황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도.

“도움이라. 그렇게 하죠.”

“요새 아서 집사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딜 자꾸 돌아다니는지.”

“제 사람입니다.”

뒤에 말이 더 따라붙진 않았지만 켄트 선생은 똑똑한 사람이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더는 제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레이의 단호한 행동이 켄트 선생에겐 낯설었다.

다 그 애송이를 만나고 온 이후부터였다.

그 마술쇼에서 갑자기 나비를 불러낸 마법을 구현해낸 이후로.

아삭아삭 사과 씹는 소리가 켄트 선생은 어쩐지 거슬렸다.

나뭇가지에 걸터앉아서였는지, 계속 앉아 있기 불편했다.

켄트 선생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가슴팍에 갖다 대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 중얼거렸다.

사과를 다 먹고 입을 닦는 레이를 켄트 선생이 슬쩍 쳐다봤다.

이렇게 어린 소년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을 날을 떠올리자 켄트 선생의 입이 히죽 올라갔다.

성녀 수업을 받기 위해 모두 예배당으로 모였다.

칸나는 바흐가 갑작스럽게 한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바흐가 아닌 크리스토프 대주교의 제안이겠지만.

그런데 바흐에게 양녀라니.

‘과거에도 양녀가 있었나?’

그러다 아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자신이 이곳에 처음 왔을 당시를 떠올렸다.

회귀하자마자 눈에 보였던 건 지금과 달리 사이좋은 바흐와 하르엔의 모습이었다.

‘하르엔이야.’

하르엔이 유독 자신에게 날을 세웠던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갔다.

바흐는 지금 하르엔을 정리하면서까지 자신을 양녀로 삼고 싶어 했다.

칸나는 회귀한 뒤 대주교를 마주친 적 없었다.

그는 격이 떨어지는 걸 싫어했다.

따라서 과거에도 대주교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우수했던 성적.

그것뿐이었다.

다시 말해, 아직 이곳에 정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칸나가 양녀 제안을 받은 건 지금 칸나의 실력이 과거를 훨씬 뛰어넘었단 것이다.

솔리번 선생님이 환한 얼굴을 하고 교실로 들어섰다.

칸나도 따라 미소 지었다.

불과 몇 달 전과 달리 칸나는 이 교실에서 경계심을 많이 풀었다.

자신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흐 주교나 크리스토프 대주교지, 같이 수업 듣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이런 아이들이 자신에게 해코지한다고 해도 가볍게 해치울 수 있었다.

수업 때 참관하는 사제들이 몇 있으나, 매일 참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칸나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하르엔.”

솔리번 선생님이 하르엔을 호명했다.

솔리번 선생님은 이곳에 있는 선생님 중 유일한 여자 선생님이었다.

과거 졸업 후, 확실한 성녀 후보가 되면서부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성녀 수업은 안 들어도 되지만, 솔리번 선생님의 얼굴은 담아두고 싶었다.

할머니 이후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르엔?”

솔리번이 하르엔을 여러 번 호명했는데도 하르엔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늘 하르엔 본 사람 있니?”

모두 고개를 저었다.

칸나는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바흐를 만나러 하급 사제 아놀프와 동행하는 길에 하르엔을 마주쳤다.

칸나가 손을 들었다.

솔리번이 칸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귀찮아도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까 낮에 아놀프 사제님과 바흐 주교님 서재로 가는 길에 하르엔과 마주쳤어요.”

“어디 간다던가 별다른 말은 없었니?”

“네. 제가 먼저 자릴 뜨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어요.”

솔리번이 쓰고 있던 안경을 치켜올렸다.

곧바로 다른 곳에 메모한 뒤,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듯 박수를 두 번 쳤다.

‘대체 어디 간 거야.’

칸나는 하필 오늘 양녀 제안을 받은 것과 하르엔이 수업에 빠진 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묘하게 찜찜했다.

먼지 쌓인 도서관에 하르엔이 쪼그려 앉아 소리 내 울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내게 시간을 다오.’

분명 바흐가 그렇게 말했다.

소리밖에 듣지 못했지만, 저자세로 나온 건 칸나가 아닌 바흐였다.

바흐의 음성이 머리 곳곳에 울렸다.

시간이라니.

‘시간을 주면? 정말 칸나를 양녀로 삼겠다는 건가?’

바흐의 서재 문 앞에서 놓치는 소리 하나 없이 다 들으려고 얼마나 귀를 쫑긋 세웠는가.

그런데 칸나한테 어쩔 줄 몰라 하는 바흐의 음성을 들으니 하르엔은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칸나 앞에서 바로 파양 당할 것 같았으니까.

하르엔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어떻게 바흐의 양녀가 되었는데.

고작 도망이나 친 주제에 칸나가 그 자리를 꿰차게 생기자 하르엔은 조바심이 났다.

‘대주교님이 더 높은 사람인데 왜 주교님한테 붙으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칸나가 아무리 하르엔이 양딸이라는 걸 모른다고 해도, 대주교의 제안을 제쳐두고 주교인 바흐에게 역제안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하르엔은 바흐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

마주치는 순간 서재로 불려가 파양 당할지도 모르니.

하르엔은 아무도 없는 도서관 한구석에서 벌벌 떨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길 바라지만,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건 싫을 것 같았다.

괜히 우는 소릴 더 크게 내보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도서관 바깥까지 나와 한참을 서성거렸다.

칸나는 매일 밤 드리는 심야 기도를 오늘만큼은 불참하고 싶었다.

칸나가 믿는 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신의 잘못이 아니라 신을 믿었던 몇몇 자들의 잘못인데도, 칸나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까지 미워졌다.

그래도 심야 기도를 빠질 순 없었다.

이곳에 남기로 한 이상 규칙은 규칙이었다.

심야 기도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던 도중, 칸나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고 깜짝 놀랐다.

‘켄트 선생?’

레이가 무서워하면서도 칸나의 앞에선 우스꽝스럽게 흉내 냈던 켄트 선생이었다.

그의 상징이었던 수염이 사라지고 없었지만 분명 켄트 선생이었다.

칸나의 동공이 커졌다.

살금살금 걸어가는 켄트 선생의 걸음걸이에 칸나도 조심히 뒤를 밟았다.

레이를 요 며칠 못 봐서 레이의 근황이 궁금했다.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켄트 선생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

켄트 선생이 칸나를 반겨줄지는 미지수였다.

몰래 탐색하는 켄트 선생을 보니 자신이 도움을 준다면,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레이에게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다른 사제들의 말소리가 들리자 켄트 선생이 재빨리 정원 내 수풀로 숨었다.

칸나도 따라 숨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켄트 선생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칸나는 켄트 선생의 뒤에서 몸을 깊숙이 숙였다.

심야기도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사제들의 말소리가 사라지자 켄트 선생이 옷을 탁탁 털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었다.

‘대체 어딜 가려는 거야.’

칸나는 켄트 선생의 보폭을 따라잡기 위해 조금씩 뛰어야 했다.

켄트 선생이 드디어 멈춘 곳엔 한 남자가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절뚝거렸다.

너무 캄캄해서 실루엣밖에 보이지 않았다.

켄트 선생이 같이 다닐 사람이라면 어쩐지 레이 같기도 했다.

칸나가 홀린 듯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남성의 몸을 얼른 부축하곤 걸어왔던 길을 켄트 선생이 다시 돌아갔다.

칸나는 잠자코 그들을 지켜봤다.

남자를 부축하는 켄트 선생의 모습이 낯설었다.

‘대체 레이는 어디에다 두고!’

저 사람이 레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저 사람이 레이가 아니라면 레이를 두고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선생님을 날 이용해서 마술쇼 할 때 아니면, 종종 자리를 비우거든.’

레이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켄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곤 그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왕자님.”

‘왕자님?’

칸나는 남성의 얼굴이 궁금했다.

‘특별한 분.’

분명 켄트 선생이 레이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까치발을 들어 봤지만, 후드를 쓰고 있어서 생김새는커녕 머리 색도 잘 보이지 않았다.

레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칸나는 남자의 실루엣이 왠지 낯설었다.

정확히는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였겠지만.

레이에게서 느꼈던 다정함이라던가, 편안함 같은 건 찾을 수 없었다.

이내 남자의 상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다리를 다쳐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어, 얼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남자를 계단에 걸터앉히곤, 켄트 선생이 주변을 살피다 재빨리 예배당 쪽으로 뛰어갔다.

심야 기도를 드리고 있을 사제들이 뛰어나와 바흐에게 데려갈 것이다.

칸나는 켄트 선생이 사라지자 뒤를 쫓을 이유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풍기는 분위기 덕에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다.

게다가 방금까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지 않았던가.

최대한 들키지 않게 몸을 수그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남자가 눈앞에서 쓰러졌다.

본능적으로 쓰러진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진짜 레이는 아닐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괜찮으세요?”

다 쓰러진 남자를 끌어안자 그가 쓰고 있던 후드가 벗겨지면서 달빛에 그의 머리카락 색이 드러났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괜한 기대를 했던 걸까. 칸나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켄트 선생과 동행한 이 남자가 정말 레이이길 바란 걸까.

무심하게 드러난 그의 칠흑 같은 흑발에 칸나는 못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 아쉬움이 어떤 감정인지 쉽사리 가늠할 수 없었다.

무엇이라 정의 내려야 하는지.

저도 모르게 달빛에 빛나는 남자의 얼굴로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것도.

칸나의 손이 스르르 희고도 흰 그의 뺨에 가 닿았다.

의문의 남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칸나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남자가 쉽게 일어날 리 만무했다.

레이가 눈을 감고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칸나가 고개를 저었다.

‘분위기가 달라.’

레이는 햇볕같이 따스한 분위기라면, 지금 이 남자는…….

‘차가워.’

그가 상처에 신음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사람을 앞에 두고 레이를 떠올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레이니, 뭐니 해도 눈앞의 이 사람은 환자였다.

며칠 전 신성력 테스트했던 걸 떠올렸다. 가만히 정신을 집중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의문점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았다.

상처가 난 남자의 다리 부근에 칸나가 손을 올렸다.

그러자 아파서 신음하는 듯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을 감은 탓에 눈동자 색을 알 수 없었지만, 칸나는 왠지 이 남자도 붉은 눈일 거라 확신했다.

켄트 선생이 말한 왕자님이 맞다면.

칸나가 손으로 감싼 남자의 다리 부근에서 칸나의 신성력으로 성스러운 빛이 일렁였다.

이것저것 배제하고 순전히 든 생각은 살리고 싶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던 할머니 모리스가 떠올랐다.

비록 사과를 도둑질할 만큼 가난했지만, 모리스는 소외된 자를 치료하고 싶어 했다.

사람을 살리면서 행복해했던 모리스를 생각하자 칸나의 입가에도 약간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레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레이의 붉은 눈에 미소 짓는 칸나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신의 앞에 칸나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레이가 눈을 비비려 팔을 움직이자,

“!”

칸나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신성력으로 일렁이던 빛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칸나가 레이의 움직임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레이의 눈이 칸나와 마주쳤고, 서로를 응시했다.

‘꿈이……아니야?’

레이는 본능적으로 손이 자신의 머리로 향했다.

로브가 벗겨진 탓인지 흑발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레이가 신경질적으로 후드를 뒤집어썼다. 숨을 수 있다면 숨고 싶었다.

못 볼 꼴을 보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반가움보단 당혹스러움이 먼저였다.

보고 싶었던 칸나였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다.

약속한 대로 곧 켄트 선생이 사제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었다.

칸나 역시 놀란 건 마찬가지였다.

그것도 잠시, 어디선가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칸나는 예배당 쪽으로 뛰어갔던 켄트 선생을 떠올렸다.

곧 그들은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었다.

이대로 있다간 칸나가 신성력을 썼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다.

그것도 아주 강한 신성력을 발현했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칸나 자신의 능력을 있는 힘껏 쓴 탓에 도망쳐야 했다.

잠깐이지만 남자의 붉은 눈이 아련하게 반짝였다.

칸나는 그 눈을 보지 못하고 왔던 길로 얼른 뛰어 수풀 뒤로 숨어버렸다.

켄트 선생이 쓰러진 레이가 있는 곳으로 바흐를 안내했다.

바흐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뭔가 다른 기운을 감지해서였다.

호들갑을 떨며 켄트 선생이 레이의 다리를 가리켰다.

“저희 조카 다리 좀 봐주십사…….”

완벽한 위장이었다. 켄트 선생 사전에 변수란 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켄트 선생한테 비친 레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바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어떤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점점 그 기운이 약해지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시간에…….’

바흐가 이상한 기색을 숨기고, 켄트 선생이 가리키는 남자의 옷가지를 들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그게…….”

켄트 선생이 레이와 바흐를 번갈아 보다 버릇처럼 손을 인중에 가져다 댔다.

초조한 켄트 선생은 사라진 콧수염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분명 정강이에 상처까지 내가며 이곳으로 잠입을 시도했는데, 멀쩡해지다니.

켄트 선생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레이의 다리는 멀쩡했다.

변수였다. 무슨 변수가 발생한 게 틀림없었다.

레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칸나는 수풀 사이로 숨죽여 그들을 지켜봤다.

요동치는 심장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깜짝 놀란 탓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독였다.

자꾸만 떠오르는 그의 붉은 눈은 레이를 연상시키기도 했지만, 그의 눈은 그 자체로 강렬했다.

‘그럴 리 없어.’

칸나는 레이에 대한 상념을 접고, 심야기도에 늦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야 했다.

바흐가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분명 그건…….’

신성력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주 미묘했지만.

금방 사라진 것 같은 강한 기운을 느꼈는데, 어느 누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켄트라는 자가 설명하기로, 다리에 상처가 심했다고 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켄트의 조카라는 작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상처를 치유할만한 자가 이곳에 누가 있는가.

이곳에 남은 사람 중에 아무런 치유비를 받지 않고 치유해주는 자가 누가 있던가.

‘헬만 주교.’

바흐가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신성력도 신성력이지만 그럴만한 정신상태는 헬만주교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흐 사제. 당신은 감히 제르메스 여신 앞에서 떳떳하시오?’

‘당신 눈엔 오로지 돈밖에 안 보입니다.’

‘환자를 마음으로 보시오.’

따위의 말들로 돈이나 밝히는 제게 헬만 주교는 늘 가르치려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던가.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느 누가 헬만 주교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을 했단 말인가.

바흐의 입술 사이로 웃음이 튀어나왔다.

그 웃음은 커졌다가 이내 조금씩 잦아들면서 왠지 모를 회한으로 젖어 들었다.

헬만 주교의 생각을 덮자마자 바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밖에선 아놀프가 바흐의 웃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바흐에게 치료받겠다는 작전은 수포가 되었지만, 별 무리 없이 이곳에 잠입할 수 있었다.

환자 대우를 해준 모양인지 방을 넓은 곳에 배정해줬다.

왕실만큼은 아니지만, 침대도 꽤 넓었다.

레이는 그런 방에서도 좀처럼 후드를 벗지 못했다.

켄트 선생은 레이의 정강이를 다시 한번 훑었다.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아문 듯 보였다.

“무슨 일이신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롭니다.”

켄트 선생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레이에게 더 대꾸하지 못했다.

눈을 떠보니 레이 자신이 쓰러져 있었고, 다리가 다 나아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켄트 선생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변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티오스에서 직접 환자로 둔갑해 이곳까지 잠입하리라곤 생각도 못 한 듯했다.

그것도 티오스의 왕자와 마법 선생이라곤.

“여기서 지내는 동안 왕자님께선 특별히, 더 조심해주셔야 할 겁니다.”

켄트 선생이 지팡이로 자신의 손을 톡톡 두드렸다.

“알아요.”

“정말이지 그 흑발이 도움 될 때가 있군요.”

조소 섞인 말에 레이의 눈빛이 켄트 선생을 향해 잔뜩 날을 세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만한 저주야.’

켄트 선생은 레이가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건 말건 왕자의 저주를 마음에 들어 했다.

레이는 어떻게서든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켄트 선생은 레이가 오래오래 그 저주 속에서 살았으면 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어낼 때까지.

밤이 깊어갔다.

칸나는 아침 일찍부터 바흐의 서재로 불려갔다.

새벽기도에 불참한 일 때문에 부른 것 같았다.

어제는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바흐가 따로 부르지 않은 모양이었다.

칸나가 조심히 바흐의 서재로 들어가자, 맞이하는 바흐의 옆에 크리스토프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앉아라.”

둘을 사이에 두고 칸나가 자리에 앉자 긴장감이 더해졌다.

바흐가 먼저 입을 뗐다.

“왜 불렀는지 알겠느냐?”

“규칙 위반 때문에 부르신 줄 압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크리스토프가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제 잘못을 알고 있지 않은가.

누군 실수를 덮으려 아팠다는 둥, 갖은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일쑨데, 잘못을 꿰뚫는 칸나의 대답은 크리스토프를 웃게 했다.

품위와 체통을 지키는 크리스토프였기에 그만한 미소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우선 네 규칙 위반은 재고하겠다.”

“!”

이유도 듣지 않고 주교의 권한으로 칸나의 불참을 덮어버리려 하다니.

칸나가 크리스토프에게 시선을 돌렸다.

크리스토프는 잔뜩 인자한 미소를 띠며, 바흐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마치 같은 의견이라는 것처럼.

‘또 무슨 꿍꿍이지?’

칸나는 어젯밤 일로 혼이 나면 혼이 났지, 이런 분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어젯밤 심야기도에 지각한 건 명백한 규칙 위반이니까.

크리스토프가 칸나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뿜어내자 칸나는 이곳의 공기가 불편해졌다.

촉각을 곤두세워 잔뜩 경계했다.

무슨 속셈인지 알면 어떻게 대처라도 해볼 텐데.

“직접 양부를 고르거라.”

크리스토프의 입에서 나온 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바흐에게 무슨 얘기라도 들어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나 싶었다.

바흐를 쳐다보자, 바흐도 예상치 못했던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차만 들이켜고 있었다.

회귀 전과 다른 바람이 불었다.

사실 누군가의 양녀라는 타이틀은 칸나에게 하등 필요 없지만, 나중의 망명을 위해 지금 초석을 깔아두는 편이 좋았다.

이왕이면 나중까지 권력을 잡고 있을 대주교라면 더욱 좋고.

단 한 가지 자신을 죽이라 명했던 자라 찜찜할 뿐.

칸나가 바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죽음까지는 과한 처사입니다. 차라리 티오스로 망명을 보내는 것이…….’

회귀 전 칸나가 마녀사냥당할 때, 분명 바흐가 먼저 제안했다.

대주교에게 눈총받는 것을 참작하고 그렇게 말했던 바흐를 칸나는 높이 샀다.

그런 대안 덕택에 자신이 이번 생에 망명을 결심한 것도 있으니까.

부탁을 들어줄 용의가 있는 건 바흐일 테고,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는 건 크리스토프겠지.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의 양녀가 되고 싶은데요.”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다.

칸나의 신성력을 탐하는 건 과거에도 두 사람 사이에 수없이 있었던 것.

물론 이렇게까지 빨라질 줄 몰랐지만.

칸나의 뭔지 모를 부탁에 선뜻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칸나에게 들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던 바흐가 크리스토프의 눈치를 살폈다.

의중을 알아채기 어려운 사람. 자기 생각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번에도 칸나에게 양부가 될 자를 고르라고 하면서 마치 칸나에게 키가 있는 양 굴지만, 결국엔 자신을 짓누르려는 속내가 아닌지 바흐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제 위치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크리스토프가 먼저 대답할 것이고, 바흐는 이의 제기 한번을 못 한 채 그냥 수긍해야 할 것이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크리스토프를 보던 바흐가 얼른 칸나에게 말했다.

“이왕이면 진짜 조건을 꺼내는 게 어떻겠느냐.”

진짜 조건. 그러니까 알맹이를 꺼내라는 말이었다.

칸나의 한쪽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어떤 부탁인지 알아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데.

선택권을 그들에게 쥐여주고 싶지 않았다.

패를 다 까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부탁은 제 양부가 되실 분께만 말씀드릴 거예요.”

칸나가 눈을 가늘게 휘었다.

이들 앞에서 이런 눈웃음을 짓는 게 이젠 어렵지 않았다.

이전에도 칸나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던 바흐는 고개를 떨궜다.

고집이 세다는 건 크리스토프의 흥미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크리스토프의 손가락이 제멋대로 까딱였다.

그녀의 양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 딸로 만들 수 있을지 고심했다.

바흐는 제가 먼저 채가고 싶었지만, 크리스토프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다.

크리스토프가 몇 번을 기다랗고 흰 수염을 쓸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좋다. 네 부탁은 내가 들어주겠네.”

크리스토프가 생각을 오래 할 줄 알았으나, 바흐의 예상보다 빨리 결정했다.

“칸나 양은 날 따라오게.”

크리스토프의 부드러운 음성이 잠깐 칸나에게 착각을 일게 했다.

이 사람이 제게 사형을 선고하던 자의 목소리가 맞는지.

크리스토프가 먼저 일어나자, 칸나가 그 뒤를 따라갔다.

바흐는 두 사람이 자신의 서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영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밖에 있던 하급 사제 아놀프를 불러 하르엔을 데려오라 일렀다.

하르엔이 영문도 모른 채 하급 사제 아놀프의 손에 끌려왔다.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 없었는데, 자신을 막 다루는 듯한 아놀프에게 짜증이 나려던 참이었다.

이 아저씨는 대체 자신한테 왜 이럴까, 하고.

그 볼멘소리는 굳어있는 바흐의 얼굴을 보자마자 쏙 들어갔다.

‘또 혼나러 왔구나.’

바흐가 창밖을 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하르엔이 쭈뼛대자, 그 모습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흐가 입을 열었다.

“그 태도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르엔은 이런 이야기까지 끌려와서 들어야 하는지 몰랐다.

눈치 없는 하르엔의 입술은 자꾸만 삐져나왔다.

머릿속에서 바흐를 향한 반감은 자꾸만 커졌다.

“오늘부로 내 딸은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오늘부로 내 딸은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하르엔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그대로 흘러가 버리자 막혀있던 말문이 바로 터져 나왔다.

“칸나를 딸로 삼으시려는 거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이미 말을 꺼내셨잖아요. 제 의사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애한테 먼저 물어봤잖아요!”

하르엔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지는지 어깨가 자주 들썩였다.

바흐가 아직 창밖의 먼 풍경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분명 절 데려오실 때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르엔이 울먹였다.

기다란 금발이 눈물로 가득 찬 하르엔의 얼굴로 흘러내렸다.

또래보다 영특한 하르엔이지만 지금은 또래보다 더 아이같이 울고 있으리라.

“분노를 내게 쏟지 말아라.”

바흐는 하르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분노의 대상을 다른 곳으로 겨냥했다.

‘지금 칸나를 미워하라는 거야?’

여태 칸나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건 다 칸나의 능력이 뛰어나서였다.

하르엔은 한사코 칸나가 자신을 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바흐가 제게 분노하지 말라 한다.

마치 그 분노를 온통 칸나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처럼.

어린 하르엔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칸나의 신성력을 훌륭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직 신성력을 발현하지 못한 자신의 열등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과 다르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칸나.

또 그런 칸나에게 매번 비교당하는 하르엔 자신의 위치.

바흐에게 분노를 더 쏟아냈다간 정말 미움받을지도 몰랐다.

바흐에게서 분노를 걷어내고 칸나를 눌러 이겨버리면, 어쩌면 아버지가 하르엔에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하르엔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창밖으로 먼 풍경을 바라보던 바흐가 이제야 하르엔을 바라봤다.

“잘 생각했다.”

마치 하르엔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바흐가 한결 차분해진 하르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 너를 위한 일이다.”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바흐는 다른 계획을 구상했다.

칸나를 자신의 딸로 맞이해 반드시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말 거라고.

그다음에 하르엔을 제 딸로 받아들이는 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다.

하르엔은 분명 칸나를 이기려고 별 수를 다 쓸 테고, 그때 가서 쓸모있는 사람이 진짜 제 딸이 되면 그만이었다.

바흐에게 아직 드러내지 않은 발톱이 있다는 걸 모른 채, 하르엔은 분노의 화살을 칸나에게 슬며시 조준하고 있었다.

크리스토프를 뒤따라간 칸나는 그의 서재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사람과 손을 잡아도 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한 탓이었다.

“뭐 하는가. 어서 들어오지 않고.”

그의 말에 못 이겨 얼른 들어가자, 서적으로 빼곡한 책장이 반겼다.

과거 크리스토프와 대담하는 것도 거의 없던 일이어서, 그의 서재도 처음 보는 듯 낯설었다.

“우선 앉으세. 내가 칸나 양을 따로 부른 이유는, 자네의 능력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

“칸나 양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원이 뭔지 궁금해서였네.”

“궁금하시다고 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크리스토프가 수염을 쓸어내리며, 껄껄 웃었다.

칸나의 까칠한 대답이 마음에 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차차, 내가 말을 잘못했군.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일세.”

“무슨 부탁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답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아이의 소원이라는 게 거창해 봤자지.”

어린아이의 소원.

크리스토프는 내심 아이의 소원을 깔보고 있었다.

“아비 될 사람이 대주교라는 걸 잠시 잊은 모양이구나.”

크리스토프의 웃음 뒤로 칸나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할머니.’

만약 과거의 칸나였다면 모리스를 찾게 해달라고 외쳤을지도 모른다.

‘할머닐 찾아도 내가 찾아.’

양녀의 대가는 그저 교환학생 정도면 충분했다.

모리스를 찾는 건 칸나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칸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대주교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이제 말해 보아라. 내 뭐든 다 들어줄 테니.”

가까이 다가온 적나라한 크리스토프의 얼굴에 칸나는 속이 메슥거렸다.

크리스토프가 열리는 칸나의 입에 주목했다.

그러다 그만,

“교환학생이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놀라 크리스토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칸나 양, 다시 말해 보겠나?”

“교환학생이요. 울름탄티아 교환학생으로 보내 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었다.

칸나의 당찬 부탁 아닌 부탁에 크리스토프가 희끗희끗한 수염을 길게 쓸었다.

아무리 쓸어도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교환학생이라니.

신성한 신성 제국의 아이가 울름탄티아로 교환학생이라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국교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제 딸이 타국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아이의 능력은 이 제국에서 가장 인정받아야 할 능력이었다.

그런 교환학생은 성녀 후보에 떨어진 아이들을 보내면 되는 일이었다.

“교환학생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느냐?”

“유능한 인재를 교환하는 거죠.”

겨우 이 정도에 놀란 크리스토프에게 실망했다.

칸나가 티오스로 망명 보내달란 얘길 했으면 어쩔 뻔했나.

‘대주교님은 조, 좀팽이시다.’

바흐의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다.

칸나는 울름탄티아로 교환학생을 가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

이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굴어야 크리스토프가 제 딸로 여겨 무엇이든 들어줄 터.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칸나는 자신의 본래 목표를 상기했다.

“보내 주세요.”

교환학생이 되어 울름탄티아로 가는 도중에 티오스로 망명가는 계획을.

매번 어른스러운 칸나의 일화만 들어서였는지, 어린아이같이 생떼를 부리는 순수한 면을 보자 크리스토프가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렇지, 칸나가 아무리 어른스럽다지만 교환학생에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고집부리는 건 아닐 테지.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는 칸나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또 자신의 딸이 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크리스토프가 칸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풀었다.

“식견을 넓히고 싶은 게로구나. 칸나 양의 뜻에 깊이 공감하네. 믿을만한 자를 시켜 교환학생으로 가는 방법을 검토해볼걸세.”

“!”

크리스토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칸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좋게 봐왔는지 모르겠지만, 칸나는 전과 달라진 크리스토프의 태도를 느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은 없었어.’

먼저 제 부탁을 들어주겠다던 바흐가 마음에 걸렸지만, 칸나는 더 빨리 들어주는 쪽을 원했다.

대주교의 표정을 보아하니, 쉽게 말을 번복할 사람이 아니었다.

고집이 세서 그렇지 한번 결정한 건 다시 번복하지 않았다.

꽤 쉽게 허락해준 덕분에 일이 쉽게 돌아가고 있었다.

신전의 정원엔 이들이 믿는 신의 축복을 받기라도 한 듯 꽃이 만개했다.

레이의 어깨로 햇볕이 잔뜩 쏟아져 내렸다.

‘낮엔 외출을 금하세요.’

‘한낱 상인과 사제가 같은 줄 아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들키면 끝장이란 걸 명심하세요.’

켄트 선생의 목소리가 레이의 귓가에 맴돌았다.

낮에 은발이 되건, 밤에 흑발이 되건 켄트 선생의 말대로 일반 사람들은 티오스의 상징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다.

햇살에 눈부신 레이가 후드를 더욱 뒤집어썼다.

‘날 알아봤을까.’

레이가 푸른 잎사귀에 손을 가져다 댔다.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던 칸나의 얼굴이 생생했다.

‘봤겠지.’

제 머리가 흑발인 것까지 모두.

그것 말고도 마음에 걸리는 건 많았다.

그 자리에 칸나가 있었고, 칸나가 사라진 뒤 자신의 상처가 말끔히 나았다는 것도.

켄트 선생에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레이는 어젯밤 적잖이 당황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점술가의 말이 뇌리에 스쳤다.

왕자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신성력과 마법 둘 다 쓸 수 있는 자.

아서를 시켜 그런 자를 찾아와라 명한 게 벌써 일주일이 흘렀는데.

그런 자가 아주 가까이, 그것도 레이 본인이 아는 자라니.

레이의 손에 잎사귀가 한 움큼 쥐어졌다.

손에서 바스러진 잎사귀들을 보며 레이가 쉽사리 웃지 못했다.

그 사이, 어젯밤 자신의 옷가지를 들쳤던 바흐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바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낮은 계급의 사제로 보이는 자가 바흐 앞에 고개를 꾸벅 숙였다.

바흐가 아놀프의 등장을 눈치채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바흐에겐 구석에 있던 레이가 눈에 띄지 않았다.

레이는 바흐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생각이었다.

저주에 관한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팠기에.

“대주교님께서 정말 그렇게 명하였는가?”

“예. 몰래 듣고 오는 길입니다.”

“정말 그 아일 딸로 받아들일 생각이시로군. 내가 먼저 수를 써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가 칸나라는 걸 직감한 레이가 자신도 모르게 청각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칸나 그 아이가 어디도 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발을 묶어둬야겠어.”

‘!’

바흐의 입에서 칸나의 이름이 나오자 레이의 눈동자가 빨갛게 이글거렸다.

바흐의 말로 예측해보건대, 칸나가 이곳을 떠날 생각인 것 같았다.

레이의 눈이 바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대주교님과 척지게 생겼군. 칸나 그 아이 때문에.”

레이는 칸나가 했던 말을 자신이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는지 되새겼다.

‘레이, 너도 학교 다녀?’

‘응. 거긴 다 마법 학교야.’

‘마법 학교?’

그때 칸나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레이는 알고 있다.

떠나려는 칸나와 묶어두려는 바흐.

그리고 레이는 칸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했다.

넋 놓고 있다간 칸나가 이 자들의 꼼수에 당할지도 모른다.

당장 아서에게 알려야 했다.

“뭐라고요, 왕자님?”

아서가 잘못 들었다는 듯, 레이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얼른 목소리를 낮췄다.

켄트 선생에게 꾸중을 들어 그 충격에 헛소리하는 건 아닌지, 아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들은 대로야.

하마터면 마시던 차를 뿜을 뻔했다. 통신 마도구 너머로 들리는 레이의 목소리는 한 치의 거짓말이 없었다.

“찾았다뇨?”

- 네가 찾고 있는 사람.

켄트 선생과 단둘이 그곳에 잠입한다기에 걱정이 앞섰는데, 아서가 찾기로 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찾다니.

레이는 진귀한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부터 살짝 격양되어 있었다.

설마설마했는데.

아서는 얼른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그럼 바로 데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 안 돼.

외투를 입는 아서의 손이 조금씩 느려졌다.

“무슨 문제라도……?”

- 조금 더 정중하게 모시고 싶거든.

아서가 난처한 듯 머리를 쓸어넘겼다.

한시라도 저주를 빨리 풀어서 켄트 선생과의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마당에 정중이라니.

보이진 않지만, 레이의 목소리에서 고심한 흔적이 드러났다.

아서가 입었던 외투를 다시 벗어 의자에 걸쳐 두고 물었다.

“혹, 그자가 레이디입니까?”

칸나가 도서관을 막 나오는 길에 낯선 이와 부딪혔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낯선 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일반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은 장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신인데 마르기까지 해서 키가 더욱 커 보였다.

낯선 이는 가벼운 묵례만 한 뒤 신전 안으로 사라졌다.

‘누구지?’

신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각각 다른 이유지만, 목적은 하나였다.

‘기도.’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건강했으면 하는 등의 염원으로 제르메스 여신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칸나는 떨어뜨린 책을 집어 손으로 털어내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레이디 맞죠?”

방금 막 레이의 방으로 들어온 아서가 옷을 탈탈 털며 물었다.

“초 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진짠가 보네요. 어느 레이디입니까?”

“있어. 오랜 친구.”

“친구요?”

아서가 턱에 손을 가져다 대곤 생각에 빠졌다.

왕자에게 친구가 있던가. 그것도 오랜 친구라니.

레이는 그렇게 말하곤 자신의 손목을 손으로 쓸었다. 아직 남은 흉터들이 손에 쓸려 거칠었다.

제 거친 상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준 칸나를 떠올리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에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레이가 아서의 추리를 중단하기 위해 일거리를 건넸다.

“이게 뭐죠?”

“이 서신을 칸나에게 전해줘.”

“누구에게요?”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내 친구.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레이는 곧 만나게 될 칸나를 생각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조금씩 걱정이 됐다.

아서는 레이에게 전해 받은 서신을 옷 깊숙이 넣었다.

내용이 궁금했지만, 아서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칸나.’

분명 올리브색의 머리, 베일을 쓰고 있고,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라 했다.

두꺼운 서적을 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정보와 함께 아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이미 해가 다 져버린 마당에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긋한 목소리에 아서가 뒤를 돌았다.

“!”

정말 레이가 말했던 대로 올리브색 머리에 베일을 쓴 여자가 두꺼운 서적을 들고 아서를 쳐다보고 있었다.

칸나는 장신의 사람이 여태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불렀다.

아까 급하게 사라진 걸 보니 무척 급했던 모양인데.

“찾았다.”

찾았다니.

아서는 반가운 마음에 머릿속에서 생각한 말이 바로 툭 튀어나왔다.

칸나의 외양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게 제 왕자님의 저주를 풀어줄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아, 실수입니다. 이, 이거부터 받으시죠.”

통성명하는 것도 잊은 채, 아서가 급히 레이의 서신을 전했다.

쪽지 내용에 뭐가 있는진 몰라도, 칸나의 구미를 당기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안내 부탁해요.”

“네. 편하게 아서라고 불러주세요.”

아서가 묵례하곤, 칸나를 레이의 방으로 안내했다.

걸어가는 내내 칸나는 아서를 관찰했다.

아서는 저를 관찰하는 칸나의 시선이 불편하진 않았다.

워낙 큰 키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관대해진 탓이었다.

-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칸나 양. -

칸나는 쪽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밤, 흑발의 붉은 눈동자.

워낙 강렬했던 인상에 칸나 역시 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칸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랐다.

그날 밤, 도망치는 바람에 칸나가 그를 치료했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난 네 이름도 몰라.’

‘난 아는데.’

‘어떻게 알았어?’

‘과일가게에서 들었어.’

‘과일가게에서?’

‘응. 내가 물어본 거야. 아, 내 이름은 레이야.’

불현듯 레이가 떠오른 건,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알아낸 일화를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자의 붉은 눈에서 레이가 그려졌기 때문일까.

칸나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서를 따라갔다.

“정말 교환학생으로 보낼 생각이신지…….”

바흐가 말끝을 흐렸다.

이제껏 크리스토프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울름탄티아의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걸 허락했는지 바흐로선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칸나 본인이 원하는 일이야.”

“그렇지만 성녀가 될 유일한 재목입니다.”

“모르는 게 아닐세. 자네가 칸나라는 보석을 발견한 건 맞지만, 이제 내 딸이 됐네.”

내 딸. 그 말에 바흐가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언제부터 대주교의 딸이었단 말인가.

바흐는 자신의 결정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칸나를 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자 목이 탔다.

“보석을 찾아낸 대가는 섭섭지 않도록 챙겨줄 것이니 이만 손 떼도록 하게.”

그런데 뒤이은 크리스토프의 말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마치 자신을 어떠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바흐가 이를 아득 갈았다.

도구는 바흐가 아니라 칸나여야 했다.

오직 성녀의 재목으로 쓰다 버려질 아이.

“그만 신경을 꺼줬으면 좋겠다는 얘길세.”

크리스토프가 바흐 자신의 새까만 속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둘이 한 방향으로 걸어왔지만, 서로 각기 다른 목적이라면 이제는 갈라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묵묵히 듣고만 있던 바흐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헬만 주교를 감금시킨 건 대주교님이셨죠.”

“!”

“제가 찾아낸 보석이니, 쓰일 곳에 쓰여야 한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네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겐가!”

“제가 대주교님과 뜻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토프가 연신 자신의 흰 수염을 쓸어내렸다.

쓸어도 쓸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칸나가 사라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바흐가 제게 반기를 들지 몰랐다.

바흐의 눈치를 슬쩍 보아하니, 홧김에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말을 뱉은 건 홧김이었어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몸에 한기가 서렸다.

“부디 제 생각이 대주교님께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만 나가보도록 하죠.”

언제든 제 발을 물 수 있는 사자 새끼를 키운 건 크리스토프 자신이었다.

이렇게 빨리 이빨을 드러낼 줄 몰랐지만.

크리스토프는 어떻게 하면 이 사자를 구슬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다.

수염을 쓸어내리던 손이 간신히 멈췄다.

사자의 먹잇감은 오로지 칸나였다.

칸나가 아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한 남성이 등을 돌린 채 어둑해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칸나의 예상대로 자신이 치료해줬던 그때 그 남자인 것 같았다.

화들짝 놀라 다급히 후드를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후드를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셔왔습니다.”

아서가 가볍게 묵례하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가 뒤를 돌았다.

칠흑 같은 흑발이 그의 붉은 눈과 묘하게 잘 어울렸다.

칸나는 아까 아서에게 건네받은 서신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다행히 와주셨군요.”

제법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다.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매일 밤, 이렇게 창밖을 보며 고독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았다.

칸나는 문득 이 사람이 궁금해졌다.

분명 칸나가 알기론 은발의 붉은 눈이 티오스의 상징인데.

왕자님이라고 불린 흑발의 이 사람이.

“감사 인사는 서신으로 잘 받았어요.”

하나하나 조심히 그의 껍질을 벗길 기회였다.

그의 붉은 눈이 애처롭게 반짝였다.

그는 지금 무방비상태였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의 목젖이 달빛에 훤히 드러났다.

그 덕에 그가 얼마나 말을 고르고 있는지 칸나는 알 수 있었다.

칸나도 따라 침을 꼴깍 삼켰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가 점점 칸나에게 다가왔다. 그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인해 칸나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어느새 코앞에 와있었다.

칸나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심장 소리가 점점 커지는 바람에 눈을 질끈 감았다.

“보고 싶었어.”

“!”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칸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나 가까워진 그의 얼굴을 보자 칸나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며 물었다.

“저를…아세요?”

칸나의 말에 그가 픽 하고 웃어버렸다.

칸나 자신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확실하게 답해주지 않는 그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네.”

말을 놓아버렸다가, 존댓말 했다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서.

“지난밤 말고, 우리가 뭘 또 했던가요?”

“지금도 뭘 한 건 아니라.”

“말장난이 아녜요.”

“오늘 밤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있어요. 그럼 알게 될 테니까.”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칸나가 그를 밀쳐냈다.

“장난은 그쪽이 하고 있군요.”

“…….”

“무례해요. 아무리 티오스의 왕자라고 해도……!”

“!”

칸나는 이런 무례한 사람과 더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다.

레이는 최대한 정중하게 제 나라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입에서 무례하단 소리가 나오고 말았다.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저주를 설명해야 할지, 자신이 레이란 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내내 고민했는데도 별수가 없었다.

제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를 터.

오늘 밤, 같이 있어 달란 말은 제가 레이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시간을 함께 봐달란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말 무례했습니다.”

레이는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칸나는 순순히 사과하는 그를 보며, 자신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말인진 몰라도 직접 듣고 판단해야겠다고.

“말씀해보세요. 그게 어떤 말이기에 제가 믿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는지, 왜 제가 당신과 오늘 밤 같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겠어요.”

하르엔은 복도에서 누군가의 방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칸나가 저 안에 들어간 게 언제 적인데 여태 안 나오고 있는 걸까.

‘아는 사람인가?’

방의 주인이 누군진 몰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칸나랑 아는 사이일지도 몰랐다.

앞을 지나가던 아놀프가 하르엔에게 붙잡혔다.

“아놀프님. 혹시 저 방이 누구 방인가요?”

아놀프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생각난 듯 말했다.

“아! 얼마 전 다리를 다쳤던 남자분입니다.”

하르엔은 용건이 끝나 필요 없어진 아놀프를 보내고, 생각에 빠졌다.

얼마 전 다리를 다친 남자.

‘그런 자가 왜 칸나를?’

하르엔의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갔다.

머릿속으로 온갖 소설과 구실을 만들고 있었다.

성녀 교육을 받는 자가 남자 방에 들어가 이토록 나오지 않는다니.

문란한 행실이 독이 되는 줄 정녕 모르는 걸까.

신성력 구현 때문에 요 며칠 도서관에 다니긴 했지만, 이런 곳에 쓰이게 될 줄 몰랐다.

하르엔이 빙긋 웃으며, 바흐의 서재로 향했다.

하르엔이 이번엔 정확히 노크했다. 바흐에게 들어오라는 말도 들었다.

평상시 바흐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피해 제법 예의를 갖춰봤는데.

“또 무엇이냐.”

들어가자마자 바흐의 첫 마디는.

하르엔은 기운이 빠지는 걸 꾹 참고, 입을 열었다.

“성녀 후보의 체통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은 게냐?”

하르엔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몰랐다.

모든 분노를 칸나에게 돌리라 하지 않았던가.

하르엔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이내 피 맛이 입안을 감쌌다.

“분명 주교님께서 분노를 칸나에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바흐는 자신에게 분노를 돌리지 말라 했지, 칸나에게 돌리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네 상대가 아니야.”

“남자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

“성녀가 될 자가 남자의 방에 들어가 여태 나오지 않는다뇨.”

바흐의 당황한 낯빛을 보자 하르엔이 신이나 이야기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자의 행실이 맞는지요? 남들에게 손가락질받는 행동이 아닙니까? 엄벌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냐?”

바흐는 하르엔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남자의 방이라니.

하르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자칫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는 길이에요.”

“대체 누구의 방이더냐?”

“얼마 전 다리를 다쳐 온 남자라고 하던걸요.”

다행히 바흐가 하르엔의 힌트를 알아들은 듯 조용히 침을 삼켰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번뜩였다.

하르엔의 말이 사실이라면 울름탄티아로 가려는 칸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지도 몰랐다.

“앞장서라.”

“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바흐의 단호한 태도에 하르엔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르엔과 바흐가 레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외출했던 켄트 선생이 막 돌아온 참이었다.

켄트 선생이 저 멀리서 둘을 발견하곤 얼른 뛰어왔다.

“주교님, 제 조카 방엔 어쩐 일로…….”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켄트 선생이 바흐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보아하니 꽉 다문 입매가 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켄트 선생이 레이의 방문을 지팡이로 막아서며 다시 한번 물었다.

“어쩐 일로 오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저씨, 비키세요! 여기 안에 칸나가 있다고요.”

제게 아저씨라고 하자 켄트 선생이 발끈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잠입하기 위해서 수염까지 없애고 왔는데.

‘칸나라니? 설마 애송이?’

켄트 선생은 신성 제국의 한 골목길에서 레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한 여자아이를 떠올렸다.

“조카님껜 실례되는 행동이나, 성녀 후보의 체통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비켜주세요.”

바흐의 말에 켄트 선생이 순순히 지팡이를 내렸다.

그건 켄트 선생에게도 궁금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성녀 후보라니.

그 애송이가 성녀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인가.

켄트 선생이 티오스를 위해 헬만 주교의 행방을 쫓고 있을 때, 티오스의 왕자라는 자는 이곳에서 칸나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단 생각이 들자, 짚고 있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바흐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곤, 하르엔에게 문을 열라 명했다.

하르엔이 벌컥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자,

칠흑 같은 흑발의 사내가 상의를 탈의한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뭡니까?”

처음 보는 아주 차가운 눈빛이었다.

하르엔이 얼른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저 사내에게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쓴 것 같아서였다.

아직 어린 소녀인 하르엔은 그의 다부진 상체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켄트 선생이 멋쩍게 웃으며 얼른 레이 곁으로 다가갔다.

“여태 혼자 있었던 거니?”

“보시다시피요.”

바흐가 레이의 방 안을 훑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다.

“실례합니다.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사람을 찾아야 해서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레이가 걸어두었던 가운을 입었다.

흑발을 손으로 넘기며 창밖을 슬쩍 쳐다봤다.

창밖에서 아서가 레이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

“고마워요. 아서님.”

“아닙니다. 그럼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아녜요. 저 혼자 가는 게 낫겠어요.”

칸나는 가볍게 인사한 뒤, 얼른 제 방으로 올라갔다.

아서는 아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레이의 방을 뚫어지게 보고 있던 하르엔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자 눈앞이 아찔했다.

그건 칸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하르엔이 들이닥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던가.

더군다나 바흐까지 합세해서.

비록 왕자의 비밀에 대해선 전부 다 듣지 못했지만 빨리 자리를 뜨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온 칸나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태 심장이 진정되지 않아서였다.

‘레이라는 자를 기억합니까?’

레이.

의문의 남자 입에서 레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왔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바로…….’

그도 칸나도 숨을 죽인 그 순간 아서의 다급한 등장으로 미처 말을 전부 듣지 못했다.

‘…혈연관계일까?’

닮긴 닮았으니까.

칸나는 오늘 미처 듣지 못한 말을 내일 꼭 듣겠노라 다짐했다.

그 사람이라면 레이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켄트 선생이 레이의 기분을 풀어주려 다가갔지만, 레이는 팔짱을 낀 채 저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바흐가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하르엔만이 칸나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씩씩댔다.

“그, 그러게, 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 애먼 사람을 잡으셨어요.”

켄트 선생은 그런 말 한 적 없었다.

오히려 칸나의 이름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비켜주지 않았는가.

바흐가 하르엔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얼른 고개 숙여라.”

“하지만……!”

바흐가 화를 참는 모습에 하르엔이 그만 고개 숙였다.

레이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칸나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 내일은 기필코 하겠노라고.

레이가 켄트 선생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켄트 선생이 멋쩍게 웃으며 바흐와 하르엔을 데리고 나갔다.

“제가 잘 달래보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죠.”

복도로 나온 바흐와 하르엔은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켄트 선생이 자리를 피하자, 바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헛걸음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분명 봤는데, 하고 하르엔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흐는 기가 찬다는 듯 등을 돌렸다.

“확실한 게 아니면 나서지 말거라. 그러다 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하르엔은 바흐의 말을 명심할 생각이 없었다.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단 말인가.

하르엔은 멀어지는 바흐를 보며, 주먹을 세게 말아쥐었다.

제르메스 여신마저 칸나의 편이란 말인가.

분명 확실하게 봤는데, 왜 신은 칸나의 손을 들어 하르엔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르엔이 뚜벅뚜벅 칸나의 방으로 향했다.

“나야.”

“들어와.”

하르엔이 들어가자 어둑한 방 안에서 초 하나 켜놓은 채, 칸나가 책을 읽고 있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아까부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참 잘하네.”

그제야 칸나가 책을 덮고 하르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짜고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다 거짓말이잖아.”

“이 밤 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고작 그거야?”

“내 말이 틀려?”

“무슨 트집이 또 잡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짓 좀 그만해.”

“뭐?”

뒤이은 칸나의 말은 하르엔의 전의를 상실하게 했다.

“네가 성녀가 되면 되잖아.”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인정 안 받는 줄 아는가.

아무도 하르엔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것도 칸나, 칸나, 칸나 때문에!

“너만 없으면 돼.”

하르엔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됐네.”

“……?”

“내가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 꼭 성녀가 되길 바라.”

희미하게 웃는 칸나를 보면서 하르엔이 되물었다.

“없어지다니?”

“바라던 일 아니었어?”

“…….”

“그러니 너희 아버지 좀 말려줘. 내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말야.”

“!”

칸나는 바흐의 뒷공작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다.

울름탄티아로 가려는 칸나를 막기 위해 어찌나 뒤에서 손을 써대는지.

하르엔은 칸나가 여길 떠나려는 걸 바흐가 뒤에서 막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있는데, 어째서?’

하르엔은 여전히 발현되지 않은 신성력을 떠올렸다.

칸나가 떠나고 나면, 자신이 받을 빛이란 게 있던가.

오히려 칸나를 떠올리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양손을 쳐다보는 하르엔의 생각을 칸나는 읽을 수 있었다.

아직 발현되지 않은 신성력은 하르엔에게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건 칸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칸나가 사라지고 나면 성녀 역할을 톡톡히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르엔만한 사람이 없었다.

생각을 마친 듯, 하르엔이 손을 내밀었다.

“무슨 말인진 알겠어. 나도 바라던 바야.”

누구보다도 성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 하르엔은 떠나려는 칸나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하르엔이 내민 손을 칸나가 가볍게 잡았다.

하르엔의 신성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현되어야만 했다.

칸나는 내일 있을 수업을 기다렸다.

켄트 선생이 무언가 맘에 들지 않는지 지팡이를 돌렸다.

레이의 행동이 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였다.

전에도 한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애송이.’

그 애송이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 바흐가 ‘칸나’라고 말했으니까.

아까 레이의 방을 급습했을 때, 칸나는 방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들, 그 방에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예감이 안 좋아.’

켄트 선생은 칸나와 엮인 레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은 열심히 헬만 주교의 묘연한 행방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레이는 아서를 시켜 딴짓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켄트 선생의 지팡이가 탁자에 계속 부딪혔다.

‘여긴 무슨 생각으로 따라온 거지?’

켄트 선생의 생각이 이리저리 퍼져나갔다.

신전으로 잠입하자고 한 건, 켄트 선생 본인이었다.

하지만 애초 신성 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따라나서겠다고 한 건 다름 아닌 레이였다.

“흠. 뭔가 있어.”

생각을 다 마친 켄트 선생의 콧노래가 복도 여기저기 울려 퍼졌다.

다음날, 칸나는 조금 빨리 일어나 왕자의 방으로 향했다.

‘동이 트기 전, 여기로 와요. 그럼 알게 될 테니까.’

레이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칸나는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칸나는 어젯밤 자신이 그 남자의 어깨를 밀쳐낸 것부터 해서 너무 무례하게 군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다.

그것도 레이와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방 앞에 도착하자, 칸나가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심호흡하곤, 문을 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긴 밤 동안 뒤척였는지, 칸나가 방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있었다.

칸나는 조심스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왕자가 깨기만을 기다렸다.

겨우 잠든 것 같은데 깨우기가 곤란해서였다.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창가에서 들어온 햇볕이 침대를 가득 감쌌다.

강렬한 빛에 칸나의 시선이 자연스레 침대로 향했다.

‘!’

왕자의 까만 흑발이 조금씩 빛을 받아 색이 변하고 있었다.

서서히 은빛으로 물들어가는 그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칸나가 자리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완전히 은빛으로 물들었을 때.

칸나는 그를 와락 껴안았다.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왜 긴긴 밤 동안 같이 있어 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미안해.’

처음엔 너무도 무심하게 그 말을 거절해버렸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게 미안했다.

칸나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 봤을 때처럼 햇볕에 은빛 머리가 반짝였다.

“와줘서 고마워.”

어느새 잠에서 깬 레이가 몸을 일으켜 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레이의 방문이 열렸다.

칸나는 당황한 나머지 레이의 침대 밑으로 얼른 숨었다.

“왕자님, 티오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행히 아서였다.

레이가 칸나를 향해 신호하자, 칸나가 민망한 듯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아서가 칸나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한 뒤, 레이에게 달려가 속삭였다.

“칸나 양과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급한 일이 뭔데 그래.”

“전하께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얼른 티오스로 가보셔야 합니다.”

레이가 아서의 말을 듣고 잠시 휘청였다.

침대 기둥에 간신히 기대서있었다.

칸나는 처음 보는 레이의 넋 나간 모습에 아서의 눈치를 봤다.

“어떻게 할까요?”

아서가 나지막이 물었다.

레이는 마른세수하곤 창밖을 바라보다, 끝내 칸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봤다.

레이의 애처로운 눈빛에도 칸나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결심을 끝마친 듯, 레이가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준비해.”

레이의 단호한 말에 아서가 얼른 방을 나갔다.

방을 나가면서도 칸나에게 인사는 잊지 않았다.

“무, 무슨 일이야?”

아서가 나가고 그제야 말문이 터진 칸나가 물었다.

“칸나. 내가 다시 만나러 올게.”

“무슨 소리야. 티오스로 가는 거야?”

“응. 일이 생겼어.”

칸나는 일이 생겼다는 말에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만큼 급한 일이겠지.

흑발의 남자가 그토록 보고 싶던 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칸나는 다행이었다.

이제 어딜 가든, 레이인지 아닌지 헷갈리지도 않을 테고.

칸나는 한눈에 레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레이가 조심히 칸나에게 다가왔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숨소리 역시 둘 다 쉽게 내뱉지 못했다.

레이가 칸나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올렸다.

부드러운 머릿결에 레이의 손아귀에서 자꾸만 빠져나갔다.

레이가 착잡한 듯, 칸나의 두 어깨를 감쌌다.

“금방 만나러 올게.”

그 말과 함께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감고 서로에게 안겼다.

둘에게 차이가 있다면, 칸나는 갑자기 몰아치는 이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다.

레이는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레이가 두 손으로 칸나의 얼굴을 감쌌다.

이제껏 많이 만나진 못했어도 서로를 애타게 그렸던 그들의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만, 레이는 칸나에게 자신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다.

그걸 말하기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쓰고 싶었다.

레이는 꼭 다시 칸나를 찾으러 올 것이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칸나가 이곳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칸나는 자신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레이를 기다리겠노라고 생각했다.

둘의 포옹은 꽤 오래도록 이어졌다.

“무게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것보다……. 제안이 조금 이상해서 말입니다.”

켄트 선생이 지팡이를 돌리며, 바흐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바흐는 돈 자루의 무게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원래 이상한 제안일수록 대가가 큰 법이지요.”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젯밤 그 소동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조카 놈과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멀리. 멀리 보내주십시오.”

바흐는 켄트 선생의 제안이 상당히 곤란했다.

“제가 뭐 살인을 청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국의 도리에 맞게 부탁드리는 건데, 어려우시겠습니까?”

바흐는 순간적인 저울질에 약했다.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싶었다.

이런 돈을 선뜻 쥐여주면서까지 칸나를 이 제국에서 내쫓고자 하는 이유를 몰랐다.

그게 조카 놈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선생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예. 잘 압니다. 때론 돈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기기도 하지요.”

켄트 선생의 교활한 웃음이 바흐의 방을 가득 채웠다.

바흐는 두 손을 깍지끼고,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보통내기가 아니야.’

협상을 꽤 해본 사람 같았다.

이제 막 주교라는 지위를 달아 일반 제국민의 노잣돈이나 받아온 바흐와는 차원이 다른 협상 실력이었다.

바흐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곤 멋쩍게 웃었다.

입꼬리는 열심히 올리고 있지만, 호탕한 웃음은 아니었다.

켄트 선생은 바흐가 고민하는 걸 눈치채곤 한쪽 다리를 꼬았다.

승기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하르엔.’

그것이 신성력만 있었어도, 생각해봄 직한 제안이었다.

칸나를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것은 칸나부터 시작하여 크리스토프까지 원하는 일이었다.

하물며, 경쟁상대가 사라진다면 하르엔도 바라던 바일 것이다.

바흐를 제외한 모두가 칸나가 이곳을 떠나길 바랐다.

바흐는 본인만 생각을 돌린다면, 켄트 선생이 건넨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꿀꺽할 수 있었다.

바흐가 눈을 질끈 감았다.

“생각이 길어지시는군요. 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드리죠.”

바흐는 켄트 선생을 바라봤다.

켄트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난 탓인지 바흐가 우러러봤다.

켄트 선생은 그 시선을 즐기는 듯, 계속 일어나있는 상태로 말했다.

“아, 그리고 그 돈은, 충분히 생각하실 비용으로 드리도록 하죠. 이후 착수비는 따로 드릴 생각입니다.”

바흐는 대체 이 자의 정체가 뭐길래 이런 돈을 아낌없이 툭툭 던지는 걸까,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보통 이런 자일수록 정체를 모르는 편이 나았다.

바흐는 그저 이 자의 줄을 제대로 잡으리라, 그렇게 다짐만 할 뿐이었다.

“종종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얼룩진 거래로 마무리되었다.

칸나는 이곳을 나간 레이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으니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또, 칸나는 미처 하지 못한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자 이번 수업을 어젯밤부터 기다렸다.

과거 칸나가 역병을 막아내고 성녀 후보로 급부상했듯, 하르엔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막을 쳐야 했다.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

아직도 발현되지 않은 신성력으로 하르엔은 절대 칸나를 대신할 후보가 될 수 없었다.

그녀가 칸나를 대신할 후보가 되려면, 그녀의 신성력부터 남들에게 드러나야 했다.

칸나는 신성력을 티 내지 않고 쓰는 법을 그동안 연구해왔다.

이제야 써먹을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하르엔.”

솔리번 선생님의 호명에 하르엔이 어깨에 힘이 다 빠져 축 처진 상태에서 단상으로 나갔다.

누가 봐도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

솔리번이 하르엔에게 눈짓하자, 하르엔이 없는 기력을 다 끌어모아 집중했다.

솔리번은 바흐가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아꼈던 하르엔이기에 이쯤 되면 신성력이 발현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르엔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그러나 찌푸린 미간에서 제대로 된 신성력이 나올 리 없었다.

솔리번은 그런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저런 자세론 무리야.’

솔리번이 안경을 들어 올렸다.

이제 그만 하라는 손짓을 하려는 찰나.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나타나 이 교실을 가득 메웠다.

솔리번은 이 빛의 출발점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르엔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러나 하르엔은 자신의 손에서 발현된 지 안 된 지도 모르는 채, 그저 교실을 가득 메운 빛을 보면서 감격에 차올랐다.

칸나가 뒤로 감춘 손에서 아직 자그마한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르엔은 바흐에게 이 기쁨을 얼른 전하고 싶었다.

솔리번은 과도하게 들뜬 하르엔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르엔. 아직 기뻐하기 일러.”

하르엔은 솔리번의 말이 퍽 서운하게 느껴졌다.

이 교실의 모든 사람이 신성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게 솔리번의 목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 한사람인 자신이 이뤄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하르엔은 몰랐다.

그 빛의 주인공이 칸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하르엔은 솔리번의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다.

손뼉을 치던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박수를 멈췄다.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자, 하르엔은 신경질이 났다.

축하받아야 할 마땅한 타이밍에 축하는커녕, 이따위 소리나 들어야 한다니.

그것도 이 교실 안에 아직 칸나가 있었다.

칸나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하르엔이 이만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교실은 금세 어수선해졌다.

칸나 역시 솔리번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 예의주시했다.

‘분명 내 능력이었어.’

하르엔은 한반도 그 능력을 발현시켜 본 적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다.

그냥 그 순간 교실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자신이 발현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신성력을 뽐냈을 리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솔리번 선생님도 정확히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 못 했는데.

하르엔은 큰일을 해낸 자신의 손을 여러 번 쓰다듬었다.

이 일을 바흐에게 말하면 분명 칭찬받을 거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능력을 발휘한 건데.

얼른 바흐의 방 앞에 섰다.

하급 사제 아놀프가 하르엔을 내려다봤다.

아놀프의 에스코트로 하르엔이 바흐의 방에 불쑥 들어가자, 바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바흐가 그런 표정일 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상하는 건 하르엔도 어쩔 수 없었다.

“누가 여기 함부로 들여보내랬나.”

언짢은 바흐의 목소리에 아놀프가 움찔했다.

하르엔이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제가 신성력을 쓸 수 있게 됐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바흐의 동공이 잠시 흔들렸다.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게 능력이라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바흐는 혼란스러웠다.

하르엔이 신성력을 쓸 수 있다니.

“아버진 예의를 운운하셨지만, 사실은 신성력이 있는지 없는지로 사람을 판단하셨던 것 아닌가요?”

“무슨 소릴 하고 싶은 게냐.”

“다시 절 딸로 거둬주세요.”

하르엔은 말속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으려고 애썼다.

바흐는 저렇게 제 딸이 되려고 애쓰는 하르엔을 보며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다.

칸나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하기까지 하는데, 바흐의 딸이 되려 저렇게까지 하는 하르엔의 노력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신성력을 쓸 수만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바흐에게 하르엔은 거짓말이 습관인 아이였다.

이미 지난번 하르엔에게 속은 전적이 있지 않은가.

“아직 제때제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제야 능력이 발현됐는데. 저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다는 거냐?”

“아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때 모두가 봤어요.”

바흐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르엔을 살폈다.

바흐는 그 수업을 담당하는 솔리번을 떠올렸다.

‘솔리번이라면 확실히 알겠지.’

하르엔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르엔을 딸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칸나는 이미 대주교 크리스토프의 양녀가 되었고, 자신의 딸이 될만한 빈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게다가 켄트 선생에게 돈까지 두둑이 받아둔 상태였다.

제 딸이 되지 않은 칸나를 저 멀리 보내버리고, 이 돈도 챙기면서 제 딸이 된 하르엔을 유력한 성녀 후보로 올려 버리면.

대주교 크리스토프의 말을 어기지 않는 게 되면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자신의 지위가 하르엔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자 불안함이 엄습하는 건 사실이었다.

확실하게 실력을 입증해야 했다.

“우선 나가보거라. 당분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행동을 조심하라.”

바흐의 말에 하르엔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르엔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거라.”

수업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쪼르르 달려 나온 하르엔을 바흐가 나무랐다.

그래도 하르엔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더한 말도 들었을 것이다.

신성력을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다니.

하르엔의 방까지 데려다주라는 바흐의 명령에 하르엔과 아놀프는 싱글벙글하며 복도로 나왔다.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딸로 받아주신 거겠죠?”

“그렇고 말고요.”

오늘만큼은 하르엔의 생일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이렇게 기쁜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건 정말이지 드문 일이었다.

황량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곳. 울름탄티아.

연무장엔 상의를 탈의한 울름탄티아 사내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했다.

모두 땀을 뻘뻘 흘렸다.

“이래서 울름탄티아를 대표할 수 있겠나!”

울름탄티아. 국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내의 땀이 들어갔는가.

많은 피를 흘렸고, 또 많은 피를 마셨다.

시험감독관이 제 앞에 있는 응시자들의 기합 소리를 더욱 키웠다.

모두 타국 시험감독관의 눈에 들기 위해 제각각 검술을 뽐냈다.

신성 제국의 교환학생으로 뽑히기 위해 이렇게나 열심인데 저기 한 놈.

바로 저 뺀질뺀질한 금발 머리 한 놈 때문에 감독관 피터슨의 신경이 곤두섰다.

흥미가 없는 듯 어설픈 시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하품까지 하고 있었다.

하품 덕에 눈물까지 닦는 꼴을 보자 참을 수 없었던 피터슨이 다가와 알렉스의 귀를 잡아당겼다.

“아, 아파요!”

“허튼수작 부리지 마라.”

알렉스는 콧방귀를 끼며,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 검이 땅바닥에 쓸리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래도 보낼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솔직한 심정은 보내고 싶지 않았다.

검술 실력은 출중하지만, 이런 의욕도 없는 놈을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피터슨 본인의 아들이었다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내는 울름탄티아를 대표하는 기사단장의 아들이었다.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피터슨은 다른 놈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조용히 속삭였다.

“날 곤란하게 할 셈이 아니라면 얼른 검을 들어라.”

알렉스는 평상시와 다르게 근엄한 표정의 피터슨을 골리고 싶어졌다.

또 모름지기 장난이란 건 이럴 때 해야 제맛이고.

알렉스는 피터슨의 등을 지고 돌아앉았다.

피터슨의 표정이 어떤진 몰라도 고소할 것이었다.

등을 돌린 알렉스에게 들어온 광경은 그에게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않았다.

빽빽한 응시자들과 그들 앞에 서 있는 석 기둥. 그걸 끊임없이 쳐내는 게 이번 관문이었다.

무엇을 위해 저렇게도 열심이란 말인가.

‘따분해.’

노력도 재능있는 사람이 해야 재밌는 게 아니던가.

알렉스는 그들의 땀이 전혀 흥미롭지 않았다.

자신은 어떻게 해도 될 건데, 노력은 무슨 노력?

알렉스가 코를 쓱 훔쳤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나 다를까 오밤중에 피터슨이 알렉스의 방으로 찾아왔다.

“준비해라.”

“거봐요. 괜히 아까 힘만 뺐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할 셈이냐?”

“천성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거기서도 제 맘대로 될 텐데요, 뭘.”

모든 게 알렉스의 예상대로였다.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관문이 그러했다.

알렉스의 노력으로 얻은 적이 없으니, 뭘 해도 의욕 부족이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의 검술 실력은 타고났달까.

그것 덕분에 노력 없이도 여기까지 온 것인지 모른다.

“당장 내일이다, 내일.”

알렉스에게 내일이란 것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내일 누굴 만나는지도 모른 채.

고대한 적 없는 아침이 밝았다.

일찍부터 국가 간 교환학생 체결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알렉스는 매일 하는 검술보다야 계약서 작성이 생소했기 때문에 흔쾌히 응했다.

“거기선 누가 온대요?”

“그게 궁금하긴 한가 보지?”

“할 말 없어서 물어본 거 티 났어요?”

알렉스와 피터슨이 함께 귀빈실로 들어갔다.

신성 제국의 대주교 크리스토프와 교환학생으로 울름탄티아에 오게 될 칸나가 인사했다.

한껏 내리깐 눈과 백설같은 피부가 올리브색 머리와 잘 어울렸다.

알렉스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얼이 빠져 있었다.

“인사.”

피터슨이 옆에서 허리를 쿡쿡 찌를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으니.

늘 정신을 다른 데 두는 놈이라 감독관은 평소랑 같다고 생각할 테지만, 알렉스는 평소랑 미묘하게 달랐다.

허둥대는 제 모습에 칸나가 살짝 웃는데.

‘예쁘다.’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알렉스가.

“알렉스입니다.”

황량한 이곳에선 절대 불지 않는.

“칸나에요.”

산들바람을 만났다.

비록 악수를 청할 순 없었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끔 칸나와 눈이 마주칠 땐, 어쩔 줄 몰라 알렉스가 헛기침했다.

알렉스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껏 큰 불만이 없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는 것.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만 위로 향하는 입꼬리완 다르게.

어느새 알렉스의 시선은 칸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알렉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떨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간 머무는 걸로 합시다.”

“그게 좋겠네.”

크리스토프와 울름탄티아의 감독관이 악수했다.

정식으로 서로의 인재를 교환하기 전, 사흘간 생활 방식을 익히기 위한 수습 기간이 있었다.

일주일 뒤, 그들은 정식으로 타국에 가게 된다.

칸나가 미소를 흘리는 걸, 알렉스가 가만히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십니까?”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무려 3년이다.

아버지 하레스의 건강이 위독하다 하여, 이곳에 묶여 있는 게 3년이었다.

레이의 흑발이 달빛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서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레이는 지금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서가 레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가만히 들었다.

아서 역시 지난 3년을 회상하고 있었다.

3년 전, 레이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칸나란 걸 알았을 당시 왕이 위급하단 연락을 받고 급하게 티오스로 향했다.

칸나에게 흑발에 관한 저주랄지, 티오스에서 자신의 위치랄지.

이것저것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단지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른 데로 가려는 칸나를 바흐가 무사히 막아주길 바랄 뿐이었다.

‘칸나 그 아이가 어디도 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발을 묶어둬야겠어.’

분명 정원에서 바흐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레이는 금방 돌아오겠노라, 그렇게만 다짐했는데.

1년 동안은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 교육을 받았고, 2년 째엔 건강이 악화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켄트 선생에게 마법을 배웠다.

그리고 3년째. 아직도 제 발이 티오스에 묶여 있을 줄이야.

아서 역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아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상황이 정리되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

“알다시피, 마법도 못 쓰는 내가 무슨 왕을 하겠어.”

거기다 밤마다 흑발로 변하는 자신을 누가 왕위에 세운단 말인가.

이만 물려줘도 될 왕위인데, 아버지 헤라스는 레이에게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

어릴 적 이후로 마법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아들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헤라스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제 아들의 마법 교육을 보려고 하지 않는가.

레이는 이제 열여덟이었다.

레이의 붉은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정처 없이 떠돌았다.

말발굽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완전히 멈추자 칸나가 마차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광활하게 펼쳐진 울름탄티아의 대륙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나돌고,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역시 소문대로 황량한 곳이었다.

그동안 자란 칸나의 긴 머리카락이 쓸쓸한 바람에 휘날렸다.

‘자그마치 3년이야.’

칸나가 망명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었다.

울름탄티아로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해놓고, 여러 번 무산된 일이었다.

바흐가 뒷공작을 펼쳐 대주교를 구슬린 적도 있었고, 울름탄티아로 여러 번이나 서신을 보냈는데 이쪽에서 거절한 적도 있었다.

저 금발 머리 사내 덕에.

3년이나 걸렸지만, 칸나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

“너 이 녀석,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아이, 삼촌도 참.”

멀지 않은 곳에 세워진 다른 마차에서 알렉스와 감독관 피터슨이 내렸다.

알렉스에 대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검술이 뛰어난 사내라고 들었지만, 그건 칸나에게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

칸나가 그를 볼 때마다 그는 피터슨에게 자주 혼이 나고 있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칠 때면 그들은 멋쩍은 듯 웃음으로 무마했다.

규율을 잘 지켜왔던 칸나로선 자유분방한 알렉스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곧 서로 교환되는 처지겠지만.

“들어가실까요?”

피터슨의 안내에 따라 울름탄티아의 연무장으로 들어갔다.

널따란 대지 위에 비나 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없는 말 그대로 야외였다.

훈련용 석 기둥이 반들반들한 모습으로 제각각 위치에 우뚝 서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내들이 이곳을 거쳐 지나갔는지 피터슨이 쉼 없이 얘기했다.

땀과 비가 뒤섞여 흙탕물에 뒹굴어도 울름탄티아의 자랑인 이 연무장에서 많은 사내들이 울고 웃었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땀 흘린 시간을 자랑스러워했다.

피터슨이 침을 튀겨가며 과거 역사를 들먹이며 자랑을 해대는 통에, 크리스토프가 피곤한지 가끔 몰래 하품했다.

“장거리 이동에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주무실 곳부터 안내해드린다는 것이 그만…….”

멋쩍게 웃는 피터슨의 뒤에서 알렉스가 머리를 긁적였다.

아무리 제 삼촌이라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센스가 영 없는 것 같아서였다.

칸나는 그런 알렉스를 아까부터 관찰했다.

온갖 규율로 가득한 신성 제국에서 그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노친네가 되니 졸음을 숨길 수가 없다네.”

“제 불찰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피터슨은 귀빈이 묵을 수 있도록 준비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피터슨과 크리스토프의 뒤를 따르던 칸나가 알렉스에게 말을 걸었다.

“검술이 무척 뛰어나신가 봅니다. 저희 제국에도 기사님에 대한 칭찬이 많이 들리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알렉스는 그 말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칸나의 진지한 말에 장단을 맞췄다.

웃음이 자꾸 새어 나오는 걸 참느라 손으로 입을 가리기 바빴다.

검술이 무척 뛰어난 건 맞지만, 신성 제국에서 제 칭찬을 할 리가.

‘싸가지 기사 얘기 못 들었어?’

‘검술만 잘하면 뭐 해? 인성이 좋아야지.’

‘그런 애들은 금방 나자빠지고 말지.’

‘내가 울름탄티아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애들은 한 주먹 거리도 안 돼.’

그때 코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알렉스는 잠자코 있었다.

피터슨이 신성 제국에 억지로 끌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보나 마나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랬겠지.

그렇지만 알렉스는 이미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도 흥분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그럼요. 신성 제국에 오면 놀라실 거예요.”

신성 제국에서 온 성녀라는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게 거짓말을 하다니.

무려 거짓말이다.

알렉스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성녀님.”

“……?”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칸나가 옆으로 고갤 들려 그를 봤을 때.

그의 입가엔 흥미롭다는 듯,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흐가 전보다 침침해진 눈으로 책장을 넘겼다.

칸나와 함께 울름탄티아로 떠난 크리스토프의 업무를 바흐가 대신 보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울름탄티아 행을 막았어야 했는데.’

바흐는 3년 전 켄트 선생의 돈을 받고,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결정을 뒤바꿨다.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잘 구현된 하르엔의 신성력도 결정에 한몫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 진전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퇴보했다.

떠난 칸나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대주교는 이미 만족할만한 지위를 얻었을 텐데, 대체 무슨 속셈으로 칸나를 제 손아귀에 쥐고 안 놔주는 걸까.

결국 울름탄티아로 갈 거였으면, 진작에 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랬다면 지금쯤 다시 신성 제국으로 돌아와 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흐의 뜻은 아니었지만, 울름탄티아의 사정으로 교환학생이 거절된 것도 여러 번.

그 사이 칸나가 어디 제 사람이 되었던가.

바흐 생각에 칸나는 제게만 유독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르엔 그것이 신성력만 뛰어났어도.’

하르엔의 신성력이 칸나에게 못 미치자 화가 났다.

칸나는 하는 걸 왜 하르엔은 못 한단 말인가.

‘누가 선택한 아인데.’

바흐가 선택한 아이였다.

나이 차라 감싸기 무색할 정도로 격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졌다.

바흐가 솔리번을 찾아가 하르엔의 신성력에 관해 물었을 때, 솔리번이 뭐라 했던가.

‘하르엔이 처음으로 구현해낸 신성력이지만 제법이더군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바흐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주먹이 얼얼했다.

그 손으로 무의미하게 이마를 짚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냔 말이야!’

열이 올라왔다.

불덩이 같은 몸을 침대에 누이지 못하고, 책상에서 그만 고꾸라졌다.

밖에서 바흐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하급 사제 아놀프가 재빨리 뛰어와 바흐를 등에 업었다.

“비상입니다!”

눈엣가시였던 칸나가 사라졌는데도 하르엔은 자꾸만 입술로 향하는 제 손톱을 막지 못했다.

‘도망친 주제에.’

울름탄티아로 도망친 건 칸나였다. 하르엔이 아니라.

덕분에 칸나를 제치고 신성 제국의 하나뿐인 성녀 후보가 되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급생들이 제 발끝이라도 닮으려 얼마나 애쓰는가.

하르엔은 그걸 보면서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일과가 끝난 뒤, 방으로 돌아오면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곳의 성녀 후보는 누구도 아닌 바로 하르엔인데도, 하르엔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패배감이 일었다.

칸나가 마지막에 했던 말 때문에.

‘너랑 경쟁하는 거, 이젠 의미가 없어.’

하르엔은 그 말을 생각하자 자신의 금발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아득 이가 갈렸다.

하르엔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도망치는 건 하면 안 되는 짓이었다.

‘나라고 경쟁하는 게 좋았겠어?’

칸나 혼자서 끝까지 착한 척이었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머릿속에서 하르엔을 괴롭혔다.

‘그런 마음가짐으론 성녀가 될 수 없어.’

칸나가 하르엔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런 말들이 꿈에서도 나타났다.

하르엔은 칸나가 없는 데도 평범한 일상일 수 없었다.

하르엔이 방안에서 실성한 듯, 주저앉아 실소를 터트리고 있던 그때였다.

아놀프가 노크도 없이 하르엔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하르엔이 신경질을 내려는 찰나,

“하르엔 양. 어서 같이 가시죠.”

그 한마디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르엔은 초점 잃은 눈으로 순순히 아놀프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성녀님.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칸나가 짐을 풀다 말고 고개를 푹 숙였다.

원래 남한테 없는 말 같은 건 잘 하지도 않는 성격인데.

피터슨에게 계속 꾸중만 듣는 것 같길래 기 좀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 그만.

알렉스에게 거짓말하는 성녀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래도 좋았다.

뭐라 생각하든 칸나는 이곳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었다.

교환학생이 아니라면,

‘만날 일도 없을 테지.’

칸나가 마저 짐을 정리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성녀님.”

“누구세요?”

“울름탄티아 최고의 검술을 자랑하는.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죠?”

칸나는 알렉스를 떠올렸다.

제게 찾아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알렉스는 뒤끝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요?”

“지금 좀 같이 걸어야겠습니다.”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러기 있습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칸나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티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던 터라 알렉스와 동행하기로 했다.

열린 문 사이로 알렉스가 아까와 같이 반달처럼 생긴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울름탄티아의 정원은 한적했다.

호전적인 특색을 지닌 울름탄티아에서 이런 분위기의 정원을 만나게 될 줄 칸나는 몰랐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황량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양한 꽃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푸른 잎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칸나의 시선과 손길이 정원 곳곳에 닿았다.

“울름탄티아는 보기와 다르게 다정한 구석이 있군요.”

“이번에도 칭찬이 과하시네요.”

“울름탄티아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의아하다는 듯이 알렉스가 칸나에게 물었다.

“신성 제국은 좋은 나라가 아닙니까?”

“가보시면 알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집니다.”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 이거군요.”

칸나가 살짝 미소 짓자, 알렉스도 따라 웃었다.

모든 게 재미없던 알렉스였는데, 이게 뭐라고 웃음이 난단 말인가.

아니, 웃는 건 아무 때나 억지로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미가 있다는 건 억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던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성녀님은.”

“그렇게 부르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울름탄티아의 학생으로 왔으니까요.”

알렉스는 칸나의 심경을 전부 읽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초면이었다.

다만 알렉스가 모든 일에 흥미가 없었듯, 칸나 또한 흥미 혹은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걸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했다.

“뭐, 원하는 대로 불러드리죠.”

“고마워요.”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잠시 고민하던 칸나가 입을 열었다.

“칸나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도 칸나는 생각했다.

제 나라로 교환될 학생에게 이름을 불릴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어쩌면 저랑 동족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이죠?”

“재미있다고요.”

칸나가 어느새 어둑해진 공허한 하늘을 쳐다봤다.

며칠 있으면 착수해야 하는 계획을 떠올렸다.

울름탄티아의 예법을 익힌 칸나가 신성 제국으로 돌아간 뒤, 알렉스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곳의 생활방식을 알려줘야 했다.

안타깝게도, 칸나는 그 전에 도망칠 것이다.

‘레이.’

칸나는 레이가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레이는 3년이 지나도 칸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레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칸나가 먼저 티오스로 건너가야 했다.

이 교환학생이 무산되면 뒷감당이 안 될지도 몰랐다.

칸나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어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다들 멍청해요.”

“네?”

“울름탄티아에선 머릿속에 다른 건 집어넣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생각하죠.”

“……꼭 위로같이 들리네요.”

알렉스가 횡설수설했지만, 칸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울름탄티아에서 자란 알렉스 나름대로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울름탄티아의 이튿날이 밝았다.

칸나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익혔다.

어차피 다시 오지 않을 곳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알렉스가 왼손으로 식사하는 걸 열심히 가르쳐주는 바람에,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알렉스는 왼손으로 서투르게 먹는 모습을 보고 괜스레 뿌듯해했다.

방 한 조각을 먹을 때에도, 수프 한 스푼을 떠먹을 때도.

신성 제국과 다른 예법에 힘들 법도 한데, 잘 따라와 주고 있었다.

“너나 그렇게 좀 먹지.”

“아, 삼촌!”

뿌듯해하는 알렉스가 못마땅했던 피터슨이 흉을 봤다.

알렉스는 혹시라도 피터슨이 꿀밤을 먹일까 봐 방어태세를 갖췄다.

우여곡절 식사시간이 끝나고, 정오가 되자 알렉스가 가볍게 몸을 풀었다.

잠시 뒤 검술 대련이 있을 예정이었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칸나가 검술을 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귀빈 예우 차원에서 이벤트로 열렸다.

“녀석, 오늘 안 하던 짓까지 하고 왜 저래?”

피터슨은 부러 알렉스에게 면박을 줬다.

칸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크리스토프는 오늘도 피곤했는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처음 보는 진귀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난생처음 보는 대련이 아니던가.

더군다나 검술이란 건.

검술로 유명한 울름탄티아의 실력이 궁금하기도 했다.

경기 시작 종소리와 함께, 알렉스의 눈빛이 돌변했다.

한껏 가벼워 보이던 눈빛이, 매서운 눈빛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상대는 알렉스의 기세에 눌려, 제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었다.

바람을 가르는 검의 표면이 내리쬐는 빛을 받아 눈부셨다.

‘생기가 없어.’

칸나가 보기에 알렉스의 검은 살아있지 않았다.

알렉스의 출중한 실력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알렉스의 검이 주춤하던 상대의 검을 순식간에 제압해, 쓰러뜨렸다.

상대의 검이 저 멀리 나가떨어졌다.

알렉스의 승리로 해당 진영의 깃발이 높이 올라갔다.

사내들의 함성이 와르르 터져 나왔다.

경기를 마친 알렉스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매번 이기는 게임이었다.

승리에 잘 도취하지 않는 알렉스였지만, 이번만큼은 의기양양하게 걸어왔다.

피터슨이 걸어오는 알렉스에게 혀를 끌끌 차곤 말했다.

“남들 다 하는 노력만 해도 저렇게 꼴사납진 않을 텐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별말 안 했다.”

귀가 좋은 알렉스는 피터슨이 금방 제 흉을 본 걸 알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길 정도면 엄청난 실력자란 소린데.

칸나가 보기에 그의 검은 어쩐지 다 죽어가는 모양이었다.

‘신성 제국에 가서 버릇을 고쳐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보통 구제 불능이 아니거든요.’

알렉스가 한참 대련 중일 때, 피터슨이 칸나에게 한 말이었다.

구제 불능의 주인공은 알렉스였다.

칸나는 그런 말을 들었단 기색을 얼른 감췄다.

저 사람의 노력이 칸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게…칸나 양이 울름탄티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뭐?”

아서의 말에 창밖을 보던 레이가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칸나에게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단 말도 했고, 칸나가 떠나지 못하도록 바흐가 뒷공작을 펴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일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니, 그것보다 3년이나 신성 제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썩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레이가 손으로 자신의 은발을 쓸어 넘겼다.

“켄트 선생이 돈을 쥐여준 모양입니다.”

“켄트 선생이?”

“뭔가 낌새가 좋지 않습니다.”

레이가 양손을 모았다. 깊이 시름 했다.

아서 역시 심각한 표정이었다.

왕자의 저주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칸나가 신전에 있는 걸 알게 된 켄트 선생이 돈을 써 사람을 매수했을 거라 짐작했다.

켄트 선생의 패턴이 늘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 짐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진작 알아차리지 못한 게 화가 날 뿐.

문제는 칸나가 떠난 곳이 울름탄티아라는 것이었다.

광활한 대륙에서 어찌 찾는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레이의 발이 여기, 티오스에 꽁꽁 묶여 있었다.

“얼마나 걸리지?”

“적어도 이틀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틀이면, 안 들킬 수 있겠어?”

“……솔직히 무리입니다.”

평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레이였기에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해도 아서가 섣불리 뭐라 할 수 없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게 부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주에 걸리지 않은 아서 본인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레이 본인은 오죽하겠는가.

“심정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무리는 무리였다.

레이 본인이 직접 칸나를 찾으러 울름탄티아에 가겠다는 건데.

헤라스 왕이 위독하다 하여 티오스에 온 게 3년째였다.

“그러다 갑자기 전하께서…….”

“말뿐이야.”

“……!”

“진짜 위독한지도 잘 모르겠어. 날 불러들이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그도 그럴 것이 헤라스 왕의 병세가 악화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정확히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레이에게 설명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치유에 능한 마법사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넌지시 묻는 레이에게 아서는 말을 아꼈다.

그런 아서의 반응에도 레이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모두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

“아직도 마법 하나 구현할 줄 모르는 어린 애로 보는 거지.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그건 아닐 겁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여. 자, 아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지?”

레이는 이미 준비를 마친 듯, 상의를 탈의했다.

옷을 바꿔입자는 것이었다.

아서는 울름탄티아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았다.

제 동생이 그곳에 있었다.

아서는 얼른 상념을 지우고 반대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나한텐 여기가 더 위험해. 알잖아.”

레이가 아서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다.

아서는 걱정이 하나가 아니었다.

왕자 혼자 그 먼 길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방 안에서 왕자 노릇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나서기 좋아하는 켄트 선생을 어떻게 속인단 말인가.

“변신술에 최고로 능한 자가 무슨 걱정이야.”

“백 퍼센트 똑같이 변신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만요.”

레이의 말대로 아서는 티오스에서 알아주는 변신에 능한 자였다.

왕국에서 비밀리에 일을 시킬 때도 아서는 다양한 인물로 변신해 뒷일을 봐오곤 했다.

다만, 아무리 변신술에 능하다 해도 백 퍼센트 똑같이 변신할 순 없는 거였다.

또 그 허점을 켄트 선생이 예리한 눈으로 잘 캐치하곤 했다.

“분명 잘할 거라 믿어.”

레이의 말에 아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식은땀을 흘리던 바흐가 겨우 눈을 뜨고 저를 둘러싼 주변인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하필 이때.’

치료할 수 있는 크리스토프가 없는 이 타이밍에 제 몸이 아프다니.

그야말로 원통했다.

그나마 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곤 다시 제 딸이 된 하르엔과 실력이 없어 만년 하급 사제인 아놀프밖에 없었다.

제 몸 아플 때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

바흐가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긴긴 새벽 극심한 고통 탓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내내 상주해있던 아놀프를 불렀다.

“아무도 모르게 빼내오라.”

“지, 지금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 네가 날 치료해 보거라.”

“하지만 저는…….”

아놀프가 머뭇거리자 바흐가 역정을 냈다.

“여기서 누가 날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대주교님께서 절대 열어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대주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걸 잊었느냐. 어서 데려오라!”

호통을 치자 바흐는 몸 군데군데가 욱신거렸다.

고통을 인내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놀프가 그런 바흐를 보며 어쩔 줄 몰랐다.

잠시 고민하더니 발길을 돌렸다.

캄캄한 지하 감옥을 향해 덜덜 떨리는 램프 하나가 길을 밝혔다.

“…주교님.”

아놀프의 목소리가 공허한 지하 감옥을 울렸다.

코너를 돌아서 들고 온 램프를 가까이 가져다 대자, 쇠창살 안에 헬만 주교가 정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오랜 감옥생활에 수척해질 법도 한데, 식사를 거르지 않았던 모양인지 헬만 주교의 얼굴은 아놀프의 예상보다 그리 상하지 않았다.

“헬만 주교님.”

아놀프가 감옥 열쇠를 손에 쥐고서도 망설였다.

뛰어난 신성력만 있었어도, 하급 사제에서 멈춰 이런 허드렛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흐가 주교 자리에 오른 만큼, 바흐가 벗게 된 상급 사제 옷을 아놀프가 입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제 밑에 하급 사제 하나를 두어 이런 일을 시켜도 문제없었겠지.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 아놀프가 신성력만 있었어도 바흐를 치료하는 걸 시도해봤겠지만.

대주교 크리스토프의 명령으로 제가 가둔 헬만 주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갑갑했다.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

“저… 바흐 주교님이 몸져누워있습니다.”

“…….”

“면목 없는 줄 압니다만, 치료해주실 분이 주교님밖엔 없습니다.”

아놀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상한 감정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헬만 주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언뜻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아놀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주교님께서도 허락하셨소?”

한참의 침묵 끝에 헬만 주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탓에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아놀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쉬고 있던 크리스토프가 신성 제국에서 급하게 온 서신을 받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치료할 자가 없단 말인가.’

크리스토프가 수염을 가만히 쓸었다.

크리스토프의 부름을 받은 칸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저를 부르셨다고요.”

크리스토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칸나에게 서신을 건넸다.

칸나가 받아들곤 조용히 눈으로 읽는 사이, 크리스토프가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봤으니 알겠지만, 급히 돌아가야 하네.”

“…….”

“피터슨 감독관에겐 내가 일러둘 테니, 그 학생에게도 일러주게.”

칸나가 서신을 내려두고, 묵례했다.

숙인 고개 밑으로 칸나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계획했던 날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칸나가 크리스토프의 방을 빠져나와 다시 연무장으로 향했다.

모두가 연습에 매진 중일 때, 알렉스는 그곳에 햇볕을 받으며 누워있었다.

누워있던 알렉스가 걸어오는 칸나를 보고 얼른 상체를 일으켰다.

“무슨 일 있습니까?”

“예상보다 여기를 빨리 떠날 수도 있겠어요.”

“아직 하루가 더 남았는데요?”

“피터슨 감독관님껜 대주교님께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전 상관없습니다.”

알렉스는 신성 제국으로 향하는 일정이 하루 더 빨라졌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알렉스에게 그 하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칸나는 신성 제국에 있을 바흐와 하르엔을 떠올렸다.

그렇게 강인할 것 같던 자도 아플 수 있는 거구나.

가벼이 넘길 수 있는 통증이었다면 타국에 나와 있는 크리스토프에게까지 서신을 보내지 않았겠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칸나는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레이가 창밖을 내다봤다.

자신이 뛰어도 될만한 높이인지 가늠했다.

사람들 앞에서 유독 마법만 못한다 뿐이지, 다른 분야에선 가리지 않고 월등한 실력을 뽐냈다.

마법만 문제였다.

지켜보던 아서가 염려되는지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왕 가시는 거, 제발 조심 하시고요.”

“걱정 마. 그럼 나 간다!”

높이를 가늠하던 레이가 금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호기롭게 나서는 레이를 보며, 아서는 그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간 옷을 입었다.

왕자 노릇이라니.

차라리 제게 칸나를 데려오라 했으면 다녀올 수 있었을 텐데.

‘맡기실 리 없지.’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본인이 먼저 나선 것이다.

레이가 열고 나간 창문에서 서늘한 바람이 방으로 불어 들어왔다.

칸나가 옷자락을 들고 조심히 마차에 오르려는데, 알렉스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금방 피터슨에게 꿀밤을 맞았지만.

칸나는 신성 제국으로 혼자 가게 될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지금 아니면 안 돼.’

칸나가 옷자락을 더 세게 말아쥐었다.

마차 안에서 바라본 밖은 이미 해가 져 어둑어둑했다.

울름탄티아로 오는 내내 그랬듯, 크리스토프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 것이었다.

‘다행이야.’

칸나는 버릴 만한 물건을 죄다 울름탄티아에 버리고 왔다.

빠른 도망을 위해선 최소한의 짐만 필요했다.

짐이 없으면 오히려 더 좋았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토프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말발굽 소리는 일정하게 들려왔지만, 칸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행여나 심장 소리가 크리스토프의 귓가에 들어갈까 봐 손에 땀이 났다.

크리스토프가 완전히 곯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차는 쉼 없이 달렸다.

꾸벅꾸벅 졸던 크리스토프가 드디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울름탄티아에 거의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온 탓에 칸나는 숨길 짐이 없었다.

크리스토프는 칸나가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웠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칸나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풍요의 여신 제르메스를 상징하는 문양의 목걸이였다.

반짝반짝 빛나기만 했던 목걸이가 칸나의 마음만큼이나 퇴색해져 있었다.

순간적인 힘으로 목걸이를 세게 잡아당기자 힘없이 목걸이가 끊어졌다.

칸나가 조심히 마차를 세웠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였다.

호위 기사가 마차 안에서 잠들어있는 크리스토프를 보고, 깨우기 곤란했는지 순순히 칸나를 보내주었다.

누가 봐도 칸나의 얼굴에서 고귀한 성녀의 품격이 묻어나왔기 때문에.

호위 기사는 마부에게 잠시 대기하라 일렀다.

호위 기사와 동행하다, 몇 걸음 못 가서 칸나가 곤란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칸나 양의 안전을 위해섭니다.”

“보시다시피 여긴 아무도 없는걸요. 제 신변 보호보다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보이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보호해주시겠어요?”

“하지만…….”

“교환학생 신분으로 바뀌긴 했지만, 제가 한때 유력한 성녀 후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호위 기사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칸나의 말대로 지금 저기 세워진 마차 두 대와 자신들밖에 없었다.

더 따라갔다간 한때 유력한 성녀 후보였던 칸나를 모독하는 게 될지도 모른다.

거기다 평소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었다.

제게 화장실 간다고 말한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호위 기사는 결심을 마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결례를 범할 뻔했습니다. 여기 있을 테니, 어서 다녀오십시오.”

“감사해요.”

칸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진심에 화답하듯 호위 기사는 칸나에게 얼른 등을 보였다.

믿고 보내주겠다는 뜻이었다.

칸나의 입가에 산뜻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칸나가 유유히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호위 기사가 제 나름 신사적인 행동이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었다.

“뭐라?!”

잠에서 깬 대주교 크리스토프의 신음이 깊어졌다.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껏 구겨진 미간이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길게 늘어뜨린 수염도 쓰다듬어 봤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덴 소용 없었다.

아무리 양녀라 해도 제 딸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쁜 놈들의 습격을 받고 실종된 게 아니냔 말이다!”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호위 기사가 크리스토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단지 실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갑작스레 벌어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 크리스토프의 시선이 마차 안, 그러니까 칸나가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다.

누가 일부러 놓고 간 듯 끊어진 목걸이가 빛을 잃은 채 놓여있었다.

크리스토프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딴생각을 품고 있었을 줄이야.’

칸나 제 발로 탈출한 것이었다.

울름탄티아로 향할 때보다 한결 가벼워진 짐을 볼 때도 수상한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 칸나가 뭐라 했던가.

‘어차피 여기로 다시 올 건데요, 뭘.’

이리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교환학생이었으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휘청거리는 크리스토프를 잡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호위 기사가 얼른 일어섰다.

크리스토프가 그 손길을 마다했다.

제가 잠이 많았던 탓이다.

하필 졸음이 밀려왔던 탓이었다.

일정한 말발굽 소리에 그만 정신을 잃은 탓이었다.

아니, 이놈들은 대체 뭘 했단 말인가!

급기야 크리스토프가 체통을 지키지 못하고, 호위 기사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호위 기사는 아픔을 참았지만, 크리스토프는 제가 찬 발에 제가 아파 뒹굴었다.

그 모습을 보던 피터슨과 알렉스가 깜짝 놀라 마차 밖으로 튀어나왔다.

“무, 무슨 일이십니까!”

피터슨이 크리스토프에게 다가왔다.

비록 망신스러운 이야기였지만, 넋 놓다가 놓쳐버린 호위 기사에게 더는 맡길 수 없었다.

크리스토프가 피터슨에게 몸을 의지하며 말했다.

“사라졌네.”

“누가 말입니까?”

“칸나 말일세.”

피터슨이 심려에 빠진 크리스토프를 다독였다. 제 나름의 위로와 함께.

크리스토프만큼은 아니었겠지만, 피터슨에게도 칸나는 찾아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울름탄티아의 교환학생으로 오는 인재였으니까.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 저희 영토이니, 저희가 직접 나서도록 하죠.”

믿음직한 말이었다. 신음하던 크리스토프가 피터슨의 부축을 받아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마차 안에서도 크리스토프는 자책과 분노로 혼자 중얼거렸다.

피터슨은 골똘히 생각했다.

울름탄티아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국가였다.

그러니 어디로 도망치든 용이할 터.

제 나라를 둘러싼 국가만 네 개 국가였다.

신성 제국, 티오스, 칭챵, 레하트.

피터슨이 얼른 제 병사들을 불러들였다.

한편, 울름탄티아의 마차 안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이 흥미로운 나머지 소리 내어 웃었다.

알렉스가 마차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칸나를 본 건,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다.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군.’

마음껏 웃은 알렉스가 제 검을 챙겨, 피터슨이 불러 모은 병사들과 한데 섞였다.

피터슨은 병사들 가운데서도 한눈에 띄는 알렉스를 알아봤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칸나를 찾아내는 게 울름탄티아에 좋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알렉스가 먼저 뭘 하겠다고 나선 일은 처음이었다.

한밤중 울름탄티아를 상징하는 기합 소리가 광활한 대륙에서 울려 퍼졌다.

이윽고 병사들이 제각기 흩어졌다.

아놀프가 바흐가 누워있는 방으로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랜 수감생활 덕에 바깥이 낯선 헬만 주교도 함께 들어왔다.

누워있던 바흐는 이어진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헬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오랜 수감생활 동안 헬만 주교는 먹는 것 말곤 관리받는 것이 없었기에 전보다 잔뜩 자란 머리털과 수염, 손톱이 마치 한 마리의 짐승 같았다.

바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런 자가 예전과 같은 신성력을 보일 수 있을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다.

제르메스 여신이 헬만의 이런 몰골을 본다면 하사했던 신성력도 다시 빼앗지 않을까, 생각했다.

바흐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행색이 어찌 됐든, 이유 막론하고 아픈 저를 내치지 않고 치료해주겠다 올라온 사람이었다.

환자를 향한 변하지 않은 마음만큼은 높이 치하하고 싶었다.

“부탁하네.”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였다.

머리카락에 가려 헬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바흐는 눈을 감았다. 얼른 이 통증이 가시길 바랄 뿐이었다.

아놀프는 행여 누가 들어오기라도 할까 문 앞에서 전전긍긍했다.

특히 아놀프가 급히 보낸 서신 덕에 크리스토프가 신성 제국으로 돌아올 터였다.

실종된 헬만 주교가 여기서 바흐를 치료한다는 걸 알게 되면 신전이 얼마나 뒤집힐지 끔찍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걸 바흐가 알기라도 하면, 혼이 날 텐데.

혹여라도 누가 문을 열면 안 되니,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제발.’

아놀프는 무사히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다.

이윽고 헬만의 짐승 같은 손에서 괴상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등을 지고 있었지만, 너무 눈이 부셔 아놀프가 눈을 잔뜩 찌푸렸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칸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쉴 틈 없이 뛰었다.

지금쯤이면, 칸나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고도 남을 것이었다.

제 마법은 왜 순간이동이 되지 않는지 안타까웠다.

‘순간이동만 됐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칸나는 바닥에 떨어진 제 베일을 주울 시간도 없었다.

발에 자꾸 모래가 밟혔다.

깊은 모래 속으로 자꾸 꺼지는 발이 무거웠다.

캄캄한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만이 칸나를 비추고 있었다.

도망치는 건 칸나의 인생에서 두 번 있는 일이었다.

바흐의 손에 거둬져 신전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바흐는 자연스레 성녀 교육을 받길 권했다.

열 한 살에 할머니와 헤어지고 삼 년 동안 신전에서 성녀 교육을 받았다.

지금이야 이미 신성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예법도 모두 몸에 익혔으니 쉬운 일이었지만, 회귀 전 인생에선 칸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을 치료하는 건, 신성력이 발현된 뒤에나 할 수 있었으니까.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어린 마음에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린 칸나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종종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를 찾아야 하는지, 매일 밤 끙끙대기 일쑤였다.

참다 참다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새벽에 탈출을 감행했는데.

‘그 바닥이 다 그들 손아귀에 있을 줄이야.’

신성 제국이 다 그들 손아귀에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몰랐다.

또다시 개미지옥처럼 신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무리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을 체감하게 했다.

그때부터였다.

회귀 전 칸나가 벗어날 수 없는 신전에서 가장 선봉에 있는 성녀가 되어야겠다고 더욱 확실히 못 박은 건.

열아홉에 특별한 계기로 마법을 쓰게 될 줄도 몰랐지만, 마법을 썼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 덕에 두 번째 인생을 살아 또다시 탈출을 감행하고 있지만.

얼른 도망쳐야겠다는 생각과 달리 두 발이 점점 무거워졌다.

칸나가 뒤를 돌아 뛰어온 거리를 가늠했다.

아까 머리에서 떨어진 베일의 피사체가 점이 되어 있었다.

‘후.’

칸나는 젖 먹던 힘까지 내어 저 멀리 오르막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둑했던 밤이 조금씩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레이가 옷을 탈탈 털며 짐꾼을 기다렸다.

짐꾼은 짐수레에 싣고갈 물건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다.

아서가 미리 사람을 매수해둔 덕에 편안히 짐수레에 탈 수 있게 됐다.

본인은 이렇게 무리 없이 가게 됐는데, 남아있을 아서가 걱정됐다.

‘꽤 고생 하겠군.’

남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

레이의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다.

운이 좋아 어찌 짐수레를 얻어타게 됐지만, 울름탄티아에서 칸나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때, 수레와 멀지 않은 가게에서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문을 닫아 한산한 밤에 그 가게만 여태 문이 열려 있었다.

“이걸 무슨 깎아달라고 해요. 남지도 않는 장산데.”

“…….”

“왜 맨날 저희 가게에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살 사람 많으니까 이만 가세요!”

가게 주인은 별꼴을 다 본다는 듯, 노인을 위아래로 훑었다.

벙어리 노인.

노인을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라고 가게 주인이 생각했다.

매번 가게에 와서 손짓으로 흥정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말 못 하는 노인에게 키도 크고 훤칠한 손자가 있을 줄이야.

“할머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

“이거 얼마죠?”

노인이 고른 물건값을 내겠다는 의사를 펼치자 가게 주인은 앞선 행동이 민망했는지 말을 더듬었다.

“그, 그게…….아니, 할머니한테 손자분이 있는 줄은 몰랐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산 물건들 값은 되겠죠.”

“!”

“조금 더 얹어 드릴 테니, 다음에 할머니께서 물건 사겠다 오시면 제 앞으로 올려 주세요.”

노인이 가게 주인 앞에서 양손을 힘차게 저었지만, 가게 주인이 그 손짓을 눈에 담을 리 없었다.

가볍게 무시하고 오히려 노인의 손자에게 가게 장부를 내밀었다.

제 앞에 놓인 돈 자루가 노인에게 없던 손자도 손자로 만들게 했다.

노인의 손자랍시고 나타난 사내가 제게 돈 자루를 몇 개나 쥐여주는가.

일주일 치 장사는 다 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손자면 어떻고, 손자가 아니면 또 어떤가. 한껏 올라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가게 주인의 시선이 돈 자루에 꽂힌 나머지 장부에 적힌 이름을 보게 되는 건 아주 나중의 일이었다.

모르는 사내와 함께 가게를 빠져나온 모리스는 말 못 하는 이 순간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제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냐고 호통을 쳤을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뭐라 했을지 몰랐다.

제 앞에 늠름히 서 있는 사내를 보며, 모리스는 금세 눈앞이 눈물로 얼룩졌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자신이었다.

저 앞에서 짐꾼이 수레에 짐을 싣고 있었다.

말을 못 하는 노인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짐을 얹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자 주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더 깊어졌다.

레이는 노인의 심경을 다 알 순 없었다.

다만, 제 팔을 붙잡고 눈물로 얼룩진 노인을 보니, 베푼 선의가 과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가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노인의 모습에 사과를 훔치던 오래전의 칸나가 떠오른 건.

머릿속에 온통 칸나 생각뿐이어서 그렇다고밖엔 설명할 길이 없었다.

노인이 거친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아섰다.

레이는 그 뒷모습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짐꾼이 부르는 소리에 더는 지켜보지 못했다.

레이가 수레 위로 올라가 쌓여있는 짐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티오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크리스토프가 타고 있는 마차가 곧 신성 제국에 당도할 것이었다.

날은 진작에 밝아 햇볕이 쏟아졌다.

굽이진 길을 지나 흔들리는 마차를 따라서 크리스토프의 몸이 같이 흔들렸다.

몸은 신성 제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제 딸이 지금 울름탄티아 어디에 있을 것이었다.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제국에서 온 급한 서신이 있는 만큼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크리스토프는 한 제국의 대주교였으니까.

‘책임지고 찾아내겠습니다.’

제 호위 기사보다 믿음직한 그곳 감독관의 말이 떠올랐다.

그자의 이름이,

‘피터슨.’

크리스토프가 간신히 이름을 기억해내곤 수염을 쓸어내렸다.

칸나를 찾아내 제 앞으로 데려오기만 한다면, 크리스토프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칸나를 생각하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말발굽 소리가 빠르게 들리다 이내 멈췄다.

크리스토프가 천천히 신전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있었을 때와 달리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주교가 아픈 탓일 게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아놀프가 벌벌 떨며, 크리스토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미 제게 무릎을 꿇은 이가 있었다.

그자는 칸나를 도주하게 만든 죄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사제는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더군다나 바흐가 데리고 다니는 사제였다.

얼른 병상에 누워있는 바흐에게나 데려갈 것이지.

제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크리스토프의 신음이 깊어졌다.

“지금 뭐 하는 겐가.”

“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대주교님!”

호위 기사가 제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신성 제국에서 또 들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뭐가.

“이번엔 또 뭔가.”

크리스토프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신의 뜻에 따라 적시에 목숨을 앗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성 제국의 법도였다.

제게 죽을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어제오늘만 벌써 둘이었다.

목을 치지 않기 때문에 죽을죄를 짓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아놀프는 그의 떨리는 음성이 폭발하기 직전의 전조증상이라는 걸 몰랐다.

“헤, 헬만 주교님이 사, 사라졌습니다……!”

아놀프가 몸을 덜덜 떨었다.

이미 손은 크리스토프를 향해 싹싹 빌고 있었다.

지난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왕자 행세를 할 것도 없었다.

물론 밤마다 흑발로 변하는 레이였기에,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자 누구도 오지 말라 명했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니.’

아서가 긴 밤 심심했듯, 레이 역시 오래도록 외로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자 노릇을 해야 하는 아서로선 아무도 오지 않는 게 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오가 되고 나니 아서에게 다른 문제가 생겼다.

‘중요한 걸 놓쳤어.’

바로 머리 색이었다.

은발은 왕가 혈통 고유의 머리 색이었다.

제아무리 변신술에 능한 아서라도 백 퍼센트 변할 수 없었고, 흑발과 붉은 눈동자도 겨우 엇비슷하게 변신했는데 은발은 오죽하겠는가.

특히 은발은 햇빛을 받으면 티가 많이 난다는 게 문제였다.

오늘같이 햇살이 좋은 날이면 켄트 선생처럼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분명 콕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짝이는 레이의 머리카락을 아서는 본 적 있었다.

그런 머리 색이 멋있고 부러워서 어린 나이에 짠-하고 변신한다는 것이 그만.

그 꼴을 보고 켄트 선생이 뭐라 했는가.

“오리 새끼 주제에 독수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

“애초에 될 수가 없다! 태어나길 오리 새끼로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이냐.”

은발로 변신하길 무색하게 켄트 선생이 어린 아서를 비웃었다.

“지금 네 꼴이 무슨 꼴인 줄 아느냐?”

“…….”

“어떻게든 독수리가 되려고 안달 난 꼴이로구나.”

애초에 독수리가 되려 따라 한 게 아닌데, 자신의 마음관 다르게 켄트 선생의 해석이 어린 아서에겐 상처였다.

이후 은발 머리론 한 번도 변신한 적 없었다.

그 비웃음 덕에.

특히 레이와 비슷한 모습으로의 변신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 했다.

“후.”

아서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지금이었다.

급하게 켄트 선생의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예정에 없던 일이 생기자 아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들을 미행하고, 잠입해서 엿보고 하는 건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었는데.

맞닥뜨릴 사람이 켄트 선생이라 문제였다.

‘왕자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서는 은발로 변신한 제 머리를 거울 앞에서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창가에서 비치는 햇살에도 아서의 은발은 반짝이지 않았다.

아서의 간절한 외침을 아는지 모르는지, 레이가 빛나는 은발을 후드 안으로 깊이 숨겼다.

그러는 사이 레이가 탄 수레는 어느덧 울름탄티아에 당도했다.

발을 내디딘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레이는 아서가 매수한 짐꾼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사내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에서 칸나를 얼른 찾아야 했다.

‘기다려줘.’

레이의 간절함이 칸나에게 들릴 리 없었다.

왔던 길로 멀어지는 수레를 보며, 레이가 울름탄티아 도심으로 향했다.

칸나는 아직 울름탄티아를 벗어나지 못했다.

종아리가 부어오르는 것 같았다.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를 여러 번.

짐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다만,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칸나에게 곤욕이었다.

입술이 말라 점점 갈라졌다.

칸나의 할머니가 한밤중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 도망쳤듯, 칸나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자란 열일곱이니까.

거기다 두 번째 인생이란 강점이 있었다.

‘못할 거 없지.’

다시 자신을 채찍질했다.

저 뒤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다.

몸을 숨길 데가 없어 칸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누구에게라도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왕자님?”

어릴 적 이후, 은발로 변신하고 켄트 선생과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다.

“네. 말씀하시죠.”

켄트 선생이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곳곳에서 풍겨 나왔다.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뭡니까?”

“헬만 주교와 연락이 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

“그동안 그자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헬만 주교의 이야기가 모르는 이야기도 아닐 텐데, 왕자의 시선이 켄트 선생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 제국도 알만합니다. 신성한 척은 다 하더니, 지하 감옥이라뇨.”

왕자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가던 켄트 선생이 슬슬 지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생각할 거리가 있다거나, 이 상황이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주로 지팡이를 돌렸다.

켄트 선생에게 지금은 후자였다.

‘우스운 꼴이군.’

켄트 선생은 왕자의 반응을 살폈다.

제 말에 무엇 하나 제대로 대꾸한 것이 없었다.

그제야 방을 둘러본 켄트의 시선이 한곳에 머물렀다.

우선 왕자의 반응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헬만 주교가 탈출한 모양인지 신성 제국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그렇습니까?”

아서의 그 반응에 켄트 선생이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정말 변한 게 없군요.”

아서는 켄트 선생의 갑작스러운 웃음이 무얼 의미하는지 몰랐다.

제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기엔 높임말을 여전히 쓰고 있었고, 제 정체를 모른다고 하기엔 가소롭다는 듯 비꼬는 말투가 어릴 적을 떠올리게 했다.

아서는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켄트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서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누가 시켰습니까?”

“…뭘 말입니까?”

“오호라.”

켄트 선생이 콧수염을 늘어뜨리며 아서에게서 떨어졌다.

이내 창가로 다가갔다.

아서의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다.

“이제 보니 커튼도 쳐놓았군요. 아서 집사.”

켄트 선생의 손짓 한 번에 그늘졌던 방이 햇빛으로 가득 찼다.

아서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쏟아지는 햇빛에 은발이 시들었다.

그 머리를 보고 켄트 선생이 똑같이 비웃고 있을 터였다.

“쯧쯧. 이런 사태를 대비해 싹을 잘라놨는데.”

“…….”

“기어코 잡초처럼 자라 이런 짓을 꾸미는군요.”

아서 마음속엔 아직 제때 치유하지 못한 어린 아서가 있었다.

그런 아서 곁으로 켄트 선생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진짜 왕자님은 어디 있죠?”

대륙의 바람에 알렉스의 금발이 이리저리 휘날렸다.

알렉스의 목적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피터슨이 보낸 병사들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야 했다.

울름탄티아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주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쉽다 정도지, 막상 정말 도망을 시도한다면 광활한 대륙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었다.

두 다리로 살아나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가 아니던가.

‘왜 그런 짓을…….’

알렉스는 병사 대부분을 일부러 도심 쪽으로 보냈다.

기사단장 아들의 말이니 그 말을 듣는 것도 무리가 없었다.

알렉스만은 외곽으로 향했다.

도심으로 돌아갔을 거란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알렉스는 많은 병사에게 둘러싸인 채 칸나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먼저 찾아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알렉스가 오르막을 오르던 그때, 오르막 너머로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알렉스가 빠르게 뛰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칸나가 지친 몸을 뉜 채 지난 밤 고단함을 풀고 있었다.

칸나가 눈을 떴을 땐, 알렉스의 얼굴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알렉스가 제 몸을 들어 안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놀란 칸나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래도록 물을 마시지 않은 탓이었다.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난 듯, 굳은 알렉스의 얼굴에 칸나가 몸부림쳤다.

이러다 계획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알렉스는 그런 칸나의 몸부림을 일부러라도 보지 않으려 했다.

꿋꿋이 정면만 보고 걸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아까 봤던 다 부르튼 칸나의 발이 생각나 안쓰러웠다.

멀지 않은 곳에서 윤기 나는 말이 두 사람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알렉스가 그들 앞에 선 말 위에 칸나를 태우자 칸나는 어리둥절해 물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제야 나온 목소리는 쩍쩍 갈라졌다.

알렉스는 칸나를 보며, 조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가요.”

“……네?”

“같이 가요. 당신이 가려는 곳.”